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아가

SNG · 시가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8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아가 1장

SNG-001 · 시가서 · 히브리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옴이로구나"(1:2)라는 신부의 갈망이 권을 열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1:5)의 자기 서술과 지키지 못한 포도원(1:6)을 지나, 향 기름·물약·고벨화의 향(1:3, 12-14)과 "어여쁘고 어여쁘다"(1:15)의 마주 칭송이 백향목 들보의 푸른 신방(1:16-17)에 이르는 — 아가의 개막.

관찰된 사실

아가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옮겨 다니는 무대: 표제(1절) → 왕의 방(4절) → 예루살렘 딸들 앞(5절) → 햇별의 포도원(6절) → 정오의 목장(7~8절) → 왕의 침상 곁(12절) → 엔게디 포도원(14절) → 백향목·잣나무 숲(16~17절). 실내와 야외의 교대.
- 마지막 무대의 특이성: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 — 살아 있는 나무가 그대로 거처가 되는, 숲이 집이 되는 결말 장면.
- 소품(미각): 포도주(2·4절). 소품(후각): 향기로운 기름·쏟은 향기름(3절), 나도(12절), 물약 향주머니(13절), 고벨화 송이(14절) — 향이 네 번으로 가장 많음.
- 소품(장신구·천): 땅은 머리털, 구슬 꿰미, 금 사슬과 은(10~11절), 게달의 장막(검은 염소털 천막), 솔로몬의 휘장(5절).
- 소재의 두 무더기: 궁정의 것들(왕·방·휘장·금·은·병거·구슬) 對 들의 것들(포도원·양 떼·장막·염소·고벨화·백향목) — 한 남자가 왕과 목자 양쪽의 언어로 불림.
- 형식 소재: shir hashirim 최상급 구문의 문패 + 기원문으로 열리는 첫 발화("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 명령·연대·훈계가 아니라 바람(願)으로 여는 책.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4절의 숨 가쁜 속도: 기원·감탄·청유가 세 절에 압축 — "이끌어 들이시니... 달려가리라"의 연속 동사.
- 5절의 급전환: 달려가던 목소리가 흘려보는 시선들 앞에 멈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 방어가 면서 동시에 선언인 복합 온도.
- 향이 읽기 내내 코끝에 머무는 장: 13절의 물약 향주머니는 밤새 품에 두는 것 — 향이 '곁에 있음'의 감각으로 번짐.
- 호명의 교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7) ·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8) · '내 사랑아'(9·15) · '나의 사랑하는 자야'(16) — 일방이 아닌 주고받음.
- 서술문이 거의 없는 장: 기원·감탄·청유·질문·칭송 — 거의 모든 문장이 누군가를 향해 있는 2인칭의 글.
- 1:2의 인칭 전환(enallage): '그가'로 시작해 같은 절에서 '네'로 미끄러짐 — 갈망이 문법을 앞지르는 현상. / 5절의 vav: '그러나'와 '그리고' 양쪽에 열림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의 아가라(shir hashirim asher li-Shlomoh)" — 노래의 문패.
-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 거처의 묘사. 노래로 열려 집으로 닫힘.
- 건축의 대비: 5절(게달의 장막·솔로몬의 휘장 — 짜서 만든 거처)에서 17절(들보·서까래 — 자라나는 거처)로.
- 인칭의 이동: '나'의 갈망(2절)에서 '우리'의 거처(16~17절 — 우리의 침상, 우리 집)로.
- 1:6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 8:11-12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 권을 가로지르는 kerem 수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부(주된 화자 — 열일곱 절 중 열두 절 남짓), 신랑(9~11·15절 발화 — '왕'으로도 '양 치는 자'로도 그려짐), 예루살렘 딸들(청중·코러스), 처녀들(3절), 어머니의 아들들(6절 — 노한 오라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1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부재의 관찰.
- 중심 사상: 1:5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 검다는 사실과 아름답다는 선언이 한 문장에 동거. 비교도 두 겹(게달의 장막 ↔ 솔로몬의 휘장).
- 1:6의 인과 사슬: 오라비들의 노여움 → 포도원지기 → 햇볕 → 거무스름함 →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함 — 다섯 고리의 압축. '나의 포도원'은 밭과 자기 자신이 겹치는 이중 화법(본문은 밝히지 않음).
- 1:7의 물음: 위치를 묻는 사랑("네가 양 치는 곳을 내게 말하라") +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의 두려움. 1:8의 답: 좌표 대신 발자취("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 1:9-11 신랑의 첫 발화: 준마(susah — 암말) 비유, 현재의 칭송(뽀·목) + 미래의 약속(금 사슬에 은).
- 호명의 등뻘: dodi(나의 사랑하는 자 — 13·14·16절 첫 등장) ↔ rayati(내 사랑아 — 9·15절 첫 등장) — 1장에서 처음 교환되어 권 전체에 반복되는 두 호칭.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표제 — 노래들 중의 노래, 솔로몬의.
- 컷 2 (2~4절): 갈망의 개막 — 입맞춤의 기원,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향기로운 이름, 왕의 방, "달려가리라."
- 컷 3 (5~6절): 검으나 아름다움 —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오라비들, 지키지 못한 포도원.
- 컷 4 (7~8절): 찾는 물음과 답 — 정오의 쉼터, 양 떼의 발자취.
- 컷 5 (9~11절): 신랑의 첫 발화 — 준마 비유, 뽀와 목, 금 사슬과 은.
- 컷 6 (12~14절): 향의 교환 — 나도·몰약 향주머니·엔게디의 고벨화.
- 컷 7 (15~17절): 마주 칭송과 푸른 집 — 비둘기 눈, 푸른 침상,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
- 발화의 교대: 신부(2~4·5~6·7) — 답(8) — 신랑(9~11) — 신부(12~14) — 신랑(15) — 신부(16~17). 15↔16 절은 같은 문형을 성만 바꿔 되돌려주는 거울 칭송.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ir hashirim(שִׁיר הַשִּׁירִים) — '노래들 중의 노래', 최상급 연계 구문. LXX ἄσµα ἁσµάτων. 'asher li-Shlomoh'의 lamed는 저작·헌정·소속·관련의 폭 — 미해결.
- neshiqot(נִשְׁקֹת) — 입맞춤들(복수). / dodim(דּוֹדִים) — 사랑·애정 행위의 복수형. LXX는 dodeykha를 µαστοί σου(네 가슴)로 — dad-로 읽은 자음 동형의 갈래, 배경.

- *shem/shemen*(שֵׁם/שֶׁמֶן) — 이름/기름의 언어유희(1:3). *turaq* — '쏟은·부어진'.
- *shechorah... ve-navah*(שְׁחֹרָה... וְנָבִיחַ) — 검다 + vav + 아름답다. LXX는 *kai*(그리고)로 — 역접/병렬의 번역사 갈림.
- *Qedar*(קֶדָר) — 북아라비아 유목 부족, 검은 염소털 천막. 어근 *qadar*(어둡다)와 닿는 이름. / *yeriot* — 휘장·천막 천.
- *kerem*(כֶּרֶם) — 포도원. 1:6에 두 번 + 1:14 + 8:11-12의 수미. / *oteyah*(עֵטָה) — 얼굴을 가린 자. LXX *περιβαλλομένη* — 뜻은 미해결.
- *susah*(סוּסָה) — 암말(여성형). 바로의 병거 대열이라는 배경 그림. / *rayati*(רָאִיתִי) — 내 사랑아(신랑→신부). / *dodi*(דּוּדִי) — 나의 사랑하는 자(신부→신랑).
- *nerd*(נֶרֶד) — 나도. 인도산 향료, 산스크리트 차용어로 설명되는 외래어. / *tsror hammor*(צֶרֶר הַמּוֹר) — 몰약 향주머니. / *kofer*(כּוֹפֶר) — 고벨화·해나. / *En-Gedi* — '새끼 염소의 샘', 사해 서쪽 오아시스.
- *yonim*(יוֹנִים) — 비둘기들(1:15). / *eres*(עֵרֶס) — 침상, *raanannah* — 푸르다·싱싱하다(1:16). / *arazim·berotim* — 백향목들·잣나무들(1:17).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제(1) + 갈망의 독창(2~4) + 자기 서술(5~6) + 찾는 물음과 답(7~8) + 신랑의 칭송(9~11) + 향의 교환(12~14) + 마주 칭송(15~17) — 일곱 단의 개막 구조.
- 1:2의 인칭 전환(3인칭→2인칭) — 갈망이 문법을 앞지르는 개막 장치.
- 발화 분포: 신부 열두 절 남짓 / 신랑 네댓 절 — 여성의 직접 발화가 책의 첫 문장부터 이어지는, 구약에서 이례적인 분포. 첫 발화가 응답이 아니라 개시.
- 15↔16절의 거울 문형: *hinnakh yafah* ↔ *hinnekha yafeh* — 같은 칭송을 성만 바꿔 반사.
- *kerem*의 이중 화법(1:6)과 권 전체 수미(1:6↔8:11-12). 호명 교환(*rayati*↔*dodi*)이 책의 대화 골격.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신왕국 사랑 노래(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등) — '나의 누이' 호칭, 정원·향·과일 은유, 1인칭 교창 — 장르의 이웃, 배경.
- 메소포타미아 혼인 노래 전통 — 신랑·신부의 교창과 칭송 양식 — 배경.
- 게달의 장막 — 검은 염소털 천막(1:5 비유의 재료). 엔게디 — 사막 절벽의 오아시스 향료 재배지(1:14의 공간).
- 나도(*nerd*) — 인도산 향료의 차용어 — 교역로의 흔적, 배경.
- LXX: *dodeykha*→*μαστοί*, *vav*→*καί*, *oteyah*→*περιβαλλομένη*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 미쉬나 야다임 3:5의 아키바 발언("아가는 거룩한 것들 중의 거룩한 것") — 수용사 배경, 본문 확정 아님.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1:6 ↔ 아 8:11-12 (나의 포도원 — 잃음의 고백에서 "내 앞에 있구나"로)
- 아 1:9·15 ↔ 아 2:10 등 (*rayati* — 신랑의 고정 호칭의 첫 등장과 반복)
- 아 1:13-14 ↔ 아 8:6-7 (품 가운데 향주머니 ↔ 마음에 인장 — 가까이 둬의 그림)
- 아 1:1 ↔ 왕상 4:32 (솔로몬의 노래 1,005편 — 표제 배경)
- 아 1장 ↔ 시 45편 (왕의 혼인 노래 — 정경 안의 이웃 장르)

- 아 1:6 ↔ 사 5:1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 포도원과 노래가 만나는 또 하나의 본문, 배경)
- 아 1:7 ↔ 창 24:65 · 창 38:14-15 (베일의 두 그림 — 리브가와 다말,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 노래들 중의 노래, 솔로몬의. 어두운 방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먼저 온다 —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향기를 냄새가 화면보다 먼저 번진다 — 네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발소리가 빨라진다 —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예루살렘의 거리, 훑어보는 시선들 앞에서 여인이 돌아선다 —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회상 — 노한 오라비들, 햇별의 포도원, 지키지 못한 나의 포도원. 정오의 들 — 양 떼가 그늘에 눕고 여인이 묻는다 — 네가 양 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답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까워진다 — 내 사랑아, 바로의 병거의 준마. 금 사슬에 은을 입혀 만들리라. 밤의 침상 곁 — 나도가 향을 뽑고,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 엔게디의 고벨화. 두 목소리가 마주 본다 —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 어여쁘고 화창하다. 카메라가 들리면 풀빛 침상,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 숲이 집이 되고, 화면이 푸른 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갈망이 먼저 말한다 — 검으나 아름다운 노래의 개막**"
- 초벌 부제: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문패 아래 신부의 갈망(1:2)이 권을 열고, 검으나 아름답다는 자기 서술(1:5-6)과 정오의 찾는 물음(1:7)을 지나, rayati와 dodi의 호명 교환과 향의 언어(나도·몰약·고벨화)가 백향목 들보의 푸른 신방(1:16-17)에 이르는 아가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일곱 단 개막 구조 + 인칭 전환 + 발화 분포 + 15↔16절 거울 문형 + 이집트 사랑시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아가를 알레고리(하나님과 백성·그리스도와 교회)로도 자연적 사랑 노래로도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보여주는 두 사람의 노래를 먼저 관찰함. 해석사의 갈래는 미해결 질문으로 보존.
- '검으나 아름다우니'(1:5)를 자존감·자기 긍정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vav의 번역 폭과 자기 서술의 구조 관찰로만 둬.
- '나의 포도원'(1:6)의 이중 화법을 어느 한쪽(발/자기 자신)으로 닫지 않고, 8:11-12와의 수미 관찰로만 이월.

- 하나님의 이름이 1장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학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인물 목록의 부재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1장은 "솔로몬의 아가(shir hashirim — 노래들 중의 노래)라"(1:1)는 최상급의 문패 아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구나"(1:2)라는 신부의 갈망으로 권을 연 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1:5-6)의 자기 서술과 지키지 못한 포도원의 고백, 정오의 찾는 물음(1:7)과 발자취의 답(1:8)을 지나, 신랑의 첫 발화(1:9-11)와 향의 교환(1:12-14)으로 rayati와 dodi의 호명이 처음 오가게 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1:15)의 마주 칭송 끝에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서까래의 푸른 신방(1:16-17)으로 닫히는 — 아가 전권의 개막이다.

한 문단: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문패가 보인다 — 노래들 중의 노래. 어두운 방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먼저 온다 —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구나. 향기를 냄새가 화면보다 먼저 번지고, 발소리가 빨라진다 —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런데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흘려보는 시선들이 그녀를 멈춰 세우고, 그녀는 돌아서서 말한다 —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노한 오라비들과 햇별의 포도원과 지키지 못한 나의 포도원이 회상으로 스친다. 정오의 들에서 그녀가 묻는다 — 네가 양 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답은 좌표가 아니라 흔적이다 —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남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까워진다 — 내 사랑아, 바로의 병거의 준마. 밤의 침상 곁에서 나도가 향을 뿜고,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와 엔게디의 고벨화가 겹친다. 두 목소리가 마주 본다 —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 어여쁘고 화창하다. 카메라가 들리면 풀빛 침상과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 — 숲이 집이 되고, 1장이 푸른 채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방→거리→포도원→정오의 들→침상→엔게디→숲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향이 가장 많은 소품 목록. 궁정과 들의 두 무더기.
2 첫 느낌·분위기	2~4절의 숨 가쁜 속도와 5절의 급전환. 코끝에 머무는 향. 서술문 없이 전부 누군가를 향한 2인칭의 문장들.
3 시작과 끝	노래의 문패(1절)에서 푸른 집(17절)으로. 만들어진 거처(휘장)에서 자라나는 거처(들보)로. '나'의 갈망에서 '우리'의 거처로. 1:6↔8:11-12 kerem 수미.
4 등장인물·사상	주된 화자는 신부(열두 절 남짓). 왕이자 목자로 불리는 신랑, 예루살렘 딸들, 노한 오라비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장. 중심 사상은 '검으나 아름다우니'의 동거.
5 장면 컷	표제/갈망/자기 서술/찾는 물음/신랑의 첫 발화/향의 교환/마주 칭송의 7컷. 15↔16절의 거울 문형.
6 의문·발견·정보	여성 발화가 책을 여는 이례적 분포. shem/shemen 언어유희. vav의 번역 갈림. 베일의 의문. 이집트 사랑시 배경.
7 동영상	향이 화면보다 먼저 오는 개막 → 흘려봄 앞의 선언 → 정오의 물음 → 마주 칭송 → 숲의 신방, 푸른 압전.
	"갈망이 먼저 말한다 — 검으나 아름다운 노래의 개막"

단계	핵심 발견
8 초별 제목·부제	
9 기도·내면	그을린 얼굴로 아름다움을 말하는 목소리 곁에 머문다. 갈망이 먼저 말해도 되는 책이 정경 안에 있다는 사실 곁에.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갈망의 문법, 먼저 말하는 목소리:** 이 책의 첫 발화는 명령도 연대기도 아니고 한 여인의 기원문이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인칭이 미끄러진다 — '그가' 입맞추시기를 바라다가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해 버리는. 갈망이 문법을 앞지르는 이 개막은 책 전체의 예고이기도 하다. 열일곱 절 가운데 열두 절 남짓이 신부의 발화이고, 구약에서 여성의 직접 발화가 책의 첫 문장부터 이만큼 길게 이어지는 본문은 달리 찾기 어렵다. 먼저 말하고, 먼저 찾고, 먼저 묻는 목소리 — 아가는 그 목소리에게 개막을 맡긴 책이다.
- 결 2 — 향의 언어, 말아지는 이름:** 1장에서 가장 자주 돌아오는 감각은 후각이다. 향기로운 기름과 쏜은 향기름(3절), 나도(12절), 몰약 향주머니(13절), 엔게디의 고벨화(14절). 그리고 3절의 언어유희 — 네 이름(shem)이 쏜은 향기름(shemen) 같으므로. 평판이라는 추상이 코로 말아지는 물질로 번역되고, 13절에서는 향이 '곁에 있음'의 감각이 된다 — 밤새 품 가운데 두는 몰약 향주머니처럼, 사랑하는 이를 향으로 기억하는 몸의 언어. 보이지 않는 것(이름·기억·곁)을 가장 휘발되기 쉬운 감각에 실어 나르는 시학이 1장의 결이다.
- 결 3 — kerem, 잃음의 고백으로 심긴 씨앗:**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1:6). 노한 오라비들 — 햇별 — 그을림 — 잃음의 다섯 고리가 한 절에 압축되고, '나의 포도원'은 밭과 자기 자신이 겹치는 이중 화법으로 열려 있다. 이 한 절이 권의 끝에서 되돌아온다 —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8:12). 잃었다고 고백한 것이 책 전체를 가로질러 자기 앞에 놓이는 구조. 1장은 그 긴 회복의 호(弧)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검은나 아름답다는 자기 서술은 그 호의 첫 좌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8:6-7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 1장의 갈망이 끝내 닿는 인장.
- 아 8:11-12 —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 1:6의 kerem이 되돌아오는 결말.
- 아 2:10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다음 장의 부름, rayati 호명의 연속.
- 왕상 4:32 — 솔로몬의 노래 1,005편 — 표제의 배경.
- 시 45편 — 왕의 혼인 노래 — 정경 안의 이웃 장르.
- 사 5:1 —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 포도원과 사랑 노래가 만나는 또 하나의 본문, 배경.
- 창 24:65 · 창 38:14-15 — 베일의 두 그림(리브가·다말) — 1:7의 의문 곁에 두는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에서 시작한다 — 책의 첫 문장이 갈망이라는 것. 정경 안에 이런 개막이 있다는 사실을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한다.
- **멈춤 1:** 1:5-6에서 멈춘다 — 검은나 아름다우니. 흘려보는 시선 앞에서 사실과 존엄을 한 문장에 같이 말하는 법. 그리고 남의 것을 지키느라 지키지 못한 나의 포도원이 내게도 있는지.
- **멈춤 2:** 1:7-8에서 멈춘다 — 위치를 묻는 사랑과, 좌표 대신 발자취를 주는 답. 찾는 일이 사랑의 일부라는 것.

- 끝: 1:15-17에서 멈춘다 — 그녀가 변호하듯 말했던 아름다움을 조건 없이 두 번 반복해 주는 목소리, 그리고 '나'가 '우리'가 된 푸른 거처. 칭송을 받아 본 적과 되돌려 본 적을 같이 헤아린다.

F·자족성 점검

- [x] 표제(1)·갈망(2~4)·자기 서술(5~6)·물음과 답(7~8)·신랑의 칭송(9~11)·향의 교환(12~14)·마주 칭송(15~17)의 일곱 단 완결
- [x] 1:6 kerem과 8:11-12의 권 전체 수미 확인
- [x] rayati(9·15)와 dodi(13·14·16)의 호명 교환 첫 성립
- [x] 향 네 겹(기름·나도·물약·고벨화)의 분포
- [x] '나'의 갈망(2절)에서 '우리'의 거처(16~17절)로의 인칭 이동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끌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름(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음(4~7장),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첫 국면의 개막 — 갈망이 먼저 말하고 호명의 교환이 처음 성립하는 입구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정경은 혼인의 언어를 곳곳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써 왔다 — 포도원 노래(사 5:1)와 혼인 시(시 45편)가 그 이웃들이다. 다만 아가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끝까지 간다. 그 침묵 위에서 1장이 보여 주는 것은 이것이다 — 흘려봄과 노여움과 그을림의 이력을 가진 한 사람이, 사랑받음의 언어 안에서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 잃어버린 포도원의 고백(1:6)이 권의 끝(8:12)에서 되찾음으로 돌아오는 긴 호가 여기서 출발하고, 끌 수 없는 사랑의 인장(8:6-7)은 그 호의 봉인이다. 1장은 그 인장에 이르는 갈망의 첫 좌표를 찍는 장이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갈망의 독백(1:2-4)에서 호명의 교환(1:9-16)으로 / 흘려봄 앞의 자기 변호(1:5-6)에서 조건 없는 칭송의 수신(1:15)으로 / 닫힌 방(1:4)에서 백향목 들보의 푸른 숲(1:16-17)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홀로 말하던 갈망이 응답받는 대화가 되는 운동이다. 2절의 기원은 듣는 이가 없는 듯 시작되지만, 9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처음 들어오고, 15절과 16절에서 같은 문형의 칭송이 거울처럼 마주 오간다. 그 사이에 상처의 이력(노한 오라비들, 그을린 살갓, 지키지 못한 포도원)이 노래 한가운데 보존된 채로 남는다 — 지워지지 않고, 그러나 가로막지도 못한 채. 2장에서 이 운동은 동행의 청으로 이어진다 —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 1장의 벡터는 전권을 '찾고 부르는 갈망에서 끌 수 없는 인장으로' 끌고 가는 긴 운동의 첫 구간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사랑 노래다 — 입맞춤과 포도주, 향기름과 칭송.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노래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5~6절의 자기 서술 안에 흘려보는 시선과 노한 형제들과 강제된 노동과 그을린 몸이 다 들어 있다. 사랑의 시가 상처의 이력서를 품은 채 진행된다는 것 — 아름다움의 고백이 무결한 조건 위에서가 아니라 손상된 이력 위에서 발화된다는 것이 1장의 깊이다. 둘째, 칭송의 방향이 있다. 그녀는 자기를 변호하듯 말했다 — 검으나 아름다우니. 신랑은 같은 아름다움을 변호 없이 두 번 반복한다 — 어여쁘고 어여쁘다(1:15). 자기 선언이 사랑하는 이의 눈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일어나는 일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

고 보여 주기만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정경 안에 있다. 두 사람의 갈망과 칭송과 찾음만으로 채워진 노래가 '노래들 중의 노래'라는 문패를 달고 거룩한 책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정경이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대한 말 없는 증언이다. 1장은 그 증언의 첫 페이지에서 멈춘다.

J·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흘겨보는 시선 앞에서 나를 어떻게 서술하는가 — 검음만 말하는가, 아름다움만 주장하는가, 아니면 둘을 한 문장에 같이 둘 수 있는가. 그리고 남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지키지 못한 나의 포도원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사랑을 정의해 주지 않는다. 다만 갈망이 먼저 말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상처의 이력 위에서 발화되는 아름다움의 고백을 들려주고, 변호하듯 말한 것을 조건 없이 되돌려주는 칭송을 들려준다. 그리고 좌표 대신 발자취를 주는 답(1:8)처럼, 찾는 이에게 지도가 아니라 흔적을 남겨 둔다. 잃어버린 포도원의 고백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권의 끝에서 "내 앞에 있구나"로 돌아온다는 것을 — 1장을 읽는 독자는 아직 모르지만, 그 첫 문장은 이미 심겨 있다. 자기의 잃음을 노래 안에서 발화할 수 있다는 것, 그 발화가 사랑받음의 언어 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푸른 신방에서 노래가 멈추지 않는다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들로 부르는 동행의 청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odi* — 나의 사랑하는 자.

미해결 질문

아가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표제(1:1)의 'asher li-Shlomoh' — 솔로몬이 지은 노래인가, 솔로몬에게 바친 노래인가, 솔로몬에 관한 노래인가?

- 전치사 *lamed*의 폭(저작·헌정·소속·관련)이 다 열려 있다. 왕상 4:32의 1,005편 기록과의 거리도 함께 이월. 보존.

Q2. 1:2의 인칭 전환 — '그가'에서 '네'로 미끄러지는 첫 문장은 누구를 향한 발화인가?

- 결의 딸들에게 말하다 마음속 그에게로 건너간 것인지, 처음부터 그를 향한 말인지, 갈망의 문법적 수행인지 — 문장 구조는 선명한데 발화의 방향은 닫히지 않는다. 보존.

Q3. 1:5의 *vav* — '검으나 아름다우니'인가 '검고 아름다우니'인가?

- 역접이면 변명의 결, 병렬이면 검음째로 아름답다는 선언의 결. LXX의 *καί*(그리고)와 번역사의 *but/and* 갈림이 곧 이 미해결의 기록이다. 보존.

Q4. 왕과 목자 — 4·12절의 '왕'과 7절의 '양 치는 자'는 한 인물인가 두 인물인가?

- 한 남자가 왕의 언어와 목자의 언어로 같이 불리는 것인지, 등장인물이 둘인지(이른바 2인설/3인설) — 1장만으로는 닫히지 않는다. 권 전체를 다 본 뒤에도 열려 있을 수 있는 물음으로 보존.

Q5. 1:7의 '얼굴을 가린 자' — 베일은 무엇의 표지인가?

- 떠도는 여인의 표지인지, 알아보지 못함의 표지인지, 애곡의 표지인지. 창 24:65(리브가)와 창 38:14-15(다말)의 베일이 서로 다른 그림을 겹쳐 놓는다. 본문은 풀지 않는다. 보존.

Q6. 이 사랑 노래를 어떻게 읽어 온 것인가 — 알레고리와 자연적 독법의 해석사?

- 유대 전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교회 전통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읽어 왔고, 본문 자체는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준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정경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 어느 독법으로도 서둘러 닫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2장

SNG-002 · 시가서 · 히브리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2:11)라는 봄의 선언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13)의 인클루지오 초대 곁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2:7)라는 첫 후렴의 절제가 나란히 놓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2:16)라는 상호 소속의 첫 선언이 맺히는 — 아가의 봄.

관찰된 사실

아가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들판(1~2절) → 수풀의 사과나무 그늘(3절) → 잔칫집 실내(4~6절) → 객석을 향한 막간(7절) → 산과 벽·창·창살(8~9절) → 봄의 들판(10~13절) → 바위 틈 낭떠러지(14절) → 포도원(15절) → 해 저무는 베테르 산(17절). 실내와 바깥의 교대.
- 8~9절의 구도: 신부는 집 안, 사랑하는 자는 벽 밖 —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사람. 창과 창살 틈이 시선의 통로.
- 소품(식물): 수선화·백합화·가시나무·사과나무·지면의 꽃·푸른 무화과·포도나무 꽃(semadar). 소품(먹을 것): 단 열매·건포도·사과. 소품(사물): 깃발(degel)·벽·창·창살.
- 소품(동물): 노루·들사슴(7절), 노루 같은 그 사람(9·17절), 새들과 비둘기(12·14절), 작은 여우들(15절), 양 떼(16절).
- 1장의 금·보석(1:10·11)이 2장에는 없음 — 2장의 사랑은 장신구가 아니라 계절과 들판의 것들로 치장됨.
- 2~3절의 같은 거꾸집: "X 가운데 Y 같다"의 비교 구문을 주고받음 — 칭찬이 일방향이 아닌 사다리.
- 10~14절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의 인용 액자 안 — 봄의 초대가 신부의 전달로 들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8절의 전환: qol dodi — 모습보다 목소리가 먼저 도착. hinneh(보라)가 연달아 두 번. 1~7절이 앞은 시라면 8절부터는 뛰는 시.
- 11~13절의 오감: 꽃(눈)·새와 비둘기 소리(귀)·포도나무 향기(코)·무화과(입)·비 그친 공기(피부) — 봄이 명제가 아니라 감각 목록으로 선언됨.
- 7절의 낮아진 목소리: 가장 뜨거운 장면(6절) 직후의 가장 절제된 당부 — 즉흥이 아니라 권에 세 번 놓이는 기동 문장.
- 위축 없는 겸손: 자기를 들꽃이라 부르는 1절과 명령형으로 달는 17절 — 사랑받는 사람의 당당함이 바닷 온도.
- 정지와 운동의 교대: 앓음(3) — 인도됨(4) — 안김(6) — 달려옴(8) — 섬(9) — 함께 가자(10·13) — 돌아오라(17).

- cholat ahavah(2:5) — 사랑이 질병의 어휘로 표현되는 어법. 5:8에 재등장. 이집트 사랑 노래의 병행 모티프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 신부의 자기 묘사로 엮.
-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 신부의 부름으로 닫음.
- 시작과 끝이 모두 신부의 발화 — 장 전체가 한 여인의 목소리에 감싸이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의 말(2절, 10~14절)이 들림.
- 9절의 노루·어린 사슴이 17절에 그대로 재등장 — 다가올 때의 모습과 청해지는 모습이 같은 동물 액자.
- 선언("~로다")으로 열고 부름("~같을지라")으로 닫힘. 마지막 절에서 처음으로 저녁이 의식됨 — 노래에 시계가 생김.
- 16절의 소속 선언 직후에 17절의 거리의 청 — 확신과 부름의 간격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부(주 화자 — 1절 자기 묘사부터 17절 부름까지), 사랑하는 자(dodi — 2절 직접 발화 + 10~14절 인용 속 발화), 예루살렘 딸들(7절 수신자), 화자 미상의 "우리"(15절). 하나님의 이름은 이 장에 나오지 않음 — 침묵도 관찰.
- 중심 사상 1 — 사랑의 때(2:7):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 사랑 자체에 시간의 주권을 주는 조건절.
- 중심 사상 2 — 상호 소속(2:16): dodi li va'ani lo. 소유가 아니라 양방향의 속함. 6:3·7:10에서 어순을 바꾸며 변주.
- 3절의 그늘과 열매: 사랑받는 경험이 추상이 아니라 서늘함(섭)과 단맛(맛)으로 진술됨.
- 9절의 벽과 창살: 가장 가까이 와서도 들어오지 않고 초대함 — 7절의 절제와 같은 결이 건축 소품에 배임.
- 10~13절의 인클루지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10·13절)가 봄의 증거 일곱 가지(겨울의 끝·비의 그침·꽃·새의 때·비둘기 소리·무화과·포도나무 향기)를 감쌌.
- 2:7 맹세 어구(노루들과 들사슴들을 두고)의 소리가 신명 호칭들(tsevaot·shaddai)과 닮았다는 관찰 — 단정 없이 형태로만 보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꽃의 문답 — 자기 묘사 → 받아 올림(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 되돌림(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 컷 2 (4~7절): 잔칫집 — 깃발, 건포도와 사과, 사랑의 병, 왼팔·오른팔의 품, 첫 후렴.
- 컷 3 (8~9절): 다가옴 — 목소리가 먼저, 산을 넘는 노루 같은 모습, 창살 틈의 눈.
- 컷 4 (10~13절): 봄의 초대 — 인클루지오 안의 일곱 증거.
- 컷 5 (14~15절): 바위 틈의 비둘기에게 얼굴·소리를 청함 +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외침.
- 컷 6 (16~17절): 상호 소속 선언과 백합화 가운데의 양 떼, 날 저물기 전의 부름.
- 컷 연결선: 백합화(컷1→컷6), 노루·어린 사슴(컷3→컷6), 포도나무 꽃(컷4→컷5) — 앞의 그림을 뒤가 받아 닫는 고리 구성.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vatselet*(חַבַּטְצֵלֶת) — 수선화. 구약 2회(아 2:1, 사 35:1)의 희귀어. 크로커스·수선화·장미로 번역 폭.
- *shoshannah*(שֹׁשַׁנָּה) — 백합화. 식물학적 동정(백합·연꽃·아네모네)은 열려 있음. 아가의 애용어.
- *tappuach*(תַּפְּרוּחַ) — 사과나무. *naphach*(נָפַח) (향을 풍기다) 어근과 잇는 설명 있음. 본문이 요구하는 그림은 '그들과 단 열매를 같이 주는 나무'. / *tsel*(צֵל) — 그늘. 시편의 보호 어휘가 사랑의 어휘로.
- *degel*(דֶּגֶל) — 깃발·군기. 민수기 진영 용어가 사랑 위에 놓임. / *ashishot*(אֲשִׁישׁוֹת) — 건포도 과자. 삼하 6:19, 호 3:1 참조.
- *cholat ahavah*(חֹלֶת אֲהָבָה) — 사랑의 병. 5:8 재등장. / *qol dodi*(קוֹל דּוֹדִי) —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명사문 — '들린다!'는 감탄으로 읽는 번역 다수.
- *tsvi*(צִבִּי) — 노루·가젤. *ofer ha'ayyalim*(עֹפֶר הָאֵיילִים) — 어린 사슴. 9절과 17절의 액자.
- *setav*(סֵטָב) — 겨울·우기. 구약 1회어. / *paggim*(פַּגִּים) — 푸른 무화과. 역시 1회어. / *semadar*(סֵמָדָר) — 포도나무 꽃. 아가에만 3회. 1회어들이 봄 단락(11~13절)에 몰림.
- *yonah*(יוֹנָה) — 비둘기. *chagvei hassela*(חַגְוֵי הַסֵּלָע) — 바위 틈. 램 48:28의 같은 그림 참조.
- *shualim qetanim*(שְׁעִטִּים קֶטָנִים) — 작은 여우들. 복수 명령형 "잡으라"와 함께. / *dodi li va'ani lo*(דּוֹדִי לִי וְאֲנִי לוֹ) — 네 단어의 상호 소속 공식.
- *har beter*(הַר בֵּטֶר) — 베테르 산. *beter*는 창 15:10의 '쪼갠 조각'과 같은 어근 — '갈라짐의 산들' 번역도 있음. 형태 관찰만. / *qumi lakh*(קוּמִי לַחֲךָ) — 일어나라. 창 12:1 *lekh-lekha*와 같은 어법 꼴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꽃의 문답(1~3) + 잔칫집과 첫 후렴(4~7) + 다가옴(8~9) + 봄 초대 인클루지오(10~13) + 비둘기·여우(14~15) + 소속과 저녁(16~17)의 여섯 단 구성.
- 후렴(2:7)은 3:5·8:4에 재등장 — 세 번 모두 사랑의 큰 장면 직후. 권 전체의 단락 표지이자 일관된 절제의 목소리.
- 2:16의 소속 공식은 6:3(어순 역전)·7:10(사모의 방향 추가)으로 변주되는 사다리의 첫 칸.
- 2:17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4:6에서 사랑하는 자의 입으로 되울리고, 노루 그림은 8:14(권의 마지막 절)에 다시 놓임.
- 15절만 장르가 다름 — 밀어가 아니라 외침. 복수 명령형. 화자 미상.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신왕국 사랑 노래(파피루스 체스터 비티 I 등) — '나의 누이' 호칭, 정원·과수·꽃의 무대, 사랑의 병 모티프 공유 — 배경.
- 연인을 노루·사슴에 견주는 동물 비유 — 고대 사랑시의 공용어 — 배경.
- 메소포타미아의 봄 노래 전통 — 우기의 끝과 초목의 움튼을 노래하는 절기시 — 2:11-13의 장르 배경.
- 포도원의 여우 — 고대 지중해 농경의 속담적 해수 그림(후대 그리스 목가 병행) — 배경.
- LXX: *chavatselet* → ἄνθος τοῦ πεδίου(들의 꽃), 2:7 맹세 어구 → 들의 힘들과 세력들(추상화), *har beter* → ὄρη κοιλωμάτων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 미쉬나 야다임 3:5 — 아가 정경성 논의 속 랍비 아키바의 전승 발언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2:7 ↔ 아 3:5 · 8:4 (깨우지 말라 — 권을 가로지르는 후렴)
- 아 2:16 ↔ 아 6:3 · 7:10 (상호 소속 공식의 세 변주 — 어순 역전과 확장)
- 아 2:17 ↔ 아 4: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 같은 어구의 되울림)
- 아 2:17 ↔ 아 8:14 (노루와 어린 사슴 — 2장의 끝 절과 권의 끝 절)
- 아 2:1 ↔ 사 35:1-2 (chavatsset — 사막이 피어나는 본문과의 어휘 공유)
- 아 2:3 ↔ 호 14:5-7 (백합화·그늘 아래 거주·포도나무 — 어휘의 절, 배경)
- 아 2:14 ↔ 렘 48:28 (바위 틈의 비둘기 — 같은 그림)
- 아 2:10·13 ↔ 창 12:1 (qumi lakh·lekhi lakh ↔ lekh-lekha — 어법 끝의 평행,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들판의 들꽃 하나에서 시작한다 —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이다. 응답이 온다 —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수풀의 사과나무 그늘, 입가의 단맛. 잔칫집의 깃발 아래 건포도와 사과, 사랑의 병, 왼팔과 오른팔의 품. 낮아진 목소리 — 깨우지 말지니라. 정적을 뚫고 소리가 온다 —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구나. 산을 노루처럼 달려 넘어,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는 눈. 초대 —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고, 꽃이 지면을 덮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가 익고,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토한다. 한 번 더 —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의 비둘기에게 —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외침이 끼어든다 —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백합화 사이로 양떼가 지나가고, 선언이 놓인다 —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해가 기울고 그림자가 길어진다. 마지막 부름 —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 같을지라. 능선 위의 실루엣,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일어나서 함께 가자 — 깨우지 말라는 당부 결의 봄 초대"
- 초벌 부제: "들꽃의 자기 묘사를 받아 올리는 문답(2:1-3)과 잔칫집의 깃발 아래, 첫 후렴 '깨우지 말지니라'(2:7)의 절제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13)의 봄 초대가 동거하고, 작은 여우의 외침을 지나 상호 소속의 첫 선언(2:16)으로 맺히는 아가의 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1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여섯 단 구성 + 인클루지오 + 후렴의 권 단락 표지 + 이집트 사랑 노래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신랑·신부를 특정 신학적 인물로 단정(알레고리)하지 않고, 본문이 보여 주는 사랑 노래의 결 — 문답·초대·절제·소속 — 의 관찰로만 둬.
- 2:7(깨우지 말라)을 금욕이나 교제 규범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권에 세 번 놓이는 후렴의 구조 관찰과 '때'의 조건절 관찰로 보존.
- 2:15의 작은 여우를 특정 죄 목록이나 적용 항목으로 봉합하지 않고, 화자 미상·지시 대상 미상의 외침으로 이월.
- 2:16의 소속 공식이 언약 공식과 꼴이 닮았다는 형태 관찰을 동일시 주장으로 확장하지 않음 — 닮음과 단정의 경계 유지.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2장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chavatsselet)요 골짜기의 백합화(shoshannah)로다"(2:1)라는 들꽃의 자기 묘사를 사랑하는 자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2:2)로 받아 올리는 문답으로 열려, 잔칫집의 깃발(degel)과 사랑의 병(2:4-5)과 첫 후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2:7)를 지나, 산을 달려 넘은 목소리의 봄 초대 —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2:10-13) — 와 작은 여우의 외침(2:15)을 거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2:16)라는 상호 소속의 첫 선언과 저녁의 부름(2:17)으로 닫히는, 아가의 봄이다.

한 문단: 들판의 꽃 하나에서 시작한다. 자기를 들꽃이라 부르는 목소리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응답이 돌아온다. 수풀의 사과나무 그늘에 앉은 서늘함과 입안의 단맛. 잔칫집 천장 아래 깃발이 펄럭이고, 건포도와 사과 곁에서 사랑의 병을 앓는 이가 왼팔에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에 안긴다. 그 가장 뜨거운 순간에 목소리가 낮아진다 — 깨우지 말지니라. 정적을 뚫고 멀리서 소리가 온다 —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산을 노루처럼 달려 넘어,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는 눈. 그리고 초대 —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 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고 꽃이 지면을 덮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가 익고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토한다. 같은 초대가 한 번 더 올리고, 바위 틈의 비둘기에게 얼굴과 소리를 청하는 음성 사이로 외침이 끼어든다 —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백합화 사이로 양 떼가 지나가고, 네 단어의 선언이 놓인다 —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나는 그에게. 해가 기울고, 마지막 부름이 능선을 넘는다 —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의 노루 같을지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들판—그늘—잔칫집—벽과 창살—봄 들판—바위 틈—포도원—저녁 산의 이동.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구도. 장신구 없이 계절로 치장된 사랑.
2 첫 느낌·분위기	모습보다 먼저 도착하는 목소리(qol dodi). 오감으로 확인되는 봄(2:11-13). 가장 뜨거운 장면 곁의 가장 절제된 당부(2:7). 위축 없는 겸손.
3 시작과 끝	자기 선언(1절)으로 열고 부름(17절)으로 닫힘 — 둘 다 신부의 발화. 노루·어린 사슴의 액자(9↔17절). 마지막 절에서 처음 의식되는 저녁.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신부(주 화자), 인용 액자 속의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 딸들, 화자 미상의 "우리". 중심 사상은 사랑의 때(2:7)와 상호 소속(2:16).
5 장면 컷	꽃의 문답/잔칫집/다가움/봄 초대/비둘기·여우/소속과 저녁의 6컷. 백합화·노루·포도나무 꽃이 컷들을 잇는 고리.
6 의문·발견·정보	봄 단락에 몰린 1회어들(setav·paggim). 절정 뒤마다 돌아오는 후렴. 꽃 필 때의 작은 여우. 방향이 열린 "돌아와서". 이집트 사랑 노래 배경.
7 동영상	들꽃의 문답 → 깃발과 품 → 창살 틈의 눈 → 봄의 초대 → 여우의 외침 → 양 떼와 저녁 산, 페이드아웃.
8 초별 제목·부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 깨우지 말라는 당부 곁의 봄 초대"
9 기도·내면	먼저 도착하는 목소리와 부수지 않는 기다림을 본다. 들림 곁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받아 올리는 어법:** 1~3절의 문답은 칭찬의 사다리다. 자기를 들꽃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상대가 그대로 받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끌어올리고, 들은 쪽은 같은 거꾸집("X 가운데 Y")으로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를 되돌려 준다. 자기 묘사를 정정하지 않고 그 단어 그대로를 더 높이 놓는 어법 — 2장의 사랑은 상대의 언어를 고치지 않고 받아서 빛나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과나무는 그늘(쉼)과 단 열매(맛)를 같이 주는 나무로 구체화된다.
- 결 2 — 봄의 감각 목록과 인클루지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13)의 괄호 안에 겨울의 끝이 일곱 가지 증거로 진술된다 — 지나간 겨울(setav), 그친 비, 지면의 꽃, 새의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 익는 무화과(paggim),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 꽃(semadar). 명제 하나("봄이 왔다")로 끝낼 수 있는 말을 본문은 오감의 목록으로 풀고, 그 단락에만 구약 1회어들이 몰려 있다. 초대가 설득이 아니라 보여 주기의 형식을 입는 것 — 함께 가자는 말이 풍경 전체를 증거로 세운다.
- 결 3 — 절제와 소속, 봄을 받치는 두 기둥:** 같은 장 안에 "깨우지 말라"(2:7)와 "일어나서 함께 가자"(2:10·13)가 동거한다. 후렴은 권에 세 번(3:5, 8:4) 돌아오는 기둥 문장이고, 초대는 가장 사랑받는 단락이다. 강요하지 않는 기다림(창살 틈에서 멈춘 발걸음, 9절)과 간절한 부름이 한 사랑의 양면으로 놓이고, 그 사이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2:16)라는 네 단어의 공식이 첫 매듭을 짓는다 — 6:3과 7:10에서 어순을 바꾸며 다시 놓일 사다리의 첫 칸.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3:5 · 8:4 — 깨우지 말라 — 절정 뒤마다 돌아오는 권의 후렴.
- 아 6:3 · 7:10 — 상호 소속 공식의 변주 — 어순 역전과 사모의 방향.
- 아 4:6 —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 2:17의 어구가 사랑하는 자의 입으로 되울림.
- 아 8:14 — 향기로운 산 위의 노루와 어린 사슴 — 권의 마지막 절이 2:17을 받아 닫음.
- 사 35:1-2 — 사막이 피어나는 chavatselet — 같은 희귀어의 다른 무대.
- 호 14:5-7 — 백합화같이 피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함 — 백합·그늘·포도나무 어휘의 결.
- 렘 48:28 — 바위 틈에 깃들이는 비둘기 — 2:14와 같은 그림.
- 창 12:1 — lekh-lekha — 2:10·13의 어법 꼴 평행,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1에서 시작한다 — 자기를 들꽃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이 정정되는 대신 받아 올려지는 것(2:2)을 본다.
- **멈춤 1:** 2:7에서 멈춘다 — 깨우지 말라. 사랑의 때에 손대지 말라는 당부가 들뜬 노래 한가운데 놓인 이유를 묻지 않고 그 무게만 단다.
- **멈춤 2:** 2:9에서 멈춘다 — 창살 틈의 눈. 가장 가까이 와서도 부수지 않고 초대하는 발걸음의 멈춤을 본다.
- **끝:** 2:16과 2:17 사이에서 멈춘다 — 속하였다는 확신과 돌아오라는 부름의 간격. 소속과 거리가 같이 있는 사랑의 모양을 쥐고 저녁을 맞는다.

F · 자족성 점검

- [x] 꽃의 문답(1~3)·잔칫집(4~7)·다가움(8~9)·봄 초대(10~13)·비둘기와 여우(14~15)·소속과 저녁(16~17)의 여섯 단 완결
- [x] "일어나서 함께 가자"(10·13절)의 인클루지오
- [x] 노루·어린 사슴의 액자(9↔17절)와 백합화의 고리(1·2↔16절)
- [x] 후렴(2:7)의 권 차원 재등장(3:5, 8:4) 확인
- [x] 소속 공식(2:16)의 변주 노선(6:3, 7:10)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름(1~3장), 칭송과 갈망·애향과 다시 찾음(4~7장),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2장은 첫 국면의 절정 — 겨울이 지난 땅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부름이 가장 높이 울리는 대목이다. 1장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는 갈망으로 열었다면, 2장은 그 갈망에 응답이 도착하는 장이다 — 목소리가 먼저 오고, 모습이 창살 틈에 어리고, 초대가 건네진다. 그런데 이 절정에 두 가지가 같이 놓인다. 사랑의 때를 강요하지 말라는 후렴(2:7)이 권 전체의 절제 윤리를 입구에서 세우고, 상호 소속의 공식(2:16)이 8:6의 인장 —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 을 멀리서 예비하는 첫 매듭으로 놓인다. 정경이 이 사랑 노래를 지혜 문학의 서가에 보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찰의 출발점이다 —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며, 일방으로 소유하지 않고 서로에게 속하는 사랑의 결이, 여기서는 봄의 들판 위에 시로 기록되어 있다. 그 결이 끝내 무엇의 그림자인지는 본문이 단정하지 않으므로 관찰도 단정하지 않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들에 앓음(2:3)에서 일어나 함께 감(2:10·13)으로 / 벽 이쪽과 저쪽(2:9)에서 함께 걷는 들판으로 / 갈망(1장)에서 응답과 초대로, 그리고 소속의 첫 선언(2:16)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머무는 사랑에서 동행하는 사랑으로'의 운동이다. 받아 올리는 문답이 두 목소리를 잇고, 산을 넘어온 발걸음이 거리를 줄이고, 봄의 증거 일곱 가지가 초대의 이유를 세우고, 네 단어의 공식이 소속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 운동은 직선이 아니다 — 후렴(2:7)이 속도를 늦추고, 창살(2:9)이 마지막 한 걸음을 멈추게 하고, 저녁(2:17)이 하루를 닫는다. 다가가되 강요하지 않는 사랑의 보폭이 이 장의 벡터다. 그리

고 17절의 저물이 3장의 밤을 연다 — 침상에서 찾고, 성안을 돌며 찾고, 끝내 만나는 밤의 운동이 다음 장에서 시작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봄의 연가다 — 꽃과 새와 향기, 초대와 포옹.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이 사랑은 상대의 말을 고치지 않는다. 자기를 들꽃이라 부른 목소리에게 "너는 들꽃이 아니라"고 정정하는 대신, 그 단어를 받아 가시나무 가운데로 옮겨 더 빛나게 놓는다(2:2). 둘째, 이 사랑은 힘이 있는데 쓰지 않는다. 산을 달려 넘는 힘(2:8)을 가진 발걸음이 벽 앞에서 멈추고, 문 대신 창살 틈으로 바라보며, 부수는 대신 초대한다(2:9-10). 깨우지 말라는 후렴(2:7)은 이 자제의 언어화다 — 사랑의 때는 강요로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것. 셋째, 속함이 양방향이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2:16) — 한쪽이 다른 쪽을 소유하는 문장이 아니라 네 단어가 거울처럼 마주 보는 문장이다. 받아 올림, 힘의 자제, 상호 소속 — 봄의 들뜸 아래에서 이 세 겹이 사랑의 바닥을 이루고 있고,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다만 보여 준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결의 목소리가 자기를 낮춰 부를 때 그 말을 받아 올린 적이 있는가. 내게 산을 넘는 힘이 있을 때, 벽 앞에서 멈추고 창살 너머로 초대를 건넌 적이 있는가.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한 연한 때에, 그것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나는 알아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사랑의 규범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받아 올리는 문답을 들려주고, 창살 틈에서 멈춘 발걸음을 보여 주고, 겨울이 지난 들판을 오감으로 펼쳐 놓고, 깨우지 말라는 낮은 목소리와 일어나라는 부름을 나란히 둔다. 읽는 사람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자기 계절을 가늠하게 된다 — 아직 겨울인지, 비가 그쳤는지, 꽃이 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16절의 네 단어가 남는다 — 속함이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는 사랑의 모양. 그 모양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봄의 들판을 예전처럼 지나치지 못한다. 그것이 이 장이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해가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자 찾는 밤이 온다 —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3:1), 잃음과 다시 찾음의 첫 밤과 혼인 행렬이 다음 장에서 펼쳐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odi li va'ani lo* —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나는 그에게.

미해결 질문

아가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chavatsset*(2:1) — 이 들꽃은 어떤 꽃이며, 자기를 들꽃이라 부르는 이 묘사는 겸손인가 자궁인가?

- 구약 2회의 희귀어(아 2:1, 사 35:1). 수선화·크로커스·장미로 갈리는 번역 폭. 사론 평야에 흔히 피는 꽃이라면 '나는 평범한 들꽃'이라는 겸손으로, 사막을 피우는 사 35:1의 꽃이라면 다른 올림으로 들린다. 2절이 그 자기 묘사를 받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끌어올린다는 사실만 분명하다. 보존.

Q2. 2:7의 맹세 어구 — 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하는가?

- 구약의 맹세 문형에 동물이 놓이는 일은 드물다. 들의 생물이 사랑의 야생성·연약함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인지, 신명 호칭들(tsevaot·shaddai)과의 음성 유사가 의도된 것인지 — LXX가 '들의 힘들과 세력들'로 추상화한 것도 이 물음의 오래된 흔적이다. 보존.

Q3. 2:15 — 작은 여우의 외침은 누구의 목소리이며, 여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복수 명령형 "잡으라"만 분명하고 화자(사랑하는 자·신부·딸들·합창)는 비어 있다. 꽃 핀 포도원을 허는 작은 것들이라는 그림만 놓였고 지시 대상은 열려 있다. 둘 다 비워 둔 채로 보존.

Q4. 2:16 — 상호 소속 공식의 어순은 왜 6:3에서 뒤집히고 7:10에서 다시 변하는가?

- 2:16은 '그가 내게 — 내가 그에게', 6:3은 '내가 그에게 — 그가 내게', 7:10은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의 사모가 내게로'. 세 번의 변주가 사랑의 성숙 단계를 그리는 사다리인지, 시적 변용인지 — 권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단지 않는다. 보존.

Q5. 2:17 — "돌아와서(sov)"는 오라는 청인가 물러가 있으라는 청인가, 베데르 산은 어디인가?

- 같은 동사가 양방향으로 읽혀 번역들이 갈린다. 베데르가 지명인지 '갈라짐의 산들'이라는 보통명사인지도 미정 — beter(창 15:10의 쪼갠 조각)와 같은 어근이라는 형태만 남는다. 8:14가 거의 같은 문장으로 권을 닫는다는 사실과 함께 이월. 보존.

Q6. 초대(일어나서 함께 가자)와 후렴(깨우지 말라)은 한 장 안에서 어떻게 같이 사는가?

- 간절한 부름과 때를 기다리는 절제가 같은 사랑의 목소리로 나란히 놓인다. '원하기 전에는'이라는 조건절이 둘을 잇는 경첩인지 — 본문은 화해를 서두르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3장

SNG-003 · 시가서 · 히브리어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sheahavah nafshi*)"를 네 번 호명하며 찾던(*biqqesh*) 여인이 순찰자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를 만나 붙잡고 놓지 않는 첫 사이클(3:1-4) 위로, 몰약과 유향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의 가마(*appiryon*)와 혼인날 어머니가 씌운 왕관(3:11)이 겹쳐지는 — 사적인 잃음의 밤이 공적인 기쁨의 행렬로 건너가는 장.

관찰된 사실

아가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두 무대: 밤의 실내·골목(1~5절 — 침상, 거리, 큰 길, 어머니 집) 對 낮의 행렬 길(6~11절 — 거친 들, 성문 밖, 시온 딸들의 관람 위치). 5절 후렴이 경첩.
- 앞 무대의 소품은 단출함(침상 하나, 거리, 순찰자들) — 어둠 속에서 만져지는 것은 4절의 손("붙잡고 ... 놓지 아니하였노라").
- 뒤 무대의 소품은 풍성함: 몰약·유향·상인의 향품(6절), 칼 60자루(8절), 레바논 나무·은 기둥·금 바닥·자색 깔개(9~10절), 왕관(11절).
- 6절은 후각이 시각을 앞서는 절 — 행렬이 보이기 전에 향내가 먼저 도착.
- 1~4절은 동사가 끄는 단락(찾다·일어나다·돌다·묻다·만나다·붙잡다), 6~11절은 명사가 끄는 단락(기둥·향품·가마·용사·칼·은·금·자색·왕관).
- 침상이 두 번: 잠들지 못하는 여인의 mishkav(1절)와 호위 60명이 둘러선 솔로몬의 mittah(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 — 같은 동사의 긍정·부정 충돌("찾았노라 ... 찾아내지 못하였노라")이 만드는 조임.
-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 이름이 아닌 긴 호명 네 번. 호명의 길이가 부재의 길이를 담음.
- 2절의 결심("찾으리라 하고")은 내적 독백 — 밤의 수색이 안은 위험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일어나게 함.
- 3절 — 순찰자들에게 질문만 있고 응답 기록이 없음. 직후의 "지나치자마자"가 급반전의 편집점.
- 1~4절은 완료형 회고의 차분한 문체, 6절부터는 현재의 감탄과 명령("누구인가", "보라") — 회고에서 목격으로 화법 전환.
- 8절 — 향내 나는 혼인 행렬 한가운데의 칼 60자루와 '밤의 두려움'. 기쁨과 경계의 동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쁨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 밤→낮, 잃음→기쁨, 혼자→공동체, 부정문("못하였노라")→명령문("나와서 보라")의 세 겹 역전.

- 어머니 inclusio: 4절 어머니 집·잉태한 이의 방 ↔ 11절 어머니가 씌운 왕관 — 두 어머니가 장의 양끝을 받침.
- '마음'의 양끝: 1절 갈망하는 마음(sheahavah nafshi) ↔ 11절 기뻐하는 마음(simchat libbo).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인(1~5절 화자·유일한 행위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4회 호명, 발화 없음), 순찰자들(질문받되 대답 기록 없음), 예루살렘 딸들(5절 청자·10절 사랑을 엮은 이들), 솔로몬(7·9·11절 3인칭), 용사 60명, 시온의 딸들(11절 관객), 어머니 둘(여인의 어머니 4절, 솔로몬의 어머니 11절).
- 중심 사상 1: 잃음 — 찾아 나섬 — 묻기 — 만남 — 붙잡음의 사이클(1~4절). 사랑은 잃을 수 있고, 잃으면 일어나 찾고, 찾으면 더 단단히 쥔다.
- 중심 사상 2: 후렴(5절) — 갈망의 강도 곁에 놓인 '깨우지 말라'의 절제. 두 사상이 한 단락에 나란함.
- 6~11절의 시선 구조: 원경(연기 기둥, 6절) → 근경(가마·호위·칼, 7~8절) → 내부(은·금·자색·사랑, 9~10절) → 초대("나와서 보라", 11절).
- 10절 — 재료 명세(은·금·자색)의 마지막 항목이 감정(사랑): 기물 묘사의 결이 끝 단어에서 바뀜.
- 밤의 이중 노출: 1절의 밤은 잃음의 배경, 8절의 밤은 경계의 대상(pachad ballelot).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밤의 침상 —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함.
- 컷 2 (2~3절): 성 안 수색 — 거리와 큰 길, 순찰자들에게 "너희가 보았느냐."
- 컷 3 (4절): 만남과 붙잡음 — "지나치자마자 ... 붙잡고", 어머니 집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 컷 4 (5절): 후렴 —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 컷 5 (6~10절): 행렬의 접근 — 연기 기둥과 향내 → 가마와 60 용사 → appiryon 내부의 은·금·자색·사랑.
- 컷 6 (11절): 혼인의 절정 — 시온의 딸들, 어머니가 씌운 왕관, 마음의 기쁨.
- 컷 1~3 내부의 동사 사다리: biqqesh 4회 → matsa 3회 → achaz 1회 → lo arpennu 1회. 빈도가 줄수록 손이 목표에 근접 — 수색의 문법이 포옹의 문법으로 좁혀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iqqesh*(בִּקֶּשׁ) — 찾다·구하다, 피엘 강조 어간. 1~2절에 4회. 5:6에서 재등장(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밤).
- *sheahavah nafshi*(שִׁיחָוָה נַפְשִׁי) — '내 nefesh가 사랑하는 자'. 1·2·3·4절 각 1회. nefesh는 목·숨·존재 전체의 폭.
- *ballelot*(בְּלִילוֹת) — 복수형 '밤들에'. 하룻밤인지 밤마다인지 형태가 열어 둠.
- *shomerim*(שׁוֹמְרִים) — 순찰자들. shamar(지키다) 분사. 5:7에서 같은 단어가 다시 등장.
- *achaz*(אָחַז) — 붙잡다 · *lo arpennu* — rafah(놓다)의 부정, '놓지 아니하리라'. / *horati*(הִרָתִי) — 나를 잉태한 이.
- *mi zot*(מִי זוֹת) — '이는 누구인가', 여성 단수. 3:6 · 6:10 · 8:5 — 권의 세 등장 질문.
- *timrot ashan*(תִּמְרוֹת אֲשָׁן) — 연기 기둥들. 율 2:30과 동일 표현. / *mor·levonah·avqat rokheh* — 몰약·유향·상인의 가루.
- *mittah*(מִטָּה, 7절) — 침대·가마 · *appiryon*(אֲפִירְיוֹן, 9절) — 가마, 구약 단 1회 hapax. LXX φορεῖον — 차용 방향 논의는 배경.

- *refidah*(רִפְדָּה) — 바닥·받침(hapax) · *argaman* — 자색 · *ratsuf ahavah* — 사랑으로 깔린·엮인(ratsaf: 깔다·포장하다).
- *atarah*(אַתָּרָה) — 관·화관(공식 면류관 *nezer·keter*와 다른 단어) · *yom chatunnato* — 그의 혼인날(chatunnah는 hapax) · *simchat libbo* — 마음의 기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밤의 찾음(1~4) + 후렴(5) + 행렬 시(6~11)의 세 단 구성. 후렴이 사적 단락과 공적 단락 사이의 경첩.
- 반복의 산수: '찾다' 4회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4회가 같은 단락에서 겹침. 네 번째 호명만 "만나서"에 붙음 — 세 번의 부재와 한 번의 현존.
- "지나치자마자"(kimat sheavarti) — 만남의 시간 부사. 공적 제도(순찰자들)의 응답 없음 직후, 사람의 도움 바깥에서 오는 만남. 본문은 이유 없이 시간만 기록.
- 후렴 3회 구조(2:7 → 3:5 → 8:4)와 mi zot 3회 구조(3:6 → 6:10 → 8:5) — 두 반복선이 권 전체를 가로지르고, 3장에 둘 다 지나감.
- 3:1-4와 5:2-8 — 같은 동사(biqqesh), 같은 인물(shomerim), 같은 밤 무대에 정반대 결말. 마주 보는 두 패널의 첫째.
- hapax 군집: appiryon·refidah·chatunnah — 행렬 단락(9~11절)에 희귀어가 몰림.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사랑시(체스터 비티 파피루스 등) — 연인을 그리며 거리로 나서는 모티프, 1~4절의 장르 배경.
- 근동 혼인 행렬 관습 — 가마·무장 호위·향료가 함께 가는 공적 의식, 6~11절의 배경.
- 몰약(아라비아 남부·아프리카 뿔)·유향(남아라비아 사바)의 교역로 —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전제하는 국제 무역, 배경.
- 60 용사 — 다윗의 30 용사(삼하 23장) 편제의 배수라는 관찰. 본문이 연결을 명시하지 않음 — 배경.
- LXX: appiryon → φορεῖον, mi zot → τίς αὐτή, ratsuf ahavah → λιθόστρωτον ... ἀγάπην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3:5 ↔ 아 2:7 · 8:4 (후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 세 번 중 둘째)
- 아 3:1-4 ↔ 아 5:2-8 (첫째 밤의 찾음과 둘째 밤의 잃음 — 마주 보는 패널)
- 아 3:6 ↔ 아 6:10 · 8:5 (mi zot — 권의 세 '누구인가')
- 아 3:6 ↔ 아 8:5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 같은 어구의 수미)
- 아 3:6 ↔ 욥 2:30 (timrot ashan — 동일 표현) · 출 13:21-22 (광야의 기둥 — 어휘 올림, 배경)
- 아 3:7-11 ↔ 시 45편 (왕의 혼인 노래) · 삼하 23:8-39 (gibborim 편제) · 왕상 10:18-20 (왕실 세공) —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어둠 속 침상, 눈을 뜬 여인 — 찾았노라,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불이 걷히고 맨발이 골목에 닿는다. 거리와 큰 길을 도는 그림자. 모퉁이의 순찰자들 —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대답 없는 화면. 그들을 막 지나친 골목 끝에 그가 서 있다. 손이 옷자락을 붙잡는다. 놓지 않는다. 어머니 집의 문지방, 잉태한 이의 방, 어두워지는 화면 위로 후렴 —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암전. 한낮의 지평선. 거친 들 저편의 연기 기둥. 바람이 몰약과 유향을 먼저 실어 온다.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가마, 칼을 찬 용사 육

십, 햇빛이 칼집과 은 기둥과 금 바닥에 부딪힌다. 가마 안 — 자색 깔개, 그 안쪽을 채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성문이 열리고 시온의 딸들이 나온다. 신랑의 머리에 어머니가 관을 씌운다 —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환호 속에 화면이 밝게 번진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붙잡은 손과 어머니의 왕관 — 밤의 찾음과 혼인 행렬"
- 초별 부제: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네 번 부르며 찾던(biqqesh) 여인이 순찰자들을 지나 치자마자 그를 만나 붙잡고 놓지 않는 첫 사이클 위로, 연기 기둥처럼 올라오는 솔로몬의 가마(appiryon)와 혼인날 어머니가 씌운 왕관(atarah)이 겹쳐지는 — 사적 갈망이 공적 기쁨으로 건너가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6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단 구성 + 동사 사다리 + 후렴·mi zot 두 반복선 + 근동 혼인 행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4절의 찾음을 '영혼이 그리스도를 찾는 여정'으로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동사 사슬과 호명 반복의 시학 관찰로만 둬.
- 3:6의 거친 들·연기 기둥을 출애굽 모형론으로 단정하지 않고, 욥 2:30과의 동일 표현 및 출 13장과의 어휘 올림 관찰로만 보존.
- 3:11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을 특정 인물(밋세바)의 역사 재구성이나 교리적 상징으로 봉합하지 않고, 어머니 inclusio(3:4↔3:11)의 구조 관찰로 둬.
- 5절 후렴의 '사랑'을 신학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갈망과 절제가 나란히 놓인 본문 내 긴장의 관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3장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3:1)로 열리는 밤의 수색 — 찾다(biqqesh) 네 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sheahavah nafshi)' 네 번의 호명 — 이 순찰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남과 붙잡음("놓지 아니하였노라", 3:4)으로 역전되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3:5)의 후렴을 경첩으로 삼아, 몰약과 유향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솔로몬의 가마

(appiryon)와 60 용사의 호위(3:6-10)를 지나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3:11)에 이르는 — 잃음의 밤이 찾음으로 닫히고 사랑이 공동체 앞에 서는 장이다.

한 문단: 어둠 속 침상에서 한 여인이 눈을 뜨고 있다. 찾았노라 —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같은 동사가 긍정과 부정으로 부딪히고, 이름 대신 '내 nefesh가 사랑하는 자'라는 긴 호명이 네 번 울린다. 여인이 일어나 거리와 큰 길을 돌고, 순찰자들에게 묻는다 — 너희가 보았느냐. 대답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들을 막 지나친 곳에서 그가 나타나고, 손이 그를 붙잡는다 — 어머니 집으로,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는다. 후렴이 내려와 단락을 닫는다 —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화면이 바뀌면 한낮의 거친 들, 연기 기둥, 바람에 먼저 실려 오는 몰약과 유향.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가마와 칼 찬 용사 육십, 은 기둥과 금 바닥과 자색 깔개, 그리고 그 맨 안쪽의 마감 —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 성문이 열리고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본다. 혼인날,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신랑의 머리에 있고, 그의 마음이 기쁘다. 잃음으로 열린 장이 기쁨으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밤의 골목 무대와 낮의 행렬 무대, 후렴이 경첩. 향내가 먼저 도착하는 6절. 동사의 단락과 명사의 단락. 두 개의 침상(mishkav/mittah).
2 첫 느낌·분위기	같은 동사의 긍정·부정 충돌. 이름 없는 호명 네 번. 응답 없는 순찰자들과 '지나치자마자'의 반전. 향내와 칼이 같이 가는 행렬.
3 시작과 끝	밤→낮, 잃음→기쁨, 혼자→공동체, 부정문→명령문. 어머니 inclusio(3:4↔3:11). '마음'의 양끝 — 갈망에서 기쁨으로.
4 등장인물·사상	말하는 이는 여인뿐 — 연인·순찰자 전원 침묵. 잃음—찾음—붙잡음의 사이클과 '깨우지 말라'의 절제가 나란함. 시선의 사다리(원경→내부→초대).
5 장면 컷	침상/수색/만남/후렴/행렬/혼인의 6컷. 동사 사다리: biqqesh 4회 → matsa 3회 → achaz 1회 → lo arpennu — 수색의 문법이 포용의 문법으로.
6 의문·발견·정보	호명 4회와 수색 4회의 겹침. 후렴 3회·mi zot 3회의 두 반복선. 3:1-4↔5:2-8의 마주 보는 패널. hapax 군집 (appiryon·refidah·chatunnah).
7 동영상	잠들지 못한 침상 → 골목의 수색 → 붙잡은 손 → 연기 기둥의 행렬 → 어머니가 씌운 관, 환호 속의 밝아짐.
8 초별 제목·부제	"붙잡은 손과 어머니의 왕관 — 밤의 찾음과 혼인 행렬"
9 기도·내면	이름 없는 호명 네 번의 긴 숨. 끝내 비어 있지 않았던 그 손만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biqqesh, 동사 사슬의 시학: 1~4절은 줄거리보다 동사로 기억되는 단락이다. 찾다 네 번, 만나다 세 번(두 번의 부정과 한 번의 긍정), 붙잡다 한 번, 놓지 않다 한 번 — 빈도가 줄어들수록 손은 목표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호명이 그 사슬에 네 번 끼워지는데, 앞의 세 번은 부재를, 마지막 한 번만 현존을 안는다. 반복이 단조로움이 아니라 갈망의 농도를 재는 눈금이 되는 시 — 잃어 본 손의 악력은 이 동사들의 산수로 기록된다.

2. **결 2 — 후렴이라는 경첩, 갈망과 절제의 동거**: 5절의 후렴("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은 2:7과 8:4 사이에서 둘째로 올린다. 일어나 골목을 돌며 찾는 갈망의 단락 바로 뒤에, 깨우지 말라는 절제의 부타이 온다 — 본문은 이 둘을 화해시키지 않고 나란히 둔다. 그리고 이 후렴이 사적인 밤(1~4절)과 공적인 낮(6~11절)을 잇는 경첩으로 놓여, 갈망이 행렬이 되기까지의 사이에 '때'라는 침묵의 한 박을 둔다.

3. **결 3 — 행렬의 세공,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모두에게로**: 6~11절의 시선은 원경(연기 기둥)에서 근경(가마·칼)으로, 내부(은·금·자색)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바깥의 모두를 부른다("나와서 보라"). 재료 명세의 끝 항목이 사랑이라는 것(3:10), 향내 나는 행렬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찬 칼 육십 자루를 품고 있다는 것(3:8), 그리고 절정에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어머니가 씌운 관과 마음의 기쁨이 놓인다는 것(3:11) — 이 행렬은 위용의 과시로 끝나지 않고 기쁨의 공유로 끝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2:7 · 8:4 — 같은 후렴의 첫째와 셋째 — 3:5는 그 한가운데의 둘째.
- 아 5:2-8 — 둘째 밤의 찾음 — 같은 동사(biqqesh)·같은 순찰자들(shomerim)에 정반대 결말. 3:1-4와 마주 보는 패널.
- 아 6:10 · 8:5 — mi zot — 권의 세 '누구인가' 질문의 나머지 둘.
- 아 8:5 —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 3:6과 같은 어구로 권의 끝에서 재등장.
- 욥 2:30 — timrot ashan(연기 기둥)의 동일 표현. / 출 13:21-22 — 광야의 기둥, 어휘 올림의 배경.
- 시 45편 — 왕의 혼인 노래. / 삼하 23:8-39 — gibborim 편제. / 왕상 10:18-20 — 왕실 세공의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1에서 시작한다 — 찾았노라,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첫 문장의 정직을 듣는다.
- **멈춤 1**: 3:3-4에서 멈춘다 — 순찰자들의 침묵과 '지나치자마자'. 도움을 청한 곳에서 답이 오지 않고, 그 직후에 만남이 온다는 시간의 기록 앞에 선다.
- **멈춤 2**: 3:8에서 멈춘다 — 혼인 행렬 한가운데의 칼 육십 자루. 기쁨의 길이 두려움 없는 길이 아니라 호위를 세우고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
- **끝**: 3:11에서 멈춘다 — 어머니가 씌운 왕관과 마음의 기쁨. 사랑이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곳까지.

F · 자족성 점검

- [x] 밤의 찾음(1~4)·후렴(5)·행렬 시(6~11)의 세 단 완결
- [x] biqqesh 4회·호명 4회의 겹침과 동사 사다리
- [x] 후렴 3회·mi zot 3회 — 권을 가로지르는 두 반복선의 교차점
- [x] 어머니 inclusio(3:4↔3:11)와 '마음'의 양끝
- [x] 3:1-4 ↔ 5:2-8 마주 보는 패널의 첫째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 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르는 첫 국면(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

음(4~7장), 사랑의 인장 선언(8장)으로 움직이는데, 3장은 첫 국면의 매듭이다 — 갈망이 처음으로 잃음을 통과하고, 그 잃음이 찾음과 붙잡음으로 닫히는 첫 사이클이 여기서 완성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장이 보여 주는 것은 사랑의 문법 자체다 — 잃을 수 있고, 잃으면 일어나 찾고, 찾으려면 놓지 않는. "놓지 아니하였 노라"(3:4)는 손의 동작은 8:6의 인장(chotam) 선언이 명제로 말할 것을 먼저 몸으로 보여 주는 첫 육화이고, 5:2-8의 둘째 밤 —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 이 앞에 남아 있기에 이 첫 찾음은 종착이 아니라 통과 지점이다. 그리고 혼인날의 왕관(3:11)은 갈망이 사적인 밀실에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기쁨으로 공인되는 국면을 표시한다 — 사랑의 인장이 끝내 공적인 선언(8:6-7)으로 발화되기까지, 3장은 그 공적 결을 행렬의 그림으로 먼저 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잃음의 밤(3:1)에서 붙잡은 손(3:4)으로 / 사적인 침상에서 공적인 행렬(3:6-10)로 / 갈망하는 마음(sheahavah nafshi)에서 기뻐하는 마음(simchat libbo, 3:11)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찾는 사랑이 붙잡음에 이르고, 붙잡은 사랑이 공동체 앞에 서는' 운동이다. 1~4절이 갈망의 개인 서사를 완결하고, 5절의 후렴이 한 박을 쉬고, 6~11절이 그 사랑을 행렬과 혼인의 공적 형식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나 이 매듭은 끝이 아니다 — 4장에서 신랑의 칭송이 시작되고, 5장에서 둘째 밤의 잃음이 오며, 8장의 인장 선언에 이르러서야 권의 운동이 닫힌다. 3장의 벡터는 '첫 잃음을 통과한 사랑'이라는 출발 자본을 들고 권의 후반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사랑 노래다 — 잃었다가 찾은 연인과 화려한 혼인 행렬.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만남의 출처가 묘하다. 여인은 제도(순찰자들)에 도움을 청하지만 응답은 기록되지 않고, 만남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온다 — 수색의 성실과 만남의 선물 사이에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간격이 있다. 찾는 자의 발이 멈추지 않았기에 만났지만, 만남 자체는 발의 공로로 환원되지 않는다. 둘째, 기쁨의 행렬이 두려움을 안고 간다. 밤의 두려움 때문에 찬 칼 육십 자루(3:8)는 혼인의 단내 한가운데 있는 쇠 냄새다 — 본문이 그리는 사랑의 길은 위협이 제거된 길이 아니라 위협이 실재하는 밤을 호위와 함께 통과하는 길이다. 셋째, 가장 깊은 곳의 마감재가 사랑이다(3:10). 은과 금과 자색의 명세 끝에 놓인 '엮어진 사랑'은, 이 행렬의 위용이 끝내 무엇을 운반하는 그릇인지를 안쪽에서 말한다. 본문은 이 셋을 명제로 정리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두고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잃어버린 것을 두고 침상에서 뒤척이기만 했는가, 일어나 골목으로 나섰는가. 그리고 한 번 비었던 내 손은 — 다시 쥐게 되었을 때 —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잃음을 책망하지 않고, 찾음을 공식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한 여인이 일어나는 장면을, 응답 없는 질문을, 지나치자마자 온 만남을, 놓지 않는 손을 차례로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사적인 밤의 끝에 공적인 낮을 이어 둔다 — 사랑은 끝내 숨김의 일이 아니라 나와서 보라고 외치는 기쁨의 일이라는 듯이. 갈망의 강도와 깨우지 않는 절제, 수색의 성실과 선물 같은 만남, 두려움의 실재와 그래도 가는 행렬 — 3장은 이 긴장들을 풀지 않은 채 독자의 손에 쥐여 준다. 잃어 본 사람만이 아는 악력으로 이 장을 쥐게 되는 것, 그것이 본문이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붙잡음과 혼인의 매듭이 지어지자 이번에는 신랑의 입이 열린다 —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4:1), 신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송하는 노래와 '잠근 동산'(4:12)의 비유가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chaz* — 붙잡다, 놓지 않는 손.

미해결 질문

아가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3:1의 밤(*ballelot*, 복수형) — 이 찾음은 하룻밤의 일인가, 밤마다 거듭된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 5:2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라고 잠과 깬의 경계를 표시하지만 3:1에는 그런 표지가 없다. 꿈이라 하기엔 동선이 구체적이고 생시라 하기엔 밤의 수색이 자유롭다. 복수형이 여는 폭과 함께 보존.

Q2. 1~5절의 밤 단락과 6~11절의 행렬 단락 — 한 사건의 두 면인가, 별개의 장면인가?

- 두 단락 사이에 접속사도 시간 표지도 없다. 같은 혼인의 전야와 당일인지, 독립된 두 시인지, 편집된 병치인지 — 본문은 잊지 않고 나란히 둘 뿐이다. 보존.

Q3. 3:6의 *mi zot*(여성 단수) —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는 누구인가?

- 질문은 '누구'를 묻는데 7절은 "솔로몬의 가마라"라는 사물로 받는 듯 보인다. 가마인지, 가마에 탄 이인지, 행렬 전체인지, 신부인지 — 6:10·8:5의 같은 질문과 함께 닫지 않고 이월. 보존.

Q4. *appiryon*(3:9) — 구약 단 1회의 이 단어는 어디서 왔고 정확히 어떤 기물인가?

- LXX의 *φορεῖον*과의 관계(차용의 방향), 페르시아어 경유설, 가마인지 보좌 구조물인지 혼인용 천개(*canopy*)인지의 폭 — *hapax*의 미해결을 미해결로 보존.

Q5. 3:10 *ratsuf ahavah* — "사랑이 엮여져"는 재료인가 방식인가, 누구의 사랑인가?

- 은·금·자색의 재료 명세 끝에 오는 '사랑'이 마감재의 은유인지, 딸들이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방식인지, 딸들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겼다는 뜻인지 — 번역들이 갈리는 폭 자체를 보존.

Q6. 후렴(3:5)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 깨우지 말라는 대상은 '사랑'인가 '사랑하는 이'인가?

- 히브리어 *ahavah*(사랑)는 여성 명사여서 '그 사랑이 원하기까지'로도 읽힌다. 2:7·8:4의 같은 후렴과 함께 — 사랑 자체의 때인지 연인의 때인지 — 닫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4장

SNG-004 · 시가서 · 히브리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4:1)로 열려 "아무 흠이 없구나"(4:7)에 닿는 일곱 지체의 찬가(*wasf*)와 "내 누이, 내 신부야(*achoti kallah*)"(4:9)의 첫 이중 호명 아래, 잠근 동산·덮은 우물·봉한 샘(4:12)이 생수의 우물(4:15)로 풀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4:16)라는 신부의 음성으로 '나의 동산'이 '그의 동산'이 되는 — 칭송과 개방의 장.

관찰된 사실

아가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겹 무대: 너울 속 얼굴(1~5절 클로즈업) → 북쪽 산맥(8절 — 레바논·아마나·스닐·헤르몬·사자 굴·표범 산) → 담 두른 동산(12~16절 — 우물·샘·과수·향료·바람).
- 직유의 재료가 세 계열: 목가(비둘기·염소 떼·암양·어린 사슴·백합화) + 농경·일상(홍색 실·석류·꿀·젖) + 군사·건축(다윗의 망대·방패 천 개).
- 소품(향료 목록): 고벨화·나도풀·나도·변홍화·창포·계수·각종 유향목·몰약·침향(13~14절) — 아홉 가지, 그 중 나드·계피·침향은 수입 향료.
- 소품(물): 덮은 우물·봉한 샘(12절) ↔ 동산의 샘·생수의 우물·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15절) — 닫힘 셋과 흐름 셋의 대응.
- 소재 두 무더기: 가까운 풍경(길르앗·목욕장·백합 들판) 對 먼 무역로의 산물(레바논 향·동방 계피·히말라야 나드) — 한 사람을 그리는 데 둘 다 동원됨.
- 16절의 출연자 확장: 북풍과 남풍 — 자연이 부름받는 무대 장치로 등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현대 귀에 낯선 직유(머리털=염소 떼, 이=암양)가 장면으로 그려지는 순간 움직임·인상·값의 비유로 작동 — 형태 복사가 아님.
- "어여쁘다(*yafah*)"의 반복(1절 두 번·7·10절)과 7절의 한 걸음 — "아무 흠이 없구나"는 일곱을 다 센 다음의 총괄 선언.
- 8절의 공기 전환: 찬가의 따뜻함에서 눈 덮인 위험 지대(사자 굴·표범 산)로 — 그 무대 위의 대사는 경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려오너라"라는 동행의 부름.
- 감각의 순서: 1~5절 시각 → 10~11절 후각·미각(향·꿀·젖) → 16절 바람의 촉각 — 보는 데서 말고 맛보는 가까움으로 깊어짐.
- 발화 배분: 1~15절이 신랑의 단독 발화(아가에서 가장 긴) — 16절에서 신부가 명령형("일어나라, 오라")으로 침묵을 깬.
- 9절 *libbavtini* — 마음(*levav*)이 동사가 되는 구약 유일 용법, '마음을 가져갔다/뛰게 했다' 사이의 번역 폭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 그의 목소리, 보는 일.
-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 그녀의 목소리, 먹이는 일.
- 시선의 찬미로 열려 환대의 초대로 닫힘. 화자 교대는 정확히 마지막 절에서 일어남 — 열다섯 절의 노래에 한 절의 응답.
- 어미의 운동: "~같고"(직유) → "없구나"(단정) → "내려오너라"(부름) → "원하노라"(청원).
- 12절 "잠근 동산" ↔ 16절 "나의 동산 → 그의 동산" — 잠갔다고 말한 쪽은 그, 여는 쪽은 그녀. 한 문장 안의 소유 전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랑(1~15절 화자), 신부(들리는 사람이자 16절 화자), 직유 속 단역들(비둘기·염소 떼·암양·어린 사슴·용사들), 사자·표범(8절 위협의 표상), 북풍·남풍(16절 부름받는 자연). 하나님은 표면에 등장하지 않음 — 아가 전체의 특징.
- 중심 사상: 칭송의 문법 — 일곱 지체를 평가·요구 없이 '이미 그러하다'로 선언하고, 7절에서 무흠(mum 없음)으로 총괄. mum은 제물 검사 어휘 — 여기서는 사랑의 눈이 내리는 판정.
- achoti kallah(내 누이 내 신부)의 이중 호명: 9·10·12절 + '내 신부' 단독 8·11절 — 친족의 가까움과 언약의 새로움이 한 호칭에 겹침. 4장에서 처음 등장.
- 4:10의 방향 역전: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 1:2에서 그녀가 그에게 한 비교가 그에게서 그녀에게로 되돌아옴.
- 물의 사상: 잠근 동산·덮은 우물·봉한 샘(12절)과 생수의 우물(15절)이 한 사람에게 같이 붙음 — 보호와 생명이 반대말이 아닌 배열.
- pardes(13절) — 페르시아 차용어, 담 두른 왕실 원. 구약 3회. 후대 '파라다이스'의 어원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절): wasf 찬가 — 눈·머리털·이·입술·뺨·목·두 유방의 일곱 직유 + 6절 몰약 산 + 7절 "아무 흠이 없구나."
- 컷 2 (8절): 불러 내림 — 레바논·아마나·스닐·헤르몬 꼭대기,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나와 함께."
- 컷 3 (9~11절): 빼앗긴 마음 — libbavtini,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 꿀과 젖, 레바논 향의 의복.
- 컷 4 (12~15절): 동산 은유 — 잠김(12절) → 고인 풍요(13~14절 향료 목록) → 흐름(15절 생수).
- 컷 5 (16절): 신부의 응답 — 바람을 부르는 명령 + 그를 맞는 초대, ganni(나의 동산)에서 gan-lo(그의 동산)로.
- 컷 4 내부의 세 박자(잠김—고임—흐름)가 컷 5의 열림으로 이어짐. 16절 자체도 명령(전반)과 환대(후반)로 갈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wasf — 신체 찬가 양식을 가리키는 학술 용어(아랍어 '묘사'). 19세기 시리아 혼례 관찰 기록에서 온 명칭 — 본문 단어 아님, 분류 용어.
- yafah(יָפָה) — 어여쁘다. 1절 두 번·7·10절. 4장의 틀 단어.

- *tsammah*(צָמַח) — 너울. 1·3절. 구약에서 아가 밖에는 사 47:2뿐. LXX는 '침묵'으로 읽음 — 번역 폭의 증거.
- *migdal David*(מִגְדַּל דָּוִד) — 다윗의 망대. 4절. 같은 절의 *talpiyyot*(תְּלִיפִיּוֹת)은 구약 유일 hapax —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층층이 쌓은' 사이에서 미확정.
- *mum*(מוֹם) — 흠. 7절. 레위기 제물 검사 어휘와 동일한 단어.
- *achoti kallah*(אָחוֹתִי כֻלָּה) — 내 누이 내 신부. *kallah*는 신부·며느리의 혼인 어휘. / *libbavtini*(לִבְבָתִּי) — levav(마음)의 동사화, 구약 유일 용법. 9절.
- *gan naul*(גַּן נָעוּל) — 잠근 동산(naal=빗장). / *gal naul*(גַּל נָעוּל) — 덮은 우물. gal/gan 한 글자 차이로 사본·LXX가 갈림. / *maayan chatum*(מַעְיָן חָתוּם) — 봉한 샘. chatam 어근은 8:6의 인장(chotam)과 같음. 12절.
- *pardes*(פָּרְדֵּי) — 각종 과수(원). 페르시아 차용어, 구약 3회. / *shelachayikh*(שֶׁלַחַיִּיךָ) — "네게서 나는 것", shalach(보내다)에서 온 '뺀은 가지들'. 13절.
- 향료 어휘(13~14절): *nerd*(נֶרֶד)·*karkom*(כַּרְקוֹם)·*qaneh*(קָנֶה)·*qinnamon*(קִינָמוֹן)·*ahalot*(אֲהָלוֹת)·*mor*(מוֹר)·*levonah*(לְבוֹנָה).
- *beer mayim chayyim*(בְּיַר מַיִם חַיִּים) — 생수의 우물, '살아 있는 물'. 15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찬가(1~7) + 부름(8) + 고백(9~11) + 동산 은유(12~15) + 응답(16) — 다섯 토막 구성. 화자 교대는 마지막 절에서만.
- 일곱 지체의 직유 사슬과 7절 무흠 선언의 맞물림. 1절 "어여쁘다"와 7절 "어여쁘고"의 inclusio.
- 12→15→16절의 운동: 잠근 동산 → 흐르는 생수 → 열리는 문. 닫힘 어휘 셋(잠금·덮개·봉인)과 흐름 어휘 셋(샘·우물· 시내)의 대응.
- 16절의 소유 전환: *ganni*(나의 동산) → *gan-lo*(그의 동산) — 접미사 하나로 기록되는 개방. 5:1("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이 즉답.
- 1:2의 비교("네 사랑이 포도주보다")가 4:10에서 방향을 바꿔 돌아옴 — 찬사의 메아리 구조. 7:1-9의 둘째 wasf(발→머리 역방향)와 마주 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신왕국 사랑 노래 — 연인을 '나의 누이'로 부르는 호칭 관습 + 신체를 차례로 칭송하는 형식의 평행 — 배경.
- 19세기 시리아 혼례의 wasf 관찰 기록(베츠슈타인) — 혼인 주간의 신체 찬가 관습, 학술 용어의 출처 — 배경.
- 향료 무역로 — 나드(히말라야)·게피(동방)·침향(동남아)·유향(아라비아 남부). 한 동산에 실재할 수 없는 목록 = 지리가 아닌 찬사의 지도 — 배경.
- 페르시아 왕실 원(pairidaeza) — *pardes*의 차용 배경, 담 두른 과수·향료 원의 전통 — 배경.
- LXX: *Amanah* → πιστις(믿음), *gal naul* → 동산 반복, *tsammah* → 침묵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4:12-15 ↔ 잠 5:15-18 (우물·샘 — 혼인의 친밀을 가리키는 정경 내 어휘 겹침)
- 아 4:12-16 ↔ 창 2:8-14 (동산·강·향 — 에덴 어휘의 울림)
- 아 4:10 ↔ 아 1:2 (포도주보다 — 같은 저울의 방향 역전)

- 아 4:12 ↔ 아 1:6 (잠근 동산 ↔ 지키지 못한 포도원 — 같은 사람의 두 그림)
- 아 4:16 ↔ 아 5:1 (초대와 즉답 —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 아 4:12 ↔ 아 8:6 (chatam/chotam — 봉인과 인장의 같은 어근, 권의 destination으로 가는 어휘 길)
- 아 4:1-7 ↔ 시 45:10-15 (신부 찬미의 정경 내 평행)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너울이 화면을 채우고 그 너머로 두 눈이 비친다 — 비둘기 같다는 목소리. 길르앗 비탈을 검은 염소 떼가 물결처럼 내려오고, 목욕장에서 흰 암양들이 짝 하나 잃지 않고 줄지어 나온다. 홍색 실, 갈라 놓은 석류, 방패 천개가 번쩍이는 망대, 백합화 들판의 어린 사슴 둘. 일곱을 다 센 목소리가 멈춘다 —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화면이 북쪽으로 비행한다. 눈 덮인 헤르몬, 사자 굴, 표범의 비탈 — 그 능선을 향해 부름이 올라간다. 내 신부야, 나와 함께, 내려오너라. 한 번의 눈길과 구슬 한 꿰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고백, 꿀 방울 맺힌 입술, 레바논 향이 번지는 옷자락. 빗장 걸린 문 앞 — 덮인 우물, 인장 눌린 샘, 담 너머로 우거진 석류나무와 나드와 계수, 담을 넘지 못하고 고인 향. 그런데 땅 밑에서 물소리 —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안에서 목소리가 일어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바람이 동산을 흔들고 향기가 담을 넘는다. 문이 안에서 열린다 —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열린 문과 날리는 향 위로, 끝.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잠근 동산이 스스로 열리다 — 일곱 직유와 한 번의 초대"
- 초벌 부제: "비둘기 같은 눈에서 쌍태 어린 사슴까지 일곱 지체의 찬가(wasf)가 '아무 흠이 없구나'(4:7)에 닿고, '내 누이 내 신부'(achoti kallah)로 불린 잠근 동산(gan naul)이 생수의 우물을 지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4:16)로 스스로 열리는 — 칭송과 개방의 둘째 국면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wasf 양식 + 일곱 직유와 무흠 선언의 맞물림 + 향료 무역로 + 이집트 사랑 노래의 누이 호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잠근 동산(4:12)을 순결 교훈이나 정조 규범의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달핼 어휘 셋과 흐름 어휘 셋의 배열, 그리고 16절 소유 전환의 관찰로만 둬.
- 동산·신부를 교회론이나 신비주의 알레고리로 단정하지 않고, 탈굴·후대 전통의 읽기는 배경 기록으로만 분리.

- achoti kallah(내 누이 내 신부)를 교리 용어로 봉합하지 않고, 친족 어휘와 혼인 어휘가 겹치는 호명 형태의 관찰 + 이집트 사랑 노래의 호칭 관습 배경으로 보존.
- 4:6의 화자(신랑인가 신부인가)를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2:17 평행과 함께 미해결로 이월.
- 1:6의 포도원과 4:12의 동산 대비에서 '무엇이 그녀를 바꿨는가'를 서사로 채우지 않고, 두 그림의 대면 자체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4장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4:1)로 열리는 일곱 지체의 찬가(wasf — 비둘기 같은 눈, 길르앗 염소 떼 같은 머리털, 쌍태 암양 같은 이, 홍색 실 같은 입술, 석류 한 쪽 같은 뺨, 다윗의 망대 같은 목, 백합화 사이 쌍태 어린 사슴 같은 두 유방)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4:7)에 닿은 뒤,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불러 내리는 부름(4:8)과 "내 누이, 내 신부야(achoti kallah)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4:9)라는 첫 이중 호명을 지나, 잠근 동산·덮은 우물·봉한 샘(4:12)이 생수의 우물(4:15)로 다시 불리고, 마침내 신부의 첫 응답 —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4:16) — 으로 '나의 동산'이 '그의 동산'이 되는, 칭송과 개방의 장이다.

한 문단: 누이 화면을 채우고 그 너머로 두 눈이 비친다 — 비둘기 같다는 목소리. 길르앗 비탈을 염소 떼가 물결처럼 내려오고, 목욕장에서 암양들이 짝 하나 잃지 않고 나온다. 홍색 실, 갈라 놓은 석류, 방패 천 개가 번쩍이는 망대, 백합화 들판의 어린 사슴 둘 — 일곱을 다 센 목소리가 멈춘다. 아무 흠이 없구나. 화면이 북쪽으로 비행한다. 눈 덮인 헤르몬과 사자 굴과 표범의 비탈을 향해 부름이 올라간다 — 내 신부야, 나와 함께, 내려 오너라. 한 번의 눈길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고백, 꿀 방울 맺힌 입술, 레바논 향이 번지는 옷자락. 그리고 빗장 걸린 문 — 덮인 우물, 인장 눌린 샘, 담 너머로 우거진 향료들. 그런데 땅 밑에서 물소리가 들린다 — 생수의 우물, 흐르는 시내.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일어난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바람이 동산을 흔들고 향기가 담을 넘는다. 문이 안에서 열린다 —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4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얼굴(클로즈업) — 북쪽 산맥 — 담 두른 동산의 세 겹 무대. 목가·농경·군사 세 계열의 직유 재료. 가까운 풍경과 먼 무역로의 동원.
2 첫 느낌·분위기	낮선 직유가 인상·값의 비유로 작동. 일곱을 센 뒤의 "흠이 없구나". 위험한 산맥 위의 다정한 부름. 코와 혀로 깊어지는 감각.
3 시작과 끝	그의 목소리(보는 일)로 열려 그녀의 목소리(먹이는 일)로 닫힘. 같다—없다—오너라—원하노라의 어미 운동. 마지막 절의 화자 교대.
4 등장인물·사상	1~15절 신랑의 단독 발화, 16절 신부의 응답. achoti kallah의 이중 호명. mum(흠) — 제물 검사 어휘가 사랑의 판정으로. 1:2 비교의 방향 역전(4:10).
5 장면 컷	찬가(1~7)/부름(8)/고백(9~11)/동산(12~15)/응답(16)의 다섯 컷. 컷 4 내부의 잠김—고임—흐름 세 박자.

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보	일곱 지체와 무흠 선언의 맞물림. 모일 수 없는 향료들 = 찬사의 지도. 잠 5:15-18·에텐 어휘 올림. talpiyyot hapax. 4:6 화자 이해결.
7 동영상	너울 속 눈 → 일곱 직유 → 산맥의 부름 → 빗장 걸린 동산 → 땅 밑 물소리 → 바람과 열리는 문.
8 초벌 제목·부제	"잠근 동산이 스스로 열리다 — 일곱 직유와 한 번의 초대"
9 기도·내면	일곱 번 세고 나온 무흠 선언과 안에서 열리는 문을 본다. 묻지 않고 들은 그대로 쥐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wasf, 인상을 옮기는 직유의 문법:** 머리털이 염소 떼 같다는 말은 생김새의 복사가 아니다.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검은 물결의 윤기, 목욕을 마친 양 떼의 가지런함, 하나도 짝 잃지 않은 완전함 — 직유는 형태가 아니라 움직임과 값과 결을 옮긴다. 그래서 목가의 부드러움 한가운데 다윗의 망대와 방패 천 개가 설 수 있다. 위엄과 다정함이 한 사람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이 혼합된 재료 말고는 말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일곱을 하나하나 센 끝의 "아무 흠이 없구나"(4:7)는 그 문법의 결론 — 빈말의 찬사가 아니라 다 세어 본 사람의 판정이다.

2. **결 2 — achoti kallah, 두 거리감이 겹치는 호명:** '내 누이'는 이미 한 집안인 사람의 말이고 '내 신부'는 이제 막 언약을 맺는 사람의 말이다. 4장은 이 둘을 겹쳐 다섯 절에 걸쳐 부른다(8~12절). 가장 오래된 가까움과 가장 새로운 시작이 한 호칭 안에 있다 — 이집트 사랑 노래의 '누이' 관습이 배경에 깔려 있지만, 아가는 거기에 kallah(신부)를 얹어 언약의 결을 더한다. 그리고 이 호명 결에서 1:2의 저울이 방향을 바꾼다 —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그녀가 그에게)가 4:10에서 그에게서 그녀에게로 되돌아온다. 사랑의 문장이 메아리가 되는 책의 첫 완전한 왕복이다.

3. **결 3 — 잠근 동산에서 열린 동산으로, 12→15→16절의 운동:** 12절의 닫힘 어휘 셋(잠근·덮개·봉인)과 15절의 흐름 어휘 셋(샘·우물·시내)이 한 사람에게 같이 붙는다. 보호된 것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가장 살아 있는 것이라는 배열 — 그리고 16절에서 그 살아 있음이 스스로 문을 연다. 바람을 부르는 명령("북풍아 일어나라")과 그를 맞는 초대("들어가서 먹기를")가 한 절에 잇달고, ganni(나의 동산)가 gan-lo(그의 동산)로 — 접미사 하나가 옮겨 가는 것으로 개방이 문법에 기록된다. 잠갔다고 말한 쪽은 그였고, 여는 쪽은 그녀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5:1 —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 4:16 초대의 즉답. 두 장이 한 문장처럼 이어짐.
- 아 1:2 ↔ 아 4:10 — 포도주보다 — 같은 비교의 방향 역전, 찬사의 왕복.
- 아 1:6 ↔ 아 4:12 — 지키지 못한 포도원 ↔ 잠근 동산 — 같은 사람의 두 그림.
- 아 8:6-7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 4:12의 봉인(chatam)이 8:6의 인장(chotam)으로 자라는 어휘 길.
- 잠 5:15-18 —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 우물·샘의 혼인 어휘가 놓인 정경의 결.
- 창 2:8-14 — 에텐의 동산과 강 — 동산·물·향 어휘의 올림.
- 시 45:10-15 — 왕의 혼인 시 — 신부 찬미의 정경 내 평행.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1의 낮선 직유에서 시작한다 — 웃음이 날 뻔한 비유를 장면으로 그려 보고, 형태가 아니라 인상을 옮기는 문법을 몸으로 익힌다.

- **멈춤 1:** 4:7에서 멈춘다 — 아무 흠이 없구나. 일곱을 다 센 다음에 나온 판정. 누군가를 이렇게 세어 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세어진 적이 있는지.
- **멈춤 2:** 4:12와 15 사이에서 멈춘다 — 봉한 샘과 생수의 우물이 한 사람이다. 지켜 온 것과 흘려보낼 것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배열 앞에서.
- **끝:** 4:16에서 멈춘다 — 문은 밖에서 열리지 않았다. 열다섯 절의 칭송을 들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자기 동산을, 그의 동산이라 바꿔 부르며 연다.

F · 자족성 점검

- [x] 찬가(1~7)·부름(8)·고백(9~11)·동산(12~15)·응답(16)의 다섯 토막 완결
- [x] 일곱 지체 직유와 4:7 무흠 선언의 맞물림
- [x] 1절 "어여쁘다"와 7절 "어여쁘고"의 괄호(inclusio)
- [x] 12절 닫힘 셋과 15절 흐름 셋의 대응, 16절 소유 전환
- [x] 1:2↔4:10 비교의 왕복과 4:16↔5:1의 초대-응답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르는 첫 국면(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음의 둘째 국면(4~7장),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4장은 둘째 국면의 개막 — 권에서 가장 긴 단독 찬가가 신부를 일으켜 세우고, 잠근 동산의 보호가 자발적 개방으로 무르익는 입구다. 1장에서 "내가 비록 검으나",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자기를 소개하던 사람이 여기서 일곱 번 세어진 끝에 '흠 없다'고 불리고,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이 존중받는 동산으로 그려진다 — 첫 국면의 자화상이 둘째 국면의 호명으로 갱신되는 좌표다. 그리고 4:12의 봉한 샘(chatum)에 쓰인 어근이 8:6의 인장(chotam)에서 다시 나온다는 사실이, 이 장의 봉인이 destination의 인장을 향해 가는 어휘의 길목임을 표시해 둔다. 보호받은 친밀이 먼저 있어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선언이 8장에서 무게를 가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곱 직유의 찬가(4:1-5)에서 "아무 흠이 없구나"(4:7)라는 판정으로 / 사자 굴과 표범 산의 위험(4:8)에서 향기로운 동산의 안전으로 / 잠근 동산·봉한 샘(4:12)에서 생수의 우물(4:15)을 지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4:16)라는 자발적 개방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칭송이 닫힌 문을 안에서 열리게 하는 운동이다. 열다섯 절의 찬가는 요구를 한 번도 담지 않는다 — 네 눈이, 네 입술이, 네 목이 '이미 그러하다'고 셀 뿐이다. 그런데 그 세어 줌을 다 들은 사람이 마지막 절에서 바람을 부르고 문을 연다. 강요가 만들지 못하는 것을 칭송이 만든다는 순서 — 이 벡터는 5장에서 곧장 시험대에 오른다. 그가 동산에 들어오고(5:1), 둘째 밤이 오고, 문 앞에서 머뭇거린 사이 그가 사라진다(5:2-6). 4장의 열림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배워 가는 길임을 다음 장이 보여 줄 것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혼인 노래의 찬사다 — 아름다움의 목록, 향료의 목록, 동산의 은유.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칭송이 자화상을 다시 그린다. 햇볕에 그을렸다고, 제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하던 사람(1:5-6)이 일곱 항목을 다 세어 본 사랑의 눈앞에서 '흠 없음'으로 불린다 — 제물 검사의 어휘(mum)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판정으로 쓰이는 곳. 둘째, 보호가 생명과 동거한다. 잠근 동산과 봉한 샘이라는 닫힘의 그림 셋과, 생수의 우물과 흐르는 시내라는 살아 있음의 그림 셋이 한 사람에게 겹쳐 붙는다. 지켜진 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것이 고여 있는 것이라는 배열이다. 셋째, 개방은 명령되지 않는다. 열다섯 절 어디에도 '문을 열라'는 요구가 없다 — 불러 내림(4:8)은 있어도 침입은 없고, 동산을 잠갔다고 묘사할 뿐 빗장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존중의 끝에서, 문이 안에서 열린다. 4장은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를 — 칭송과 존중과 기다림의 순서로 — 보여 주고, 그 나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멈춘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누군가를 일곱 번 세어 본 적이 있는가 — 흠을 찾으려고가 아니라 어여쁨을 다 세려고. 그리고 내 안의 잠근 동산은, 간헐 메마른 곳인가 아니면 생수가 고여 흘러보낼 때를 기다리는 곳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세는지 보여 주고 — 눈을, 머리털을, 이와 입술과 뺨과 목과 가슴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 그 세어 줌이 끝났을 때 들려온 판정을 들려준다. 아무 흠이 없구나.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준다 — 바람을 부르고, 향기를 날리고, 자기 동산을 그의 동산이라 바꿔 부르며 문을 열었다. 지키지 못한 포도원의 사람이 존중받는 동산이 되기까지, 본문이 기록한 것은 칭송의 시간뿐이다. 누군가의 닫힌 문 앞에서 빗장 대신 세어 줄 말을 고르는 일 — 그 순서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초대는 즉답을 받는다 —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5:1) — 그러나 곧 둘째 밤이 오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 문을 열어 다오"(5:2)라는 두드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음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gan naul* — 잠근 동산, 존중받아 스스로 열리는.

미해결 질문

아가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4:6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 이 '내가'는 누구인가?

- 찬가 한가운데라 신랑의 말로 읽히지만, 거의 같은 시간 표현("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을 2:17에서는 신부가 말했다. 두 입에 걸친 한 문장 — 화자 배정이 본문만으로 닫히지 않는다. 보존.

Q2. talpiyyot(4:4) —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은 정확히 무엇인가?

- 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뿐인 hapax. '층층이 쌓은'·'무기고로 지은'·'위용 있게 세운' 등으로 번역이 갈리고 확정되지 않았다. 목을 망대에 건주는 직유의 핵심 수식어가 미확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보존.

Q3. gal naul(4:12) — '덮은 우물'인가, gan(동산)의 반복인가?

- gal과 gan은 히브리어 한 글자 차이. 다수 사본과 LXX는 동산을 두 번 읽고, 맛소라 본문은 우물로 전한다. 닫힘의 그림 셋(동산·우물·샘)인지 둘인지 — 사본의 갈래째 보존.

Q4. wasf의 직유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형태의 닮음인가, 인상과 값의 옮김인가?

- 머리털=염소 떼, 이=암양, 목=망대. 현대 독자에게 낯선 이 비유들이 생김새의 복사가 아니라 움직임·유크·완전함·위엄의 전이로 읽히는 듯하지만, 비유 문법의 전모는 본문이 다 설명하지 않는다. 7장의 둘째 wasf와 겹쳐 읽을 때까지 열어 둬. 보존.

Q5. 아마나(4:8) — 산 이름은 왜 '믿음'으로 번역되었는가?

- Amanah와 emunah(믿음)는 같은 어근의 꼴. LXX는 "믿음의 시작에서"로 옮겼다. 지명인가, 지명에 얹힌 소리의 옮김인가 — 번역사의 갈래를 관찰로만 보존.

Q6. 1:6의 "지키지 못한 포도원"과 4:12의 "잠근 동산" — 같은 사람의 두 그림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 제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던 사람이 보호받는 동산으로 불린다. 그 사이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 칭송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 외에는. 두 그림의 대면을 서사로 채우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5장

SNG-005 · 시가서 · 히브리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bati legani*)"(5:1)의 잔치가 권의 정중앙에서 베풀어진 직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ani yeshenah velibbi er*)"(5:2)로 둘째 밤이 열리고 — 머뭇거림(5:3)과 늦은 문 열기(5:5-6), 매 맞는 거리(5:7)를 지나, 딸들의 질문(5:9)이 부재 속에서 가장 정밀한 신랑 찬가(5:10-16)를 끌어내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zeh dodi vezeh rei*)"로 닫히는 — 아가 둘째 골짜기.

관찰된 사실

아가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네 번 전환: 동산의 잔칫상(1절) → 밤의 집과 닫힌 문(2~5절) → 성 안 거리(6~7절) → 예루살렘 딸들 앞 발화 공간(8~16절). 전환의 경첩마다 문이 놓임.
- 소품(잔치): 몰약·향 재료·꿀송이·꿀·포도주·우유 — 거두고 먹고 마시는 여섯 동작(1절).
- 소품(밤): 밤이슬(*tal*)에 젖은 머리, 벗어 둔 옷, 씻은 발, 문틈(*chor*), 문빋장, 손가락에서 흐르는 몰약 즙(*mor over*), 벗겨 간 겉옷(*radid*).
- 소품(찬가): 순금·까마귀·비둘기·우유·꽃밭·백합화·황옥·황금·상아·청옥·화반석·백향목 — 흐르는 것들에서 세워지고 빛나는 재료들로 바뀜.
- 5:1의 소유격 사슬: '나의'가 여덟 번(내 동산·나의 몰약·나의 향 재료·나의 꿀송이·나의 꿀·내 포도주·내 우유 + 내 누이 내 신부). 4:16의 "그의 동산"이 "내 동산"으로 응답됨.
- 2절의 네 겹 호명: 나의 누이 — 나의 사랑 — 나의 비둘기 — 나의 완전한 자(*tammati*). 1절의 두 겹(누이·신부)에서 네 겹으로 확장.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절(환하고 배부른 잔치)과 2절(밤·이슬·닫힌 문) 사이의 급한 낙차.
-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ani yeshenah velibbi er*) — 잠과 깨어 있음이 한 몸에 동거하는 명사문. 문 밖의 빠른 목소리와 문 안의 느린 몸.
- 1절 끝 "먹으라... 많이 마시라" — 발화자가 명시되지 않은 셋째 목소리의 축복. 잔치를 넓히는 권면.
- 감각의 호: 미각(꿀·포도주·우유) → 촉각(이슬·손·흐르는 몰약) → 통각(매질) → 다시 시각·미각(빛나는 재료들, "입은 심히 달콤하니").
- 6절 "찾아도 못 만났고 불리도 응답이 없었노라" — 3:1-2의 문형이 더 어두운 골짜기에서 재등장.
- 7절의 무설명: 순찰자 폭력에 이유도 평가도 위로도 없이 한 절로 지나감 — 본문의 서늘한 정직.
- 9절의 문체 경계: 1인칭 서사(2~8절)에서 비유의 현재형 묘사(10~16절)로 — 이야기가 멈추고 그림이 시작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bati legani)" — 신랑의 도착 선언.
- 16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zeh dodi vezeh rei)" — 신부의 신원 선언.
- 그가 '왔다'로 열리고 그가 '누구다'로 닫힘. 한가운데(6절)에 그의 사라짐 — 도착·부재·언어의 호.
- 16절의 "~로다"는 찾기에 실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확신의 종결 — 부재가 꺾지 못한 어미.
- 양끝이 모두 공동체를 향해 열림: 1절 끝의 복수 권면(친구들아), 16절의 공동체 앞 증언(예루살렘 딸들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랑(1절 화자 → 2절 문 밖 음성 → 4절 문틈의 손 → 6절 이후 부재 → 10~16절 묘사 속 전신), 신부(2~16절 화자), 친구들·사랑하는 사람들(1절 수신), 순찰자·파수꾼들(shomerim, 7절 — 유일한 폭력 행위자), 예루살렘 딸들(8절 수신·9절 발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음(아가 전권의 특징, 관찰).
- 중심 사상: 5:8 cholat ahavah(사랑의 병) — 2:5의 재등장. 후렴의 변형: "깨우지 말지니라"(2:7·3:5)가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5:8)로 — 사랑을 보호하던 맹세가 사랑을 찾는 전언 의뢰로.
- 9절의 질문 구조: "나은 것이 무엇인가"가 두 번 거듭됨 → 10~16절 찬가를 끌어냄. 사랑의 변증이 명제가 아니라 묘사로 제출됨.
- 3절의 머뭇거림: 옷과 발이라는 사소한 이유. 거절이 아니라 미룸 — 4절에서 마음(meai hamu)은 즉시 움 직였으나 몸이 늦음. 작은 늦음이 6절의 빈 문을 만들.
- 5절의 몰약: 출처(그가 남긴 것인가, 그녀가 바른 것인가)가 명시되지 않음 — 비워 둔 채 보존.
- 6절의 시점: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nafshi yatsah)" — 혼이 나간 순간이 그의 말을 듣던 시점으로 소급되는 문장. 형태만 관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잔치와 축복 — bati legani, 4:16 초대와 성취, 여섯 동작, 셋째 목소리의 권면.
- 컷 2 (2~5절): 둘째 밤의 개막 — 깨어 있는 마음, 네 겹 호명, 이슬 젖은 머리, 사소한 이유들, 문틈의 손, 몰약 흐르는 늦은 열림.
- 컷 3 (6~7절): 둘째 잃음 — 빈 문, 물러간 그(chamaq avar), 나간 혼, 응답 없는 부름, 순찰자의 매와 벗겨 간 겹옷.
- 컷 4 (8~9절): 부탁과 질문 — 변형된 후렴(사랑의 병), 두 번 거듭된 "나은 것이 무엇인가".
- 컷 5 (10~16절): 신랑 찬가 — 머리·머리털·눈·뺨·입술·손·몸·다리·생김새·입의 열 항목, "나의 친구로다"의 봉인.
- 컷 5 내부의 수직선: 머리(11절)에서 다리(15절)로 내려갔다가 입(16절)으로 되돌아옴 — 13절 입술과 16절 입의 봉합.
- 3:1-5와의 평행·대조: 밤—찾음—못 만남—순찰자—딸들의 같은 순서. 3장(곧 만남·중립적 순찰자·"깨우지 말라") 對 5장(못 만남·때리는 파수꾼·"전해 다오") — 같은 틀, 더 어두운 내용.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ati legani(בָּתִּי לְגָנִי) —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완료형. 4:16 청유에 대한 응답.
- achoti kallah(אָחוֹתִי כָּלָה) — 내 누이, 내 신부. 4:9부터 이어진 겹초칭. / 1절 끝 dodim(דּוֹדִים) — "사랑하는 사람들"로도 "사랑(의 잔치)"으로도 읽히는 번역 폭 — 기록만.

- *ani yeshenah velibbi er*(אֲנִי יֵשֶׁנָה וְלִבִּי עֵר) — 나는 자는데 내 마음은 깨어 있다. 분사 둘이 마주 놓인 명사문.
- *yonati*(יוֹנָתִי) — 나의 비둘기 · *tammati*(תַּמָּתִי) — 나의 완전한 자. tam(온전함) 어근. / *tal*(טל) — 이슬.
- *chor*(חֹר) — 문틈·구멍(4절). / *meai hamu*(מַעֵי הָמוּ) — 내 속이 술렁였다 → 개역 "내 마음이 움직여서".
- *mor over*(מֹר עֹבֵר) — 흐르는 몰약(5절). 액체 상태의 최상품을 가리키는 표현.
- *chamaq avar*(חֶמֶק עָבַר) — 돌이켜 가 버렸다(6절). 두 동사의 병렬. / *nafshi yatsah*(נַפְשִׁי יָצָא) — 내 혼이 나갔다.
- *shomerim*(שֹׁמְרִים) — 파수꾼들(7절). shamar(지키다)의 분사 — 지키는 자들이 상하게 하는 자들로 등장. / *radid*(רָדִיד) — 걸옷·너울. 구약에 두 번뿐(사 3:23).
- *cholot ahavah*(חֻלּוֹת אֲהָבָה) — 사랑의 병(8절). 2:5의 재등장.
- *tsach veadom*(צָח וְאֶדוֹם) — 희고도 붉다(10절). / *dagul merevavah*(דָּגוּל מְרֵבָבָה) — 만 명 가운데 깃발처럼 뛰어남. degel(깃발) 어근.
- *tarshish*(תַּרְשִׁישׁ) — 황옥(14절). / *shesh*(שֵׁשׁ) — 화반석·흰 돌(15절).
- *mamtaqim*(מַמְתָּקִים) — 달콤함들 · *machamadim*(מַחֲמָדִים) — 사랑스러움들(16절). 강조의 복수형.
- *zeh dodi vezeh rei*(זֶה דּוּדִי וְזֶה רֵעִי)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나의 친구(16절). rei는 신랑의 호칭 rayati(나의 사랑)와 같은 어근의 남성형 — 호칭의 거울.
- LXX: dodi → ἀδελφιδός(친족 호칭), 5:16 rei → πλησίον(이웃), 5:4 meai hamu → ἡ κοιλία μου ἐθροήθη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잔치(1) + 밤의 개막(2~5) + 잃음과 매질(6~7) + 부탁과 질문(8~9) + 신랑 찬가(10~16) — 다섯 단 구성.
- 5:1의 위치: 히브리어 본문 분량 기준 권의 정중앙 어림 — 4:16 초대와 5:1 응답이 책의 한가운데서 맞물리고 그 위에 "먹으라... 많이 마시라"의 축복이 얹힘.
- 성취 직후의 새 갈망: 도착(5:1)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곧바로 둘째 밤(5:2~)이 열림 — 아가의 사랑 리듬.
- 후렴 변형: "깨우지 말지니라"(2:7·3:5) →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5:8) → 8:4에서 본래 꼴로 복귀 — 후렴의 굴절 지점.
- 와스프 분포: 여성 묘사 세 번(4장·6장·7장), 남성 묘사는 5:10-16 한 번 — 유일한 신랑 와스프가 부재 중에 불림.
- 찬가의 수직선과 봉합: 머리→다리의 하강, 13절 입술→16절 입의 회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이집트 신왕국 연가(파피루스 체스터 비티 1 등) — 연인의 신체를 항목별로 노래하는 묘사가(wasf) 장르의 선례 — 배경.
- 고대 근동 신상·왕상 묘사 관습 — 금·상아·보석으로 짜는 신체 묘사. 5:10-16의 재료 목록과 공명 — 배경.
- 성읍 야간 순찰 제도 — 파수꾼의 야간 통행 단속. 밤에 홀로 다니는 여성이 단속 대상이 되던 사회상 — 배경. 본문은 이 폭력을 정당화도 비판도 하지 않고 한 절로 지나감.
- 빗장 문 구조 — 문에 뚫린 손 구멍(chor)으로 안쪽 빗장을 더듬는 건축 양식 — 5:4의 배경.
- 몰약 — 아라비아·동아프리카산 수지 향료. 흐르는 몰약(mor over)은 액상 최상품 —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4:16 ↔ 아 5:1 (그의 동산으로의 초대 ↔ 내 동산으로의 도착 — 청유와 완료의 맞물림)
- 아 2:5 ↔ 아 5:8 (cholat ahavah — 함께 있음의 병과 부재의 병, 같은 병명)
- 아 2:7-3:5 ↔ 아 5:8 ↔ 아 8:4 (후렴의 본래 꼴 — 변형 — 복귀)
- 아 3:1-5 ↔ 아 5:2-8 (첫째 밤과 둘째 밤 — 같은 순서, 다른 결과)
- 아 4:1-7 ↔ 아 5:10-16 (신부 찬가와 신랑 찬가 — 마주 보는 와스프)
- 아 5:9 ↔ 아 6:1-3 (딸들의 질문이 다음 장의 함께 찾음으로 이어짐)
- 아 5장 ↔ 아 8:6-7 (잃음으로도 꺼지지 않은 사랑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의 예고)
- 아 1:2 ↔ 아 5:16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 심히 달콤한 입 — 권 양쪽의 입의 어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동산의 잔치상 — 몰락이 거두어지고 꿀송이가 쪼개지고 포도주와 우유가 차오른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화면 밖의 축복 — 먹으라, 많이 마시라. 빛이 찾아들고 밤이다. 감긴 눈, 깨어 있는 마음. 문 두드리는 소리, 호칭이 하나씩 쌓인다 —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밖, 이슬에 젖은 머리. 안에서 작은 대답 — 옷을 벗었으니, 발을 씻었으니. 문틈으로 손이 들어왔다 사라진다. 몸이 일어나고, 빗장에 닿는 손가락에서 몰락이 흘러내린다. 문이 열린다 — 빈 골목. 그는 벌써 물러갔다. 부름이 퍼지는데 응답이 없다. 순찰자들의 등불, 떨어지는 때, 벗겨져 사라지는 겉옷. 일어난 몸이 딸들에게 말한다 —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질문이 돌아온다 —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어둠 속에 그림이 세워진다 — 순금의 머리, 검은 머리털, 우유로 씻은 눈, 꽃발 같은 뺨, 몰락 듣는 입술, 황옥 물린 손, 상아의 몸,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 레바논 같은 생김새. 없는 사람이 묘사 속에서 있다. 마지막 자막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안전.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빈 문 앞의 찬가 — 잃음이 낳은 가장 정밀한 노래"
- 초벌 부제: "4:16 초대의 성취(bati legani)가 권의 정중앙에서 잔치로 베풀어진 직후, 머뭇거림과 늦은 문 열기가 둘째 잃음으로 이어지고, 매 맞는 밤과 딸들의 질문을 지나 부재 속에서 가장 정밀한 신랑 찬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로 닫히는 아가 둘째 골짜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5:1 정중앙 + 후렴 변형 + 3:1-5 평행·대조 + wasf 장르·신상 묘사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1의 잔치를 성례전이나 특정 교리의 그림으로 단정하지 않고, 4:16 초대와 1인칭 소유격 사슬·정중앙 위치의 관찰로만 둬.
- 5:7의 파수꾼 폭력을 제도 비판이나 알레고리(영적 지도자의 학대 등)로 봉합하지 않고, 3:3과의 대조와 본문의 무설명을 충격 그대로 보존.
- 5:10-16 신랑 찬가를 특정 인물의 신원 확정이나 신성 묘사로 닫지 않고, 부재 속에서 가장 정밀해지는 묘사의 역설로만 관찰.
- cholat ahavah(사랑의 병)를 신비주의 도식으로 확장하지 않고, 2:5와 5:8의 재등장 — 만남과 잃음 양쪽에 붙는 같은 병명 — 의 관찰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5장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bati legani)"(5:1)로 4:16의 초대가 권의 정중앙에서 잔치로 성취된 직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5:2)의 둘째 밤이 열려 — 옷과 발이라는 사소한 이유의 머뭇거림(5:3), 몰약이 흐르는 늦은 문 열기(5:5), "그는 벌써 물러갔네(chamaq avar)... 내 혼이 나갔구나(nafshi yatsah)"(5:6)의 잃음, 파수꾼들의 매(5:7), "사랑의 병(cholat ahavah)"의 부탁(5:8)과 딸들의 질문(5:9)을 지나 — 부재 속에서 가장 정밀한 신랑 찬가(5:10-16)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zeh dodi vezeh rei)"(5:16)로 닫히는, 아가 둘째 국면의 골짜기다.

한 문단: 동산의 잔칫상에서 시작한다. 몰약이 거두어지고 꿀송이가 쪼개지고 포도주와 우유가 차오르고, 화면 밖에서 축복이 들린다 — 먹으라, 많이 마시라. 빛이 찾아들고 밤이다. 감긴 눈과 깨어 있는 마음 위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오고, 문 밖의 목소리가 호칭을 네 겹으로 쌓는다 —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안에서는 작은 대답 — 옷을 벗었으니, 발을 씻었으니. 문틈으로 손이 들어왔다 사라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빗장에 닿는 손가락에서 몰약이 흘러내린다. 문이 열리면 빈 골목이다.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순찰자들의 매가 떨어지고 걸옷이 벗겨져 사라진다. 그 밤의 끝에서 신부는 딸들에게 부탁한다 —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질문이 돌아온다 — 네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어둠 속에 그림이 세워진다 — 순금의 머리, 검은 머리털, 우유로 씻은 비둘기 같은 눈, 꽃발 같은 뺨, 몰약 듣는 입술, 황옥 물린 손, 상아의 몸, 화반석 기둥 같은 다리. 없는 사람이 묘사 속에 온전히 서고, 마지막 호칭이 봉인된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동산 잔칫상 → 밤의 집 → 거리 → 증언대의 네 무대, 경첩마다 문. 흐르는 소품(꿀·포도주·몰약)에서 세워지는 재료(순금·상아·화반석)로.
2 첫 느낌·분위기	잔치와 밤의 나차. 잠과 깨어 있음의 동거. 셋째 목소리의 축복. 7절 폭력의 무설명. 서사에서 그림으로 넘어가는 9절의 경계.
3 시작과 끝	그가 '왔다'(1절)로 열리고 그가 '누구다'(16절)로 닫힘. 한가운데(6절)의 사라짐. 잃은 채로 하는 확신의 어미. 양끝이 공동체를 향해 열림.

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상	음성→손→부재→묘사 속 전신으로 등장하는 신랑. 후렴의 변형(깨우지 말라→전해 다오). 사소한 미롭이 만든 빈 문. 질문이 끌어낸 찬가.
5 장면 컷	잔치(1)/밤의 개막(2~5)/잃음과 매질(6~7)/부탁과 질문(8~9)/찬가(10~16)의 5컷. 3:1-5와 같은 순서, 더 어두운 결과.
6 의문·발견·정보	5:1의 정중앙 위치. 유일한 신랑 와스프가 부재 중에 불림. 꿈/생시의 흐려진 경계. 출처 없는 물약. rei — 호칭의 거울.
7 동영상	잔칫상 → 닫힌 문과 네 겹 호명 → 빈 골목과 매질 → 딸들의 질문 → 어둠 속에 세워지는 찬가 → "나의 친구로다", 암전.
8 초별 제목·부제	"빈 문 앞의 찬가 — 잃음이 낳은 가장 정밀한 노래"
9 기도·내면	사소한 이유 두 개(웃·발)와 잃은 뒤에야 그려지는 얼굴을 같이 들고, 더는 묻지 않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bati legani, 도착이 끝이 아닌 리듬**: 4:16의 초대("내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가 5:1의 완료("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로 응답되는 지점이 권의 정중앙 어렵이다. 책의 산마루에 잔치가 놓이고 "먹으라... 많이 마시라"의 축복이 얹히는데, 바로 다음 절부터 둘째 밤이 열린다. 도착이 이야기를 닫았다면 아가는 절반에서 끝났을 것이다. 성취 직후에 다시 갈망이 오는 이 배열 — 사랑이 정지된 소유가 아니라 계속 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본문은 명제가 아니라 구성으로 보여 준다.

2. **결 2 — 부재의 정밀함, 잃은 자를 그리는 찬가**: 이 책에서 남성을 항목별로 그리는 와스프는 5:10-16 한 번 뿐인데, 그 유일한 찬가가 그가 없는 동안 불린다. 함께 있던 1절에서는 겹호칭뿐이었는데, 잃고 매 맞은 밤의 끝에서야 머리부터 다리까지 열 항목이 — 순금과 상아와 청옥과 화반석의 어휘로 — 세워진다. 곁에 있을 때 다 말하지 못했던 얼굴이 부재 속에서 완성되는 역설. 그리고 그 묘사를 끌어낸 것이 딸들의 짓궂은 질문("나는 것이 무엇인가")이라는 점 — 사랑의 변증이 논증이 아니라 묘사로 제출된다.

3. **결 3 — 후렴의 굴절, 보호에서 수색으로**: 2:7과 3:5에서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던 맹세 형식이, 5:8에서 같은 수신자(예루살렘 딸들)를 향해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로 굴절된다. 사랑을 지키던 후렴이 사랑을 찾는 후렴이 되고, cholat ahavah(사랑의 병)는 2:5의 만남의 병에서 부재의 병으로 옮겨 붙는다. 같은 병명이 양쪽에 다 붙는다는 것 — 사랑은 함께 있어도 잃어도 앓는 것이라는 어휘의 증언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4:16 ↔ 5:1 — 초대의 청유와 도착의 완료가 권의 한가운데서 맞물림.
- 아 2:5 ↔ 5:8 — cholat ahavah. 만남의 병과 부재의 병에 붙는 같은 병명.
- 아 2:7·3:5 ↔ 5:8 ↔ 8:4 — 후렴의 본래 꼴, 굴절, 복귀.
- 아 3:1-5 ↔ 5:2-8 — 첫째 밤과 둘째 밤. 같은 순서(밤—찾음—순찰자—딸들), 다른 결과.
- 아 4:1-7 ↔ 5:10-16 — 신부 찬가와 신랑 찬가, 마주 보는 와스프.
- 아 5:9 ↔ 6:1-3 — 딸들의 질문이 함께 찾음("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으로 이어지는 고리.
- 아 8:6-7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 잃음으로 꺼지지 않은 이 밤이 그 인장의 예고.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5:1의 '나의' 여덟 번에서 시작한다 — 초대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듣는다. 잔치의 환함을 충분히 머금는다.
- 멈춤 1: 5:3에서 멈춘다 — 옷과 발. 내 미쁨의 이유들도 대개 이만큼 사소했다는 것을 안다.
- 멈춤 2: 5:6에서 멈춘다 — 빈 문, 나간 혼. 늦게 연 문 앞의 고요를 견딘다.
- 멈춤 3: 5:7에서 멈춘다 — 지키는 자들이 상하게 한 밤. 설명 없는 아픔을 설명하지 않은 채 둔다.
- 끝: 5:16에서 멈춘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잃은 채로 하는 단정, 그리고 '친구'라는 마지막 접의 무게를 준다.

F · 자족성 점검

- [x] 잔치(1)·밤의 개막(2~5)·잃음과 매질(6~7)·부탁과 질문(8~9)·찬가(10~16)의 다섯 단 완결
- [x] 4:16 초대와 5:1 응답의 맞물림 + 권 정중앙 위치
- [x] 후렴 변형(2:7·3:5 → 5:8)과 cholat ahavah의 재등장
- [x] 3:1-5와의 평행·대조(첫째 밤/둘째 밤)
- [x] 유일한 신랑 와스프의 부재 속 발화 + rei 호칭의 봉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름(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음(4~7장),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둘째 국면의 골짜기 — 권의 정중앙에 베풀어진 잔치(5:1) 바로 다음에 가장 어두운 밤이 오는 곳이다. 머뭇거림이 빈 문을 만들고, 찾음이 매질로 돌아오고, 지키는 자들이 상하게 하는 밤 — 본문은 이 어둠을 줄여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골짜기가 사랑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5장의 좌표다. 잃음 다음에 장에서 가장 길고 빛나는 말(찬가)이 오고, 매 맞는 입이 가장 확신에 찬 선언("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을 한다. 끝 수 없는 사랑(8:7)은 밝은 날의 구호가 아니라 이런 밤을 통과한 사랑의 결산임을, 5장이 몸으로 미리 보여 준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거듭 부르시는 음성(권의 heart)이 이 장에 서는 네 겹 호명(5:2)으로 문 밖에 서 있고 — 문이 늦게 열려도 그 호명 자체는 철회되지 않은 채 책의 뒤편으로 이어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대의 성취(5:1 bati legani)에서 둘째 밤의 새 갈망(5:2)으로 / 사소한 머뭇거림(5:3)에서 빈 문과 나간 혼(5:6)으로 / 매 맞는 잃음(5:7)에서 부재 속의 가장 정밀한 찬가(5:10-16)와 '나의 친구'(5:16)라는 봉인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도착이 끝이 아님'을 통과시키는 운동이다. 산마루의 잔치가 골짜기의 밤으로 이어지지만, 그 밤이 사랑의 언어를 침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깊게 만든다. 딸들의 질문(5:9)이 찬가를 끌어내고, 찬가가 다음 장의 함께 찾음(6:1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을 끌어낸다 — 잃음의 증언이 듣는 이들을 수색대로 바꾸는 연쇄다. 5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갈망의 골짜기에서 끝 수 없는 인장(8:6-7)으로' 밀고 가는 긴 운동의 가장 깊은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실패의 기록이다 — 늦게 열었고, 못 만났고, 맞았고, 빼앗겼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 직인다. 첫째, 잃음의 입구가 사소하다는 정직이 있다. 큰 배신이 아니라 벗어 둔 옷과 씻은 발 — 본문은 머뭇 거림의 이유를 부풀리지도 꾸짖지도 않고, 그 사소함이 만든 빈 문을 그대로 보여 준다. 둘째, 부재가 묘사를 완성한다. 함께 있을 때 겹호칭으로 충분했던 그 사람이, 잃고 나서야 열 항목의 전신으로 그려진다 — 사랑의 시력은 어둠 속에서 더 정밀해진다는 역설이, 설명 없이 배열로만 제시된다. 셋째, 매 맞은 밤에 대한 본문의 무설명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상하게 하는 모순을 본문은 정당화하지도 해설하지도 않는다 — 그 침묵은 어 둠을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어둠에게 마지막 말을 주지 않는 침묵이다. 장의 마지막 말은 폭력이 아니라 찬가 이고, 상처가 아니라 호칭이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이 장에서는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고 있다 — 잃음 한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사소한 이유로 문 열기를 미루었는가. 그리고 잃고 나서야 정밀해진 내 그리움은 — 지금 누구를, 열 항목으로 그릴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머뭇거림을 정죄하지 않고, 매 맞은 밤을 미화하지 않고, 다만 보여 준다 — 빗장에 흐른 물약을, 빈 골목을, 그리고 어둠 속에 세워지는 찬가를. 늦게 닿은 손에도 향이 남아 있었 고, 응답 없는 부름 뒤에도 노래가 남아 있었다. 잃음이 사랑을 끝내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깊어지는 곳 일 수 있다면, 독자는 자기 빈 문 앞의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 볼 수 있다. 그 문 앞에서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 — 그것이 이 장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치는 운동 한 줄: 찬가를 들은 딸들이 수색대가 된다 —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6:1), 그리고 신부는 비로소 답한다 — "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6:2).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zeh dodi vezeh rei* —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미해결 질문

아가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5:1 끝의 "먹으라... 많이 마시라" — 누가 말하는가?

- 신랑이 친구들에게 건네는 권면인지, 잔치 밖의 셋째 목소리가 두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지 본문이 밝히지 않는다. 발화자가 비어 있는 복수 명령 — 권의 정중앙에 놓인 축복의 출처를 비워 둔 채 보존.

Q2. 5: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 꿈인가 생시인가?

- 잠든 채 들은 밤인지 깨어 누운 밤인지, 3:1의 첫째 밤과 함께 경계가 일부러 흐려져 있다. 명사문(*ani yeshenah velibbi er*)의 동시성 자체가 답을 막는다. 보존.

Q3. 5:5 빗장의 물약 — 누가 남긴 것인가?

- 그가 문 손잡이에 남기고 간 표지인지, 그녀가 일어나며 바른 향인지 출처가 없다. 어느 쪽으로 읽느냐에 따라 문 앞의 그림이 달라지지만 본문은 닫지 않는다. 보존.

Q4. 5:7 파수꾼들은 왜 때리는가 — 그리고 본문은 왜 설명하지 않는가?

- 3:3의 중립적 순찰자들과 같은 직책이 여기서는 치고 상하게 하고 겹옷을 벗겨 간다. 야간 단속의 사회상이 배경에 있다 해도, 본문이 이유·평가·위로 없이 한 절로 지나가는 무설명 자체가 질문이다. 충격을 해석으로 덮지 않고 보존.

Q5. 5:8 후렴의 변형 — "깨우지 말라"가 왜 "전해 다오"가 되는가?

- 2:7·3:5의 맹세 형식이 같은 수신자(예루살렘 딸들)를 향해 다른 내용으로 굴절된다. 보호의 후렴과 수색의 후렴 사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 8:4의 복귀까지 열어 두고 이월. 보존.

Q6. 5:16 rei(나의 친구) — 연인의 사전에 우정 어휘가 들어오는 이 위치는 무엇인가?

- 신랑의 호칭 rayati의 남성형이 신부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곳이 잃음의 끝, 찬가의 봉인이다. dodi(사랑하는 자)에 rei(친구)가 덧붙는 이 마지막 겹의 무게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6장

SNG-006 · 시가서 · 히브리어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6:1)는 딸들의 둘째 질문에 신부가 그의 거처를 이미 알고 답하고(6:2),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ani ledodi vedodi li*)"(6:3)로 소속 선언의 어순이 뒤집히며, 왕비 육십·후궁 팔십·무수한 시녀 가운데 "하나뿐(*achat hi*)"(6:9)의 유일성이 세워지는 — 잃음의 밤이 끝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재회의 장.

관찰된 사실

아가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빛: 위치가 지워진 대화의 무대(1~3절) → 직유가 만드는 찬가의 무대 — 디르사·예루살렘·군기·길르앗·천체(4~10절) → 호두 동산 — 골짜기·포도나무 순·석류 꽃(11~12절) → 춤의 무대 — 마하나임(13절).
- 5장의 무대 장치(밤거리·성벽·파수꾼)가 전부 사라짐. 어둠 어휘 0 — 처음부터 끝까지 빛 속에서 진행.
- 소품: 백합화(2·3절), 향기로운 꽃밭(향단), 양 떼(두 번), 염소 떼·암양 떼·석류(찬가), 왕실 명부(육십·팔십·무수), 호두(구약 1회), 수레, 춤.
- 직유의 재료 두 갈래: 위엄 — 도시·군대·깃발·아침 빛·달·해 / 목가 — 동산·꽃·양 떼·과일. 같은 한 사람 위에 겹침.
- 형식의 뼈대: 질문 둘(1절 — 그는 어디에 / 10절 — 그녀는 누구인가)과 사중 명령(13절 — 돌아오라 네 번).
- 5:9와 6:1의 호칭 동일("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 호칭은 그대로, 질문의 속만 비교에서 동행으로 바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아침의 공기 — 5장의 밤이 한 절도 지나기 전에 끝나 있음. "함께 찾으리라"는 동행의 말투.
- 2절에서 놓이는 숨 — 그가 어디 있는지 신부가 알고 있었다는 안도.
- 9절 "하나뿐" — 육십·팔십·무수의 계단이 갑자기 단수에서 멈추는 무게. 수가 클수록 하나가 무거워짐.
- 감각의 전환: 5장의 촉각(물약 묻은 손·문빗장·상처)에서 6장의 후각·시각(향단·백합·천체)으로.
- 다급함 없음 — 신부의 대답은 한 문장의 차분함. 흔들린 다음의 선언(6:3)이 흔들리기 전(2:16)보다 단단한 결.
- 5a절의 멈칫 — 칭송하러 입을 연 사람이 먼저 압도당하는 역전("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 발화 분포: 신부의 말은 2~3절뿐. 6장은 신부가 듣는 장 — 자기를 두고 오가는 칭송을 듣는 위치(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 질문으로 열고 질문으로 닫힘. 여는 질문은 '그가 어디에', 닫는 질문은 '어찌하여 그녀를 보려는가' — 찾는 대상이 신랑에서 신부로 이동.
- 동사의 이동: "찾으리라"(잃은 이에게)에서 "돌아오라"(떠난 이에게)로 — 잃음의 어휘가 부름의 어휘로.
- 부재로 열어 주목으로 닫는 구성. 그 길의 한복판에 8~9절의 '하나뿐'이 놓임.
- 5:9(비교의 질문) → 6:1(동행의 질문): 사이에 놓인 것은 5:10-16의 찬가 하나 — 6장의 시작 자체가 5장의 결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부(1절 수신자, 2~3절 화자, 13절의 술람미), 신랑(4~10절 화자, 자기 동산의 목자), 예루살렘 딸들(1절 '우리' — 동행 제안자), 왕비 욱십·후궁 팔십·무수한 시녀(언급으로만), 어머니(9절 — 외딸을 귀중히 여기는 이), 여자들·왕비·후궁들(칭찬하는 목소리), 13절의 '우리'. 적대자 없음 — 5장의 파수꾼 같은 인물이 사라짐.
- 중심 사상: 상호 소속 — ani ledodi vedodi li(6:3). 2:16("그는 내게, 나는 그에게")과 어순이 뒤집힘 — 내가 먼저, 그가 나중.
- 6:2의 정보 구조: 5장 내내 찾던 신부가 그의 거처(자기 동산·향기로운 꽃밭·백합화 가운데)를 정확히 말함 — 잃음이 위치를 모르는 잃음이 아니었음.
- 동산 어휘의 연속: 4:16~5:1의 "내 동산"·"그의 동산"이 6:2의 "자기 동산"으로 이어짐 — 그가 내려간 곳이 이미 그들의 언어 안에 있던 곳.
- 백합화의 회복: 2:16의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 그림이 6:2~3에 두 번 반복 — 재회가 확인하는 것은 새 모습이 아니라 원래 알던 모습.
- 9절의 두 셈법: 궁정의 셈(육십·팔십·무수) 곁에 어머니의 셈(처음부터 하나) — 그리고 가장 큰 무리가 가장 작은 수를 칭찬함.
- barah의 이어달리기: 9절(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순전한)의 단어를 10절(해 같이 맑은)이 받음 — 어머니의 단어가 전체 직유로 격상.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절): 딸들의 둘째 질문 —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비교(5:9)에서 동행으로.
- 컷 2 (2~3절): 신부의 대답과 선언 — 그의 거처(자기 동산·꽃밭·백합화)와 ani ledodi vedodi li.
- 컷 3 (4~10절): 신랑의 찬가 — 도시·군기(4), 시선 회피(5a), 축약 변주 — 머리털·이·뺨(5b~7), 수의 대비(8~9), 천체의 질문(10).
- 컷 4 (11~12절): 호두 동산 — 골짜기의 초목·포도 순·석류 꽃, 그리고 부지중의 수레(난해절).
- 컷 5 (13절): 사중의 부름 —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 마하나임 춤의 질문.
- 컷 3 내부의 상승 사다리: 땅의 도시(4) → 목가(5b~7) → 궁정의 수(8~9) → 하늘의 천체(10). 4절과 10절이 ayummah kannidgalot으로 수미 — 찬가 전체가 군사 직유의 괄호 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nah halakh*(הלך אנה) — 어디로 갔는가(6:1). 둘째 물음은 동사가 *panah*(돌이키다)로 변주 — "어디로 돌아 갔는가".
- *ani ledodi vedodi li*(לִי לְדוּדִי וְדוּדִי לִי) —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6:3). 2:16은 *dodi li va'ani lo* — 순서가 반대.
- *Tirtsah*(תִּרְצָה) — 디르사(6:4). 어근 *ratsah*(기뻐하다·받아들이다). LXX는 *ὡς εὐδοκία*(기쁨처럼) — 고유명사로 읽지 않은 갈래.
- *ayummah kannidgalot*(אֵיּוּמָה כַּנִּידְגָּלוֹת) —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6:4·10). *ayom*은 위엄·두려움을 일으킴, *nidgalot*은 *degel*(깃발) 어근 — 민수기 2장의 진영 어휘와 같은 뿌리.
- *hirhivuni*(הִרְחִיבֵנִי) — 나를 압도하다·동요시키다(6:5). 4:9 "네 눈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와 호응.
- *achath hi*(אֶחָת הִיא) — 하나뿐인 그녀(6:9). 한 절에 *achath* 두 번 — "하나뿐이로구나" + "어머니의 외딸(하나)".
- *barah*(בָּרָה) — 순전하다·택함받다. 9절(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과 10절(해 같이 맑고)에 연달아 — 두 절을 잇는 어휘 고리.
- 6:10의 천체 별칭 — 아침 빛 *shachar* / 달 *levanah*('흰 것') / 해 *chammah*('뜨거운 것'). 일반어 *yareach·shemesh* 대신 시적 명칭. 같은 짝이 사 24:23, 30:26에 등장.
- *egoz*(עֵגוֹז) — 호두(6:11). 구약 전체에서 이 절에만 나오는 단어.
- *markevot ammi-nadiv*(מַרְכָּבוֹת עַמִּי נָדִיב) — 6:12. '내 귀한 백성의 수레'(개역) / '아미나답의 병거'(KJV·LXX) / '귀한 자의 병거'(현대역 일부) — 번역 갈래 자체가 난해의 기록.
- *Shulammit*(שׁוֹלָמִית) — 솔람미(6:13). 구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호칭. 솔로몬의 여성형 / 솔람·수넴 지명 / *shalom*의 결 — 세 갈래.
- *shuvi*(שׁוּבִי) — 돌아오라, 13절에 네 번. *chazah*(חָזָה) — 응시하다, 두 번. *mecholat hammachanayim*(מְחוֹלַת הַמַּחְנָיִם) — 마하나임의 춤 또는 '두 진영의 춤'.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질문(1) + 대답·선언(2~3) + 찬가(4~10) + 동산 장면(11~12) + 사중 부름(13) — 다섯 단의 재회 구조.
- 소속 선언의 세 변주: 2:16(그가 먼저) → 6:3(내가 먼저) → 7:10(소유 어휘 일부가 사모로 대체) — 권 전체에 걸쳐 한 문장이 자라남. 6:3은 그 변곡.
- 수의 점층과 단수의 절정: 육십 → 팔십 → 무수 → **하나**. 명부의 어법을 쓰되 산수의 방향을 뒤집음. 왕상 11:3(칠백·삼백)과 다른 수 — 배경.
- *mi-zot*(이는 누구인가) 시리즈: 3:6(연기 기둥처럼) · 6:10(천체처럼) · 8:5(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 권을 가로지르는 세 번의 같은 질문, 6:10은 그 둘째.
- *wasf* 변주 비교: 4:1~3(눈·머리털·이·입술·뺨) 對 6:5b~7(머리털·이·뺨) — 눈은 5a절의 "보지 말라"로 격상되고 입술은 생략. 반복이되 축약, 축약이되 한 항목은 격상.
- 4절과 10절의 *ayummah kannidgalot* 수미 — 찬가가 같은 군사 직유로 열리고 닫힘.
- 13절의 사중 명령(*shuvi* 네 번)과 이중 응시(*chazah* 두 번) — 부름과 시선의 밀도가 권 안에서 가장 높은 절 중 하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디르사 — 북왕국 초기 수도(여로보암~오므리, 왕상 14:17; 16:23-24 — 오므리가 6년 뒤 사마리아 건설). 예루살렘과의 병치는 남북 두 수도의 짝 — 연대 논쟁은 본문 밖, 배경.
- wasf — 신체를 차례로 칭송하는 근동 혼인시 장르. 4:1~7, 5:10~16에 이어 6:5b~7이 셋째 변주 — 배경.
- 근동 왕실의 후궁 명부 — 후궁의 수로 왕의 위세를 과시하는 관행. 6:8은 그 어법을 빌려 '하나'를 세우는 데 씀 — 배경.
- 마하나임 — 요단 동편 지명. 창 32:2(야곱 —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삼하 2:8(이스보셋의 거점), 삼하 17:24(다윗의 피난처) — 배경.
- LXX: Tirtsah → εὐδοκία(기쁨), 6:12 → 아mina답의 병거(인명 독법), Shulammit → Σουλαμίτις 음역, 마하나임 춤 → χοροὶ τῶν παρεμβολῶν(진영들의 춤)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6:3 ↔ 아 2:16 ↔ 아 7:10 (소속 선언의 세 변주 — 어순의 여정)
- 아 6:1 ↔ 아 5:9 (딸들의 두 질문 — 비교에서 동행으로)
- 아 6:5b-7 ↔ 아 4:1-3 (찬가의 원본과 축약 변주)
- 아 6:2 ↔ 아 4:16-5:1 (동산 어휘의 연속 — '내 동산'과 '그의 동산')
- 아 6:10 ↔ 아 3:6 · 8:5 (mi-zot — 이는 누구인가 세 번)
- 아 6:9 ↔ 아 8:6-7 (하나뿐인 유일성 ↔ 인장 — 권의 행선지)
- 아 6:13 ↔ 창 32:2 (마하나임 — 두 진영, 배경)
- 아 6:4 ↔ 왕상 14:17 · 16:23-24 (디르사 — 북왕국 수도, 배경)
- 아 6:13 ↔ 출 15:20 (mecholah — 미리암의 춤 어휘,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침이다. 딸들이 신부를 둘러싸고 묻는다 —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따지던 목소리가 동행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다. 신부가 답한다 —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단의 향이 번지고 흰 백합 사이로 양 떼가 움직인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장면이 바뀌어 그가 그녀를 본다 — 디르사 같이, 예루살렘 같이, 깃발 든 행렬 같이. 그가 눈을 가린다 —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보지 말라. 염소 떼가 기슭을 흘러내리고 암양 떼가 줄을 잇고 너울 너머 석류가 붉다. 궁정의 명부가 펼쳐진다 — 육십, 팔십, 셀 수 없음. 그 위로 손가락 하나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 —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어머니의 얼굴이 스치고 왕비들이 일어나 그녀를 기린다. 하늘이 묻는다 — 아침 빛 같고 달 같고 해 같고 군대 같은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로 내려간다 — 호두 동산, 포도 순, 석류 꽃. 그리고 한순간, 알 수 없는 사이에, 수레들 한가운데. 무리가 외친다 —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빙글도는 춤 위에서, 정지.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하나뿐 — 잃음이 얇으로 끝나는 장"
- 초벌 부제: "딸들의 둘째 질문(6:1)이 동행 제안으로 바뀌고, 신부가 그의 거처를 이미 알며(6:2), 소속 선언의 어순이 뒤집히고(6:3 ani ledodi vedodi li), 육십·팔십·무수 가운데 '하나뿐(achat hi)'이 세워진 뒤(6:9), 풀리지 않는 수레(6:12)를 지나 '돌아오라' 네 번의 부름(6:13)으로 닫히는 재회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2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단 재회 구조 + 소속 선언 세 변주 + 수의 점층 대비 + 디르사·마하나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3의 상호 소속을 언약 신학의 교리 진술로 단정하지 않고, 2:16↔6:3↔7:10의 어순 변화라는 본문 형태의 관찰로만 둬.
- 6:2의 동산을 알레고리(교회·성전 등)로 풀지 않고, 4:16~5:1 어휘 연속의 관찰로 보존.
- 6:12를 어느 한 번역으로 봉합하지 않고, '내 귀한 백성의 수레 / 암미나답의 병거 / 귀한 자의 병거'의 갈래를 미해결로 이월.
- 술람미를 특정 인물(수넴 여인 아비삭 등)로 확정하지 않고, 세 어원 갈래만 제시.
- 6:9의 '하나뿐'을 결혼 규범의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수의 대비가 만드는 유일성의 시학으로 관찰.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6장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6:1)는 딸들의 둘째 질문에 신부가 그의 거처를 이미 알고 답한 뒤(6:2 — 자기 동산, 백합화 가운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ani ledodi vedodi li)"(6:3)로 2:16의 어순을 뒤집고, 디르사·예루살렘·군기·천체의 직유로 상승하는 신랑의 찬가(6:4-10) 한복판에서 왕비 육십·후궁 팔십·무수한 시녀와 맞세워진 "하나뿐(achat hi)"(6:9)이 세워지며, 구약 최난해 절로 꼽히는 수레(6:12)를 지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6:13)라는 사중의 부름으로 닫히는 — 잃음의 밤이 끝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재회의 장이다.

한 문단: 아침이다. 5장의 밤거리와 파수꾼이 사라진 화면에서 딸들이 신부를 둘러싸고 묻는다 —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따지던 목소리(5:9)가 동행의 목소리로 바뀌어 있다. 신부가 조용히 답한다 —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백합화 가운데에. 잃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거처를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 어순이 바뀐 선언이 흔들림 뒤의 단단함으로 놓인다. 그가 그녀를 본다 — 디르사 같이, 예루살렘 같이, 깃발 든 군대 같이 — 그러다 눈을 가린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염소 떼와 암양 떼와 석류의 변주가 지나가고, 궁정의 명부가 펼쳐진다 — 육십, 팔십, 셀 수 없음. 그 모든 수 위로 한 손가락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 —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 어머니가 귀중히 여기던 그 사람을 왕비와 후궁들이 일어나 기리고, 하늘의 직유가 묻는다 — 아침 빛 같고 달 같고 해 같은 여자가 누구인가. 호두 동산

의 골짜기에서 알 수 없는 수레로 옮겨지는 한 절(6:12)을 지나, 무리가 외친다 —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빙글 도는 춤 위에서 6장이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어둠 어휘 0의 네 무대(대화—찬가—호두 동산—춤). 백합화·향단·명부·호두(구약 1회). 위엄과 목가의 직유가 한 사람 위에 겹칩.
2 첫 느낌·분위기	안도의 아침 공기. 수가 클수록 무거워지는 '하나'. 촉각(5장)에서 후각·시각으로. 흔들린 뒤에 더 단단해진 선언.
3 시작과 끝	질문으로 열고 질문으로 닫힘 — '그가 어디에'에서 '어찌하여 그녀를 보려는가'로. 찾음의 어휘가 부름의 어휘로. 부재에서 주목으로.
4 등장인물·사상	적대자 없는 장. 중심 사상은 상호 소속(6:3 — 2:16의 어순 역전). 6:2의 앓 — 앓음이 무지가 아니었음. 궁정의 샘과 어머니의 샘.
5 장면 컷	질문(1)/대답·선언(2~3)/찬가(4~10)/호두 동산(11~12)/부름(13)의 5컷. 찬가 내부는 도시→목가→수→천체의 상승, 4·10절 군사 직유 수미.
6 의문·발견·정보	소속 선언 세 변주(2:16→6:3→7:10). barah의 9→10절 이어달리기. wasf 축약 변주(눈·입술의 거취). 6:12 난해절. 디르사·마하나임 배경.
7 동영상	동행의 질문 → 동산의 대답 → 상승하는 찬가와 '하나뿐' → 알 수 없는 수레 → 사중의 부름, 춤 위에서 정지.
8 초별 제목·부제	"하나뿐 — 앓음이 앓으로 끝나는 장"
9 기도·내면	앓은 줄 알았던 이의 거처를 알고 있던 사람을 본다. 하나를 하나라 부르는 목소리 곁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어순의 역전, 자라나는 선언:**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6:3). 2:16에서는 그가 먼저였고 내가 나중이었다. 앓음의 밤(5장)을 한 번 통과한 선언은 자기를 먼저 내놓는 순서로 다시 발화되고, 7:10에 이르면 뒷부분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로 바뀐다. 같은 문장이 권을 가로지르며 세 번 자라난다 — 본문은 그 변화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만 어순을 기록해 둔다. 기록된 어순 자체가 앓음 이후의 사랑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 주는 좌표다.
- 결 2 — 유일성의 산수:** 육십, 팔십, 셀 수 없음 — 그리고 하나(6:8-9). 근동 궁정이 위세를 말하던 명부의 어법을 본문은 거꾸로 쓴다. 수를 쌓는 이유가 수의 자량이 아니라 그 전부와 맞세워질 단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다. achat hi — 하나뿐인 그녀. 어머니에게 외딸(하나)이었던 사람이 왕비와 후궁의 입에서도 복된 자로 불리고, 9절의 barah(순전한)가 10절의 barah(해 같이 맑은)로 이어지며 어머니의 단어가 천체의 직유로 들어 올려진다. 무수가 하나를 인정하는 산수 — 이 유일성이 8장의 인장(8:6)으로 가는 길을 미리 연다.
- 결 3 — 질문의 여정, 증언이 움직인 공동체:** 5:9의 "그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와 6:1의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이에는 논증이 없다. 놓인 것은 신부의 찬가(5:10-16) 하나다. 비교하던 딸들이 동행을 청하는 무리로 바뀌고, 6:10에서는 그 무리의 입이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우리들의 질문을 발화한다. mi-zot 시리즈(3:6-6:10·8:5)의 둘째 — 한 사람의 사랑 증언이 결의 무리를 움직이는 흐름이, 설명 없이 두 질문의 병치만으로 기록되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2:16 · 7:10 — 소속 선언의 첫 변주와 셋째 변주 — 6:3이 그 변곡.
- 아 5:9 — 딸들의 첫 질문 — 6:1과 나란히 두면 찬가 하나가 무엇을 바꿨는지 드러남.
- 아 4:1-3 — 찬가의 원본 — 6:5b-7의 축약 변주와 대조.
- 아 4:16-5:1 — "내 동산"·"그의 동산" — 6:2의 동산 어휘가 잇는 출처.
- 아 8:6-7 —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 — '하나뿐'(6:9)의 유일성이 향하는 행선지.
- 창 32:2 — 마하나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두 진영 — 6:13의 춤 배경.
- 왕상 14:17 · 16:23-24 — 디르사, 북왕국 초기 수도 — 6:4 직유의 배경.
- 출 15:20 — 미리암의 mecholah — 6:13 춤 어휘의 계보,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6:1에서 시작한다 — 파지던 입이 "함께 찾으리라"로 바뀌는 것을 듣는다. 무엇이 이들을 바꿨는지 한 장 앞을 돌아본다.
- 멈춤 1: 6:2에서 멈춘다 — 잃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거처를 말한다. 내 잃음들 가운데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센다.
- 멈춤 2: 6:3에서 멈춘다 — ani ledodi. 내 소속 선언은 어느 어순인지, 흔들림이 그 어순을 바꾼 적이 있는지 묻는다.
- 끝: 6:9와 6:13 사이에서 멈춘다 — 하나뿐이라 불린 사람이 한 번뿐인 이름으로 불린다. 돌아오라 네 번 — 부름받는 쪽에 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질문(1)·대답과 선언(2~3)·찬가(4~10)·호두 동산(11~12)·부름(13)의 다섯 단 완결
- [x] 5:9 → 6:1 질문 연쇄와 2:16 → 6:3 어순 역전의 권내 호응
- [x] 육십·팔십·무수 對 하나의 수 대비와 barah 9→10절 고리
- [x] 4·10절 ayummah kannidgalot 수미와 mi-zot 시리즈 위치
- [x] 6:12 난해절과 술람미 호칭의 미해결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 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르는 국면(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는 국면(4~7장),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6장은 둘째 국면의 전환점 — 5장의 잃음이 끝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재회의 장이다. 그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잃음은 수색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앎의 확인으로 끝난다 — 그가 어디 있는지 신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6:2). 그리고 그 앎 위에서 소속 선언의 어순이 뒤집힌다(6:3) — 그가 먼저였던 문장이 내가 먼저인 문장으로.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무수한 수 가운데 '하나뿐'(6:9)을 세우는 이 장의 산수는 8장의 인장이 요구하는 유일성의 전주다 — 도장은 하나의 손에만 속하고, 많은 물로도 끝 수 없는 사랑은 여럿으로 나뉘지 않는다. 6장이 육십과 팔십과 무수를 다 세워 놓고 하나에서 멈추는 이 유가, 두 장 뒤의 인장에서 무게를 갖는다.

비교하던 질문(5:9)에서 동행하는 질문(6:1)으로 / 찾음에서 앎으로(6:2), 앎에서 뒤집힌 선언으로(6:3) / 무수한 수에서 하나로(6:8-9) / 잃었던 사람에서 모두가 돌아오라 부르는 사람으로(6:13).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잃음의 밤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 주는 운동이다. 끝나는 방식은 극적인 재발견이 아니라 조용한 확인이다 — 그는 줄곧 자기 동산에, 백합화 가운데에, 처음 알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6:2-3 ↔ 2:16). 재회가 회복인 이유다. 그리고 이 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13절의 사중 부름이 그녀를 무대의 한가운데로 끌어오고, 7장의 셋째 찬가가 춤추는 그녀의 발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며, 선언의 셋째 변주(7:10)와 인장의 청원(8:6)으로 이어진다. 6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갈망의 왕복에서 유일한 소속의 확정으로' 끌고 가는 운동의 가운데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쌍의 재회담이다 — 묻고, 답하고, 칭송하고, 부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증언의 힘이다. 딸들을 바꾼 것은 논증이 아니라 5장 끝의 사랑 고백 하나였다 — 비교하던 무리가 "함께 찾으리라"는 무리로 바뀌고, 끝내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는 우려름의 입이 된다. 사랑의 말이 결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경로가 이 장의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둘째, 잃음의 정체다. 5장의 잃음은 위치를 모르는 잃음이 아니었다 — 6:2가 그것을 드러낸다. 잃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앎은 끊기지 않았고, 그 앎이 확인되는 순간 선언은 전보다 단단한 어순으로 돌아온다. 셋째, 시선의 역설이다. 사랑받는 자의 눈은 사랑하는 이를 압도하고(6:5), 같은 사람의 모습은 무리의 시선을 모은다(6:13). 감당 못 할 것과 보고 싶은 것이 같은 한 사람 — 본문은 이 역설을 풀지 않은 채, 보지 말라는 목소리와 보게 하라는 목소리를 한 장 안에 같이 살려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잃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내 소속 선언은 어느 어순으로 발화되는가 — 그가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그리고 셀 수 없는 수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뿐'이라 부르는 목소리를 나는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재회의 공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잃음의 밤을 지나온 한 사람이 그의 거처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흔들림 뒤의 선언이 자기를 먼저 내놓는 순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들려주고, 육십과 팔십과 무수를 다 세운 다음 하나에서 멈추는 산수를 펼쳐 놓는다. 잃음이 끝나는 길이 수색의 성공이 아니라 앎의 확인이라면, 독자는 자기 잃음의 한복판에서도 끊기지 않은 앎을 더듬어 볼 수 있다 — 그 더듬음이 이 장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돌아오라는 사중의 부름에 응답한 술람미의 춤 위로 셋째 찬가가 열린다 —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7:1), 이번에는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노래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chat hi* — 하나뿐인 그녀.

미해결 질문

아가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6:12 —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절로 꼽히는 본문. 화자가 신랑인지 신부인지, ammi-nadiv가 '내 귀한 백성'인지 인명(암미나답)인지 '귀한 자'인지, 수레가 영광의 병거인지 끌려감의 그림인지 — 어느 갈래도 확정되지 않는다. 선명한 것은 '부지중에(lo yadati)'뿐 — 본인도 모르게 옮겨졌다는 것. 갈래 전부를 미해결로 보존.

Q2. Shulammit(6:13) — 한 변뿐인 이 호칭은 이름인가 별칭인가?

- 솔로몬(Shlomo)의 여성형 독법, 술람·수넴 지명 독법, shalom(평화·온전함)의 결 독법이 같린다. 권 전체에서 그녀가 호칭을 받는 유일한 지점이 왜 여기인지 — 하나뿐이라 불린 직후라는 위치까지만 관찰하고 보존.

Q3. 6:2 — 신부는 언제부터 그의 거처를 알고 있었는가?

- 5장 내내 찾아 헤매던 사람이 6:2에서 거처를 정확히 말한다. 5장의 잃음과 6:2의 앓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본문은 비워 둔다 — 5:10~16의 찬가를 부르는 동안 떠올린 것인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인지. 비워진 채로 보존.

Q4. 마하나임 춤(6:13) — 지명인가 '두 진영의 춤'인가, 그리고 묻는 '너희'는 누구인가?

- Machanayim은 창 32:2의 지명이면서 '두 진영'이라는 보통명사 그림을 품는다. LXX는 '진영들의 춤'으로 풀었다. 그리고 13절 후반의 질문이 보라는 권유인지 가벼운 항의인지, 묻는 입이 신랑인지 무리인지 — 갈래 보존.

Q5. 2:16 → 6:3 → 7:10 — 소속 선언의 어순은 왜 움직이는가?

- 그가 먼저였다가, 내가 먼저가 되고, 끝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로 변한다. 잃음의 밤(5장)을 통과한 직후의 변화라는 위치 관찰까지만 두고, '성숙'이라는 이름 붙이기는 서두르지 않는다. 보존.

Q6.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6:5) — 찬가 한가운데의 시선 회피는 무엇인가?

- 4:9에서는 같은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고, 6:5에서는 "나를 놀라게" 한다. 칭송하는 자가 칭송받는 자에게 압도되는 역전 — 그리고 13절에서는 무리가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고 청한다. 피하는 시선과 모으는 시선이 한 장에 같이 있는 이유는 단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7장

SNG-007 · 시가서 · 히브리어

발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셋째 찬가(7:1-5)의 꼭대기에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라는 역전이 일어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teshuqah*)"(7:10)라는 셋째 소속 선언과 함께 신부가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7:11)며 초대 주체로 서는 — 사모함의 방향이 바뀌는 장.

관찰된 사실

아가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세 무대의 동선: 잔치 마당(1~5절, 6:13의 춤 문맥에 이어 낮은 시선에서 출발) → 과수원(6~9절, 종려나무) → 새벽의 들·동네·포도원·문 앞(11~13절). 닫힌 공간에서 열린 들로.
- 몸 위의 지도: 헤스본(요단 동편)·다메섹(북동)·레바논(북)·갈멜(서북) — 한 사람을 그리는 직유에 이스라엘 지경 전체가 깔림.
- 소품(잔치·몸): 신, 구슬 꿰미, 섞은 포도주의 둥근 잔, 백합화 두른 밀단, 암사슴 쌍태 새끼, 상아 망대, 연못, 레바논 망대, 갈멜 산, 자줏빛 머리채.
- 소품(과수원·들): 종려나무와 열매송이, 포도송이, 사과 냄새, 좋은 포도주, 포도 움, 꽃술, 석류 꽃, 합환채, 문 앞의 새 열매와 묵은 열매.
- 소재의 결: 앞 절반은 몸, 뒤 절반은 땅 — 몸을 그릴 때 땅(잔·밀단·연못·산)이 동원되고, 들로 나갈 때 몸이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감. 코와 혀의 감각이 장 전체에 깔림.
- 첫 호칭 bat-nadiv(귀한 자의 딸) — 1장의 별에 그을린 포도원 일꾼보다 높은 데서 출발하는 호명.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7:5의 충격 — 칭송의 정점에서 매이는 쪽은 왕. 군대도 사슬도 아닌 머리채 한 가닥에. 찬가의 꼭대기가 항복 선언처럼 읽힘.
- 박자의 전환: 1~5절은 직유가 정거장마다 걸리는 느린 응시, 11~12절은 가자·유숙하자·일어나자·보자의 청유형 연쇄 — 새벽 발걸음의 속도.
- 9b절의 이중창: 그의 직유(입=좋은 포도주)가 끝나기 전에 그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흘려보냄.
- 그늘 없음: 3·5장의 밤(없음·상처)과 달리 두려움의 동사 0건 — 5장 이후의 장이므로 회복된 환함.
- 냄새와 맛의 장: 사과 냄새(8절), 합환채의 향기(13절), 섞은 포도주(2절)·좋은 포도주(9절), 곳간 문 앞의 새 것과 묵은 것.
- 10절 어순: ani ledodi vealay teshuqato — '나'에서 출발해 '그의 사모함'이 내게로 돌아오는 왕복의 모양 —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mah-yafu pe'amayikh)."
- 13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구나(tsafanti lakh)."
- 받는 칭송으로 열려 주는 저장으로 닫힘 — 같은 사람의 동사가 수동(보여짐)에서 능동(마련함)으로 건너감.
- 화자 분포: 앞 절반(1~9a)은 그의 목소리, 뒤 절반(9b~13)은 그녀의 목소리 — 마이크가 장 한가운데서 한번 넘어감.
- 감탄 의문("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으로 열려 펼쳐 보이는 종결("것이로구나")로 닫힘.
- 2:10-13(신랑의 초대)과 7:11-12(신부의 초대)가 같은 어휘(함께 가자·포도원·꽃·향기)로 마주 봄 — 다섯 장에 걸친 화답.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랑(1~9a절 찬가의 화자), 신부(칭송의 대상 → 9b절부터 둘째 화자 → 초대·증여의 주체), 왕(5절 — 머리카락에 매인 자로만 3인칭 등장), 숙련공(1절 — 구슬 껴미의 만든 이), 자는 자(9절 — 얼굴 없는 익명), 술람미 여자라는 호칭(6:13 — 배경).
- 중심 사상: 소속 선언의 세 형태 — 2:16(그→나, 나→그) → 6:3(나→그, 그→나) → 7:10(나→그 + 그의 teshuqah가 내게로). 셋째 형태에서 '그는 내게 속하였다' 절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들어옴 — 소유의 문구 절반이 사모의 문구로 바뀜.
- teshuqah 구약 3회: 창 3:16(여자→남편 + 다스림), 창 4:7(죄→가인 + 다스림 명령), 아 7:10(남자→여자, 다스림 어휘 부재) — 어휘 대응의 관찰.
- 화답의 뼈대: 칭송(1~5) — 의지(8 "올라가리라") — 이어받음(9b) — 선언(10) — 초대(11~12) — 증여(13)의 여섯 박자.
- 12절의 약속: 2장의 초대는 '보자'까지였는데 7장의 초대에는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가 더해짐 — 주려 가는 길.
- 포도주의 여정: 직유 속 잔(2절) → 입의 칭송(9a절) → 그녀가 흘려보냄(9b절) → 실물 포도원(12절). 그림이 흠에 뿌리내림.
- 힘의 역전: 4절까지의 직유는 망대·연못·산 — 견고한 것들. 그 끝에서 매이는 쪽은 보는 사람(왕).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셋째 찬가, 상행선 — 발·넓적다리·배꼽·허리·유방·목·눈·코·머리·머리채의 열 정거장. 끝에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 컷 2 (6~9a절): 종려나무 직유 — 키는 종려나무, 유방은 열매송이,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콧김은 사과 냄새, 입은 좋은 포도주.
- 컷 3 (9b~10절): 문장의 이어받음("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과 셋째 소속 선언("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 컷 4 (11~13절): 신부의 초대(들·동네·포도원·움·꽃술·석류 꽃)와 저장의 공개(합환채, 새 것과 묵은 것,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
- 컷 1 내부의 사다리: 움직임(발·넓적다리) → 양식(배꼽=포도주 잔, 허리=밀단) → 생명(유방=쌍태 새끼) → 견고함(목·눈·코=망대·연못·망대) → 위엄(머리=갈멜, 머리채=자줏빛·왕).

- 컷 2와 컷 4의 대칭: 그의 의지("올라가리라")와 그녀의 초대("가자")가 종려나무와 포도원이라는 두 식물 무대에서 마주 봄.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pe'amayikh*(פְּעָמַיִךְ) — 발·발걸음. *pa'am*은 걸음·박자의 걸 — 춤의 문맥과 맞물리는 움직임의 단어. 1절.
- *bat-nadiv*(בַּת־נָדִיב) — 귀한 자의 딸. *nadiv*는 귀인·자원하는 자. 1절.
- *chammughey yerekhayim*(חַמּוּגֵי יֶרֶקַיִם) — 넓적다리의 곡선. *chamaq*(דּוּלָא·גּוּפִיכִידָא) 어근. 1절. / *shorer*(שׁוֹרֵר) — 배꼽. 구약에서 드문 단어. 2절.
- *aggan hassahar*(אֶגְגָּן הַסָּהָר) — 둥근 잔. *sahar*는 둥글·달의 걸. / *aremat chittim*(אַרְמַת חִטִּים) — 밀단. 2절.
- *migdal shen*(מִגְדַּל שֵׁן) — 상아 망대. 4장의 '다윗의 망대'(4:4)에서 재질이 상아로 바뀜. 4절. / *Cheshbon·Bat·Rabbim* — 요단 동편 성읍과 '많은 딸들'로 풀리는 문 이름. 4절.
- *Karmel*(כַּרְמֶל) — 갈멜 산. 같은 자음이 보통명사로 '기름진 동산·과수원' — 산이면서 동산인 형태 관찰. 5절. / *argaman*(אַרְגָּמָן) — 자줏빛. 왕실 염료의 걸. 5절.
- *rehatim*(רְהִיטִים) — 머리채. 같은 철자가 창 30:38·41에서는 양 떼의 물 구유·개천 — 머리채와 물길이 한 철자에. LXX는 παραδρομαῖς. 5절. / *asur*(אַסּוּר) — 매이다. 포로·죄수의 동사. 5절.
- *tamar*(תְּמָר) — 종려나무·대추야자. 7~8절. / *ashkolot*(אִשְׁכּוֹלוֹת) — 송이들. 7~8절. / *tappuach*(תַּפּוּחַ) — 사과. 8절.
- *dovev*(דּוֹבֵב) — 움직이게 하다·말하게 하다. 구약 단 1회(hapax). 9절.
- *teshuqah*(תְּשׁוּקָה) — 사모함·갈망. 구약 3회: 창 3:16·4:7·아 7:10. 앞의 두 용례엔 다스림(mashal)이 짝으로 붙고, 7:10엔 다스림의 어휘가 없음. LXX는 7:10을 ἐπιστροφή, 창 3:16을 ἀποστροφή로 옮김. 10절.
- *kefarim*(כִּפְרִים) — 동네·마을들. 같은 자음이 '고벨화(해나) 덤불'(1:14의 *kofer*)로도 읽혀 번역이 갈림. 11절. / *semadar*(סִמְדָּר) — 꽃술·갓 핀 포도꽃. 2:13·15와 같은 단어. 12절.
- *dudaim*(דּוּדַיִם) — 합환채. *dod*(사랑)와 자음이 겹치는 식물 이름. 창 30:14와 같은 단어, LXX 같은 역어 (μανδραγόραι). 13절. / *chadashim gam-yeshanim* — 새 것과 묵은 것. 13절. / *tsafan*(צָפָן) — 감추다·간직하다·쌓아 두다. 1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셋째 *wasf*의 역방향: 4:1-5는 눈에서 아래로, 7:1-5는 발에서 위로 — 열 정거장의 상행선. 춤(6:13)의 문맥이 낮은 시선의 출발점을 설명함.
- 9b절의 화자 전환: 한 문장의 포도주가 흐르는 도중에 말의 주인이 신랑에서 신부로 — 아가에서 가장 매끄러운 마이크 전달.
- 소속 선언 3행의 진행: 2:16 → 6:3 → 7:10. 어절 순서가 뒤집히고, 셋째에서 소유 절 하나가 *teshuqah* 절로 대체됨.
- 초대의 대칭: 2:10-13(그→그녀)과 7:11-12(그녀→그)가 같은 어휘 목록(함께 가자·포도원·꽃·향기)을 공유 — 게다가 7장에는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가 추가됨.
- 직유의 자가 커짐: 4장의 건축물(다윗의 망대)에서 7장의 지형(연못·레바논·갈멜)으로 — 성읍 규모에서 산맥 규모로.
- 13절의 두 시제: 새 것과 묵은 것 — 사랑의 저장에 갓 익은 시간과 오래 간직된 시간이 함께 쌓임. 수신인은 한 명("너를 위하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19세기 시리아 혼례 관찰 기록(베즈슈타인)의 wasf — 혼례 주간 칼춤과 발끝부터 머리까지의 신체 칭송 노래 관습. 7:1의 상행 구도·춤 문맥과 겹치는 장르 배경.
- 이집트 신왕국 연가(파피루스 체스터 비티 I) — 연인의 신체 칭송과 정원·과일·포도주의 그림을 겹치는 전통 — 배경.
- dudaim(합환채·맨드레이크) — 고대 근동에서 사랑·다산과 결부된 식물. 창 30장 라헬·레아 일화의 문화 배경 — 배경.
- 대추야자 재배 관습 — 수분·수확을 위해 줄기에 직접 올라가는 농경 동작이 7:8의 그림과 겹침 — 배경.
- LXX: teshuqah → ἐπιστροφή(7:10)/ἀποστροφή(창 3:16), dudaim → μανδραγόραι, rehatim → παραδρομαῖς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7:10 ↔ 창 3:16 · 창 4:7 (teshuqah 구약 3회 — 방향과 짝(다스림)의 차이를 관찰로만 됨)
- 아 7:11-12 ↔ 아 2:10-13 (초대의 대칭 — 같은 어휘, 바뀐 주체)
- 아 7:10 ↔ 아 2:16 · 6:3 (소속 선언의 세 형태)
- 아 7:1-5 ↔ 아 4:1-5 (wasf의 역방향 대응 — 하행과 상행)
- 아 7:13 ↔ 창 30:14-16 (dudaim — 같은 단어, 같은 LXX 역어)
- 아 7:12 ↔ 아 1:6 (지키지 못한 포도원 ↔ 초대하는 포도원 — 권 안의 회복 곡선)
- 아 7장 ↔ 아 8:6-7 (둘째 국면의 닫음 ↔ 인장 선언이라는 목적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잔치 마당, 낮은 카메라. 신을 신은 두 발이 박자를 밟는다. 시선이 올라간다 — 굽이치는 넓적다리와 구슬 꿰미, 섞은 포도주의 둥근 잔, 백합화 두른 밀단, 암사슴의 쌍태 새끼, 상아 망대, 헤스본 성문 곁의 두 연못, 다메섹 쪽 레바논 망대. 갈멜 산정에 닿는 순간 자줏빛 머리채가 흘러내리고 그 부드러운 물결에 왕관 쓴 그림자가 묶여 있다. 과수원 — 종려나무 줄기에 손을 얹은 남자가 말한다,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사과 냄새가 번지고 좋은 포도주가 흘러내리는데 그 흐름 한가운데서 목소리가 바뀐다 —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자의 음성이 화면을 이어받는다 —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새벽빛. 두 사람이 성문을 나서 들길을 걷고, 이슬 맺힌 포도원에서 움과 꽃술과 석류 꽃을 들여다본다. 합환채의 향이 실리고, 한 집의 문 앞 — 새 열매와 묵은 열매가 가지런하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구나. 문이 열리며 밝은 채로 끝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머리채에 매인 왕, 돌아온 사모함 — 신부가 여는 초대"
- 초벌 부제: "밭에서 머리로 오르는 셋째 찬가가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7:5)로 뒤집히고, 신부가 포도주의 문장을 이어받아(7:9b)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teshuqah)'(7:10)를 선언한 뒤 들과 포도원으로 초대하며(7:11-12) 새 것과 묵은 것의 공간을 여는(7:13) — 둘째 국면을 닫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6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역방향 wasf + 9b절 화자 전환 + 소속 선언 3형 + 시리아 혼례 wasf 배경)

- [x] 이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10의 teshuqah와 창 3:16의 어휘 대응을 '타락의 치유'라는 교리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구약 3회 용례의 방향·짝(다스림 유무) 차이라는 어휘 관찰로만 둬.
- 아가 본문을 그리스도-교회의 알레고리로 봉합하지 않고, 두 연인의 노래라는 표면의 결과 권 흐름(8:6-7의 인장) 안에서의 위치 관찰로 보존.
- dudaim(합환채)을 주술·효능의 단정으로 확장하지 않고, 창 30장과 같은 단어·같은 LXX 역어라는 어휘 연결의 관찰로만 둬.
- 7:1-5의 화자(코리스인지 신랑인지)와 9b절의 정확한 전환 경계를 단정하지 않고 이해결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7장은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7:1)로 시작해 발에서 머리로 오르는 셋째 찬가를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7:5)라는 역전으로 닫은 뒤, 종려나무의 직유(7:6-9a)와 신부의 문장 이어받음(7:9b)을 지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vealay teshuqato)"(7:10)라는 셋째 소속 선언에 이르고,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7:11-12)는 신부의 초대와 새 것·묵은 것의 저장 공개(7:13)로 끝나는 —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사람으로 서는 장이다.

한 문단: 잔치 마당의 낮은 시선에서 노래가 시작된다. 신을 신은 두 발이 박자를 밟고, 칭송이 넓적다리와 배 곱과 허리와 유방과 목과 눈과 코를 지나 갈멜 같은 머리에 닿는 순간 — 자줏빛 머리채에 왕이 매여 있다. 가장 견고한 직유들(망대·연못·산)의 끝에서 매인 쪽은 보는 사람이다. 과수원에서 그가 종려나무에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입을 좋은 포도주에 건주는데, 그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도중에 목소리가 바뀐다 —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녀가 선언한다 —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2장에서 그가 하던 초대를 그녀가 같은 어휘로 돌려준다 — 함께 들로 가자,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새벽 들길의 끝, 한 집의 문 앞에 합환채의 향기와 새 것·묵은 것의 열매가 쌓여 있다 —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구나. 문이 열리며 7장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잔치 마당 → 과수원 → 새벽 들의 세 무대. 몸 위에 깔린 지도(헤스본·다메섹·레바논·갈멜). 코와 혀의 소품들.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머리채에 매인 왕의 충격. 느린 응시에서 청유형 연쇄의 빠른 발걸음으로. 그늘 없는 회복의 환함. 왕복하는 10절 어순.
3 시작과 끝	받는 칭송(1절)에서 주는 저장(13절)으로. 마이크가 장 한가운데(9b)서 한 번 넘어감. 2장 초대와의 다섯 장 화답.
4 등장인물·사상	신랑·신부·매인 왕·숙련공·자는 자. 중심 사상은 소속 선언 3형의 진행 — 소유 절 하나가 teshuqah 절로 대체됨.
5 장면 컷	찬가(1~5)/종려나무(6~9a)/이어받음·선언(9b~10)/초대·저장(11~13)의 4컷. 컷 1은 움직임—양식—생명—견고함—위엄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rehatim(머리채=물길)·kefarim(마을=해나)의 번역 폭. 직유의 자가 건축물에서 지형으로 커짐. teshuqah 3회 표. dudaïm의 창 30장 연결.
7 동영상	춤추는 발 → 갈멜의 머리채에 묶인 왕관 → 흐르는 포도주 가운데 바뀌는 목소리 → 새벽 들길 → 쌓아 둔 열매의 문 앞.
8 초별 제목·부제	"머리채에 매인 왕, 돌아온 사모함 — 신부가 여는 초대"
9 기도·내면	한 수신인을 위해 쌓인 새 것과 묵은 것을 본다. 사모함이 돌아오는 문장 앞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역방향 wasf와 매인 왕:** 4장의 첫 찬가는 눈에서 아래로 내려왔고, 7장의 셋째 찬가는 발에서 위로 오른다. 춤(6:13)의 문맥이 이 낮은 출발점을 설명한다 — 마당에 앉아 무용수를 올려다보는 시선. 그리고 직유의 자가 커져 있다. 4장에서 다윗의 망대였던 목이, 7장에서는 연못과 레바논 망대와 갈멜 산으로 — 성읍 규모에서 산맥 규모로. 그 거대한 견고함의 정점에서 본문은 힘의 방향을 뒤집는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7:5) — 사로잡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드리운 머리채이고, 매인 쪽은 가장 강한 자다. 칭송의 노래가 향복의 기록으로 닫히는 구도다.

2. **결 2 — teshuqah, 방향을 바꿔 돌아온 단어:** 사모함(teshuqah)은 구약 전체에 세 번뿐이다. 창 3:16에서는 여자의 사모가 남편에게로 가고 그 위에 다스림이 얹혔다. 창 4:7에서는 죄의 갈망이 가인에게로 가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붙었다. 아 7:10에서는 남자의 사모가 여자에게로 오고 — 다스림의 어휘가 본문에 없다. 같은 단어가 셋째 등장에서 방향을 바꾸고 짝을 잃은 채 사모함만으로 서 있다. 소속 선언의 진행도 같은 결이다 — 2:16과 6:3의 상호 소유 문구가 7:10에서는 절반이 사모의 문구로 바뀐다. 쥐는 말이 줄고 기울어 오는 말이 남는다. 이 어휘 대응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은 발설하지 않는다 — 표만 정확하게 남긴다.

3. **결 3 — 초대의 주체 교대와 두 시제의 공간:** 2:10-13에서 그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는구나"라고 불렀다. 7:11-12에서 같은 어휘 — 함께 가자, 포도원, 꽃, 향기 — 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2장에 없던 절이 더해진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받았던 초대를 돌려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증여의 약속을 엮는 것이다. 13절의 공간이 그 증여의 부피를 보여 준다 — 새 것과 묵은 것, 갓 익은 시간과 오래 간직된 시간이 한 문 앞에 함께 쌓여 있고, 그 전부의 수신인이 한 명이다. 1:6에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던 사람이, 7:12에서 포도원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창 3:16 · 창 4:7 — teshuqah의 앞선 두 용례 — 방향과 짝(다스림)의 차이를 관찰로 마주 봄.
- 아 2:10-13 — 신랑의 초대 — 7:11-12와 같은 어휘, 바뀐 주체.

- 아 2:16 · 6:3 — 소속 선언의 1·2형 — 7:10에서 셋째 형태로.
- 아 4:1-5 — 첫 wasf — 하행과 상행의 역방향 대응.
- 창 30:14-16 — 라헬과 레아의 dudaim — 같은 단어, 같은 LXX 역어.
- 아 1:6 — 지키지 못한 포도원 — 7:12의 초대하는 포도원과 권 안의 회복 곡선.
- 아 8:6-7 — 죽음 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 — 7장이 직전까지 데려다 놓는 목적지.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7:1에서 시작한다 — 칭송이 얼굴이 아니라 발에서 출발하는 것을 본다. 낮은 데부터 봐 주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안다.
- **멈춤 1:** 7:5에서 멈춘다 — 매인 왕. 강함이 사랑 안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역전 앞에 선다.
- **멈춤 2:** 7:10에서 멈춘다 — vealay teshuqato. 사모함이 내게로 와 있다는 문장을 자기 문장으로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본다.
- **끝:** 7:12-13 사이에서 멈춘다 —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와 쌓아 둔 곳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건너간 거리와, 내 곳간의 수신인을 같이 헤아린다.

F · 자족성 점검

- [x] 찬가(1~5)·종려나무(6~9a)·이어받음과 선언(9b~10)·초대와 저장(11~13)의 4컷 완결
- [x] 역방향 wasf 열 정거장과 7:5 역전의 대응
- [x] 소속 선언 3형(2:16·6:3·7:10)의 진행 확인
- [x] 초대의 대칭(2:10-13 ↔ 7:11-12)과 추가 절("주리라")의 차이
- [x] teshuqah 구약 3회 표와 dudaim의 창 30장 연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이다(book-telos). 권의 흐름은 서로를 찾고 부름(1~3장), 칭송과 갈망·읽음과 다시 찾음(4~7장),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8장)으로 움직이는데, 7장은 둘째 국면의 닫음이다 — 4장에서 시작된 찬가의 연쇄가 셋째 찬가로 완성되고, 5장의 읽음과 6장의 다시 찾음을 지나온 두 사람이 이제 한쪽의 응시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행으로 선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이 들여온 teshuqah — 사모와 다스림이 묶여 있던 그 단어 — 가 여기서 방향을 바꾸고 다스림 없이 돌아온다는 어휘의 사실이 이 장의 좌표를 표시한다. 본문은 그것을 교리로 선언하지 않는다. 다만 동산에서 어긋났던 어휘가 다른 동산의 노래 안에서 다른 모양으로 놓여 있음을 — 관찰자가 확인할 수 있는 표로 — 남겨 둘 뿐이다. 그리고 받기만 하던 신부가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7:12)라고 말하게 된 성숙이, 8장의 인장 요청("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으라")이 일방의 갈구가 아니라 상호의 언약으로 들리게 하는 직전 단계를 이룬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받는 칭송(7:1-9a)에서 주는 초대(7:11-13)로 / 응시의 무대에서 동행의 들길로 / 사모를 보내던 쪽(창 3:16의 어휘 구도)에서 사모를 받는 쪽(7:10)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사랑의 문법에서 주어가 바뀌는 운동이다. 찬가의 대상이던 그녀가 9b절에서 문장을 이어받고, 10절에서 선언의 주체가 되고, 11절에서 초대와 발신인이 되고, 13절에서 증여의 손이 된다. 이 교대는 빼앗음이 아니다 — 그의 목소리가 침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포도주 직유를 그녀가 받아 그에게 돌려보내는 화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권 전체의 흐름에서 이 벡터는 8장을 준비한다. 줄 것이 있는 사람, 초대할 포도원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으라"라는 요청을 동등한 위치에서 발행할 수 있다. 7장의 운동은 그 동등함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구간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혼례의 노래다 — 칭송하고, 화답하고, 새벽 들로 나가는.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힘의 재정이다. 7장의 직유는 그녀를 망대와 산으로 — 방어하고 솟아 있는 것들로 — 그리는데, 그 견고함의 끝에서 매이는 쪽은 왕이다. 강한 자가 부드러운 것에 묶이는 이 그림은, 사랑 안에서 힘이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됨을 단정 없이 보여 준다. 둘째, 어휘의 치유적 배치다. *teshuqah*가 다스림과 묶여 있던 두 용례(창 3:16:4:7)를 지나, 세 번째 용례에서 다스림 없이 — 사모함만으로 — 돌아와 있다. 본문은 이 대응을 설교하지 않고 놓아 두기만 하는데, 그 절제된 배치 자체가 관찰자를 오래 머물게 한다. 셋째, 회복의 완결되지 않은 곡선이다.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1:6)이 포도원으로 초대하고(7:12), 맞고 빼앗기던 밤(5:7)을 지난 사람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라고 흔들림 없이 말한다. 무엇이 그 사이를 메웠는지 본문은 다 설명하지 않는다 — 다만 바뀐 사람을 보여 주고, 그 바뀐의 마지막 확인을 8장의 인장에 남겨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받기만 하는 쪽에 머물러 있는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쪽으로 건너 왔는가. 내 공간에는 누군가를 수신인으로 둔 새 것과 묵은 것이 쌓여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성숙을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칭송을 받던 사람이 문장을 이어받는 9b절의 매끄러운 전환을 들려주고, 사모함이 방향을 바꿔 돌아온 한 단어의 표를 보여 주고, 받았던 초대를 같은 어휘로 돌려주며 거기에 증여를 얻는 사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문 앞의 공간을 열어 보인다 — 갓 익은 것과 오래 간직한 것이 한 수신인을 위해 함께 쌓여 있는. 사랑이 감정의 즉흥만이 아니라 저장의 노동이기도 하다는 이 그림이, 자기 공간의 문을 열어 보게 만드는 불씨다. 쌓아 둔 것이 있는 사람은 초대할 수 있고,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은 8장의 인장 앞에 설 수 있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함께 들로 나간 두 사람의 동행이 마지막 선언을 부른다 —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8:6), 끌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이 권의 정점에서 기다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eshuqah* — 방향을 바꿔 돌아온 사모함.

미해결 질문

아가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7:1-5의 화자는 누구인가 — 신랑인가, 6:13의 구경하는 무리(코리스)인가?

- 6:13이 "너희가 어찌하여 ~ 보려느냐"라는 복수의 물음으로 끝난 직후의 찬가. 6절의 "사랑아"부터는 분명히 그런데, 1~5절의 입은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다. 보존.

Q2. 7:5의 "왕" — 이 왕은 신랑의 호칭인가, 제3의 인물인가, 그리고 '매임(asur)'은 어디까지의 그림인가?

- 아가에서 왕은 1:4·1:12·3:9·3:11에도 스치는데, 7:5의 왕은 머리카락에 매인 자로만 등장한다. 포로·죄수의 동사가 사랑의 문맥에서 무엇을 그리는지 — 단지 않는다. 보존.

Q3. 9b절 — 문장의 주인이 바뀌는 경계는 정확히 어디인가?

-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 절 중간 어디서 그녀의 목소리가 시작되는지 본문은 표시를 두지 않았다. 번역마다 따옴표 위치가 갈린다. 보존.

Q4. teshuqah(7:10) — 창 3:16·4:7과의 어휘 대응은 우연의 동음인가, 의도된 반향인가?

- 구약 3회뿐인 단어가 방향을 바꾸고(여자→남편에서 남자→여자로) 짝(다스림)을 잃은 채 셋째로 등장한다. 이 대응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본문이 발설하지 않는다 — 어휘 관찰의 표만 보존.

Q5. 7:11-12의 초대가 2:10-13과 같은 어휘로 짜인 것 — 인용인가, 화답인가, 우연인가?

- 함께 가자·포도원·꽃·향기의 공유 어휘 +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의 추가. 다섯 장의 거리를 둔 두 초대 관계는 열어 둔다. 보존.

Q6. "새 것과 묵은 것"(7:13) —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묵은 것이며, '쌓아 둔(tsafan)' 시간은 얼마인가?

- 각종 귀한 열매의 두 시제. 갓 익은 것과 오래 간직된 것이 한 문 앞에 함께 있는 그림의 안쪽 — 저장의 길이도 내용물도 본문은 세지 않는다.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아가 8장

SNG-008 · 시가서 · 히브리어

"너는 나를 도장(chotam)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라는 인장 선언이 권의 정점에 놓이고, 1:6의 지키지 못한 포도원이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8:12)로 돌아오며, 마지막 절이 마침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8:14)는 부름으로 남는 — 아가 전권의 종결.

관찰된 사실

아가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의 이동: 바깥 거리(1절) → 어머니 집(2~3절) → 예루살렘 딸들 앞(4절) → 거친 들과 사과나무(5절) → 마음과 팔(6~7절) → 오라비들의 의논(8~9절) → 성벽 위(10절) → 바알하몬 포도원(11~12절) → 동산(13절) → 향기로운 산(14절). 닫힌 공간들을 지나 열린 능선에서 끝남.
- 소품(인장): chotam — 8:6에 두 번. 끈에 꿰어 몸에 지니는 신원의 물건. 마음과 팔의 짝.
- 소품(불·물): 불길(rishpe esh)과 여호와와 불(shalhevetyah), 많은 물(mayim rabbim)과 홍수(neharot) — 한 단락 안에서 불과 물이 마주 봄.
- 소품(건축·경제): 은 망대, 백향목 판자, 성벽, 문, 포도원, 은 천, 이백 — 보호의 자재와 장부의 숫자.
- 소품(권의 귀환): 석류즙·포도원·노루·어린 사슴·향기로운 산 — 1:2, 1:6, 2:6, 2:17의 어휘가 마지막 장에 다시 놓임.
- 소재의 두 무더기: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들(은 천·이백·가산·은 망대) 對 값이 없는 것들(사랑·도장·'내 앞'의 포도원·목소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8:6부터 문장의 밀도가 바뀜 — 바람 같던 시가 돌에 새기는 선언문이 됨. 죽음·스울·불·물·홍수가 두 절에 집결.
- 8:7 후반("은 가산을 다 주고... 멸시를 받으리라")이 주는 안도 — 사랑이 거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담처럼 들림.
- 장면 호흡이 빠름: 열네 절에 무대 아홉 번 전환 — 권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회전의 감각.
- 온도의 뒤집힘: 물이 불을 끄는 일상의 감각이 본문에서 역전됨 — 많은 물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함.
- 말의 무게중심이 신부에게: 인장 청(6~7절)·자기 선언(10절)·포도원 선언(12절)이 신부의 발화. 신랑의 마지막 말은 명령이 아니라 목소리를 청하는 한 절(13절) — 배경.
- 8:6의 청원 구조: "내가 너를 새기겠다"가 아니라 "나를 지녀 달라" — 주어·목적어 배치가 만드는 청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으로 시작.

-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berach dodi)" —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름으로 종료.
- 가정으로 열고 부름으로 닫힘 — 양끝이 모두 미완. 권의 첫 문장(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과 마지막 문장이 둘 다 갈망의 어법.
- 14절의 노루·어린 사슴·산은 2:17의 어휘 귀환 — 권이 자기 가운데서 했던 말로 끝을 다시 엮.
- 정중앙 부근(6~7절)에 인장 선언 — 열린 양끝과 단단한 중심의 골격.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신부(주 화자 — 갈망·인장 청·자기 선언·포도원 선언), 신랑(5절 동행, 13절 목소리를 청함), 예루살렘 딸들(4절), 어머니(1·2·5절 — 집·잉태·사과나무로만), 오라비들(8~9절 "우리"), 작은 누이(8절), 솔로몬(11~12절 실명), 지키는 자들·친구들. 하나님 — 인물로 등장하지 않으시되 shalhevetyah의 -yah 한 음절이 유일한 흔적.
- 중심 사상: 8:6-7 — 사랑의 강도(죽음과 견줄), 본성(불), 소멸 불가(많은 물), 교환 불가(온 가산). 강함의 목록이 요구하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도장 같은 동행.
- 8~10절의 시제 대비: 오라비들의 가정법("그가 성벽이라면") 對 신부의 직설법("나는 성벽이요"). 전쟁 어휘의 문장이 화평(motset shalom)으로 종결.
- 11~12절의 장부: 소유주 솔로몬 — 임차 — 은 천 — 이백의 셈 곁에, 숫자 없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 8:5의 셋째 mi zot: 3:6(연기 기둥)·6:10(아침 빛)과 달리 수식이 다 빠지고 '의지하고 올라옴'만 남은 가장 수수한 그림.
- qinah(질투·열심): 출 20:5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붙는 단어 계열이 사랑 곁에서 스올과 견주어짐 —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공적 사랑의 갈망 — 오라비 가정, 어머니 집과 석류즙, 왼팔·오른손(2:6 재현), 셋째 후렴(맹세 정형구 생략형).
- 컷 2 (5절): 셋째 "누구인가" —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자, 사과나무 아래의 잉태·고생·깨움 회상.
- 컷 3 (6~7절): 인장 선언 — 도장(마음·팔) → 죽음·스올 → 불길·shalhevetyah → 많은 물·홍수 → 온 가산.
- 컷 4 (8~10절): 작은 누이 의논(성벽/문의 두 갈래)과 신부의 자기 선언(나는 성벽이요 — motset shalom).
- 컷 5 (11~12절): 두 포도원 — 바알하몬의 장부와 "내 앞에 있는" 내 포도원.
- 컷 6 (13~14절): 목소리를 청하는 신랑과 "빨리 달리라"는 신부 — 향기로운 산의 열린 결말.
- 컷 3 내부의 사다리: 청(도장) → 강도(죽음) → 본성(불) → 소멸 불가(물) → 교환 불가(값) — 다섯 겹이 한 방향으로 좁혀 들.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otam(חֹתָם) — 도장·인장. chatam(봉인하다) 어근. 창 38:18(유다의 도장과 끈), 학 2:23(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렘 22:24(오른손의 인장 반지)와 같은 단어.
- azzah khammavet ahavah(אָזָה כַּחמַבֵּט אֶהָבָה)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az(강하다·맹렬하다)의 비교 기준이 죽음 — 구약에서 드문 비교.
- qinah(קִינָה) — 질투·열심. / qashah khisheol — 스올 같이 잔인하다(굳다). qasheh의 폭(잔인함/찍이지 않음)으로 번역이 갈림.

- *rishpe esh*(רִשְׁפֵּה אֵשׁ) — 불의 불꽃들. *reshef*는 우가랏 불꽃 신의 이름이기도 하나 여기서는 보통명사 — 배경.
- *shalhevetyah*(שַׁלְהֵוִיָּה) — 불꽃 + -yah. 신명 축약("여호와와 불")과 최상급 강조("맹렬한 불꽃")로 번역이 갈림. LXX는 φλόγες αὐτῆς — 신명 미반영. 아가에서 하나님 이름이 표면에 스치는 유일한 어휘.
- *mayim rabbim*(מַיִם רַבִּים) — 많은 물. 시 93:4 등 혼돈 세력의 정형 표현. / *neharot* — 강들·홍수.
- *motset shalom*(מוֹצֵא שָׁלוֹם) — 화평을 얻은(찾은) 자. *shalom* — Shulammit(6:13) — Shelomoh(솔로몬)의 어근 올림. LXX εὐρίσκουσα εἰρήνην.
- *karmi shelli lefanai*(כַּרְמִי שְׁלִי לִפְנֵי) —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shelli*가 소유를 겹쳐 강조하는 형태.
- *berach dodi*(בְּרַךְ דּוּדִי) — 달리라 내 사랑아. *barach*(도망하다)의 방향(이리로 달려오라/벗어나 달리라)이 열려 있음.
- *tsvi*(노루) · *ofer haayyalim*(어린 사슴) · *hare besamim*(향기로운 산) — 2:17 어휘의 귀환 묶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갈망(1~4) + 올라옴(5) + 인장(6~7) + 성벽(8~10) + 포도원(11~12) + 부름(13~14) — 여섯 단의 종결 구조.
- 8:6-7의 다섯 겹 비교: 도장 → 죽음 → 불 → 물 → 값. 청 하나에 근거 네 겹이 쌓이는 좁힘의 구조. *chotam* 2회 반복(마음/팔 — 안/밖의 짝).
- 회복의 액자: 1:6(오라비의 노여움·보호 없음·포도원 상실) ↔ 8:8-10(누이를 위한 의논·스스로 성벽)·8:12(내 앞의 포도원). 개막의 결핍 세 가닥이 종결에서 하나씩 역전.
- 후렴의 셋째 반복(2:7·3:5·8:4) — 8:4는 맹세 정형구("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생략형. *mi zot*도 셋째(3:6·6:10·8:5).
- 열린 결말: 8:14가 2:17의 어휘로 돌아오며 권이 완결 대신 부름으로 남음. 권의 첫 문장(1:2)과 끝 문장이 모두 갈망의 어법.
- *shalom* — Shulammit — Shelomoh의 어근 올림(8:10), 경제 장부 언어(8:11-12)와 비상품성 선언(8:7)의 병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인장 관습 — 도장은 끈에 꿰어 목·팔에 지니는 법적 신원 그 자체. 창 38:18이 같은 관습의 기록 — 배경.
- 우가랏의 Mot(죽음)·Resheph(불꽃) — 8:6의 *mavet-reshef*는 신명이 아니라 보통명사로, 사랑의 강함을 재는 비교 향으로만 동원됨 — 장르 배경.
- *mayim rabbim* — 근동 혼돈수 모티프의 정형구. 8:7은 그 물조차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말함 — 배경.
- 이집트 신왕국 사랑시의 '누이/오라비' 호칭 관습 — 8:1의 가정문이 비추는 공적 애정 표현의 제약 — 배경.
- LXX: *shalhevetyah* → φλόγες αὐτῆς(신명 미반영), *qinah* → ζῆλος, *motset shalom* → εὐρίσκουσα εἰρήνην — 번역 폭의 증거, 배경.
- 미쉬나 야다임 3:5 — 랍비 아키바의 "아가는 거룩한 것 중의 거룩한 것" 발언, 탈굴의 알레고리 해석사 — 본문 확정 아님,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아 8:10·8:12 ↔ 아 1:6 (성벽·포도원 — 개막의 결핍과 종결의 회복 액자)
- 아 8:3-4 ↔ 아 2:6-7 (포옹과 후렴의 재현) / 아 8:14 ↔ 아 2:17 (노루·어린 사슴·산의 귀환)

- 아 8:5 ↔ 아 3:6 · 6:10 (세 번의 mi zot — 연기 기둥, 아침 빛, 의지하고 올라옴)
- 아 8:6 ↔ 신 6:6-8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 — 마음과 팔의 짝)
- 아 8:6 ↔ 학 2:23 · 렘 22:24 (사람을 인장으로 부르는 문장들)
- 아 8:7 ↔ 사 43:2 · 시 93:4 (많은 물을 통과하는·이기는 계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거리의 한낮 — 오라비 같았더라면, 하는 혼잣말. 어머니 집의 문지방, 석류즙 잔, 왼팔과 오른손의 포옹. 깨우지 말라는 낮은 당부. 화면이 거친 들로 넓어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대어 올라온다 —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잉태와 깨움의 기억이 스친다. 끈에 꿰인 도장 하나가 가슴에 닿고 팔에 둘러싼다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불꽃이 번지고 그 위로 큰 물이 쏟아지는데 불은 그대로 탄다. 보화 상자를 든 사람이 화면 밖으로 밀려난다 — 멸시를 받으리라. 등불 켜진 방의 의논 — 성벽이라면, 문이라면. 성벽 위에 선 여인 — 나는 성벽이요. 바알하몬의 장부 위로 은화 천 닢이 쏟아지고, 여인은 자기 앞의 포도원을 본다 — 내 앞에 있구나. 동산의 음성 — 네 목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마지막 답 — 빨리 달리라. 노루가 향기로운 능선을 달린다. 끝 자막 없이, 화면이 밝은 채 열려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도장 같이 — 많은 물이 끼지 못하는 사랑"
- 초벌 부제: "공적 사랑의 갈망(8:1)과 셋째 후렴(8:4), 셋째 '누구인가'(8:5)를 지나, 도장 같이 품으라는 인장 선언(8:6-7)이 죽음·불·물·값의 비교 위에 놓이고, 1:6의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8:12)로 돌아온 뒤, '빨리 달리라'(8:14)는 부름으로 열린 채 끝나는 아가의 종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24개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다섯 겹 비교 구조 + 1:6↔8:10·12 회복 액자 + 인장 관습 + 후렴·mi zot 셋째 반복)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완주의 매듭)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shalheveyah의 -yah를 신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명 축약/강조 어미의 번역 갈림(개역 "여호와와 불" / LXX 미반영)을 관찰로만 둬.
- 8:6-7을 결혼 교리나 그리스도-교회 알레고리로 봉합하지 않고, 다섯 겹 비교의 구조와 인장 관습의 그림으로 보존. 탈굴의 알레고리는 해석사 배경으로만 표기.
- 8:9의 성벽/문 두 갈래를 정조·개방의 도덕 교훈으로 확장하지 않고, 대조인지 병렬인지 미해결로 이월.

- 8:11-12의 솔로몬 등장을 왕정 비판이나 저작권 논증으로 단정하지 않고, 장부의 언어와 '내 앞의' 소유가 병치된 관찰로 됨.
- 8:14의 열린 결말을 재림 대망의 명제로 일반화하지 않고, 2:17 어휘의 귀환과 부름으로 남는 종결의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아가 8장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8:1)이라는 공적 사랑의 갈망과 셋째 후렴(8:4)·셋째 "누구인가"(8:5)를 지나, "너는 나를 도장(chotam)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shalhevetyah)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8:6-7)라는 인장 선언을 권의 정점에 두고, 1:6에서 지키지 못했던 포도원을 "나는 성벽이요"(8:10)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8:12)로 되돌린 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8:14)는 부름으로 마침표 없이 끝나는 — 아가 전권의 종결이다.

한 문단: 거리의 한낮, 한 여인이 혼잣말을 한다 — 오라비 같았더라면, 밖에서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집의 석류즙과 왼팔·오른손의 포옹을 지나, 깨우지 말라는 셋째 당부가 낮게 깔린다. 거친 들에서 두 사람이 올라온다 —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기대어. 사과나무 아래의 기억이 스치고, 끈에 꿰인 도장 하나가 가슴에 닿고 팔에 돌린다.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이 일어나는데 — 큰 물이 쏟아져도 그 불은 그대로 타고, 온 가산을 들고 온 사람은 화면 밖으로 밀려난다. 오라비들이 의논한다 — 성벽이라면 은 망대를,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성벽 위에서 답이 온다 — 나는 성벽이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바알하몬의 장부 위로 은화 천 닢이 쏟아지지만, 여인은 자기 앞의 포도원을 바라본다. 동산의 음성이 목소리를 청하고, 마지막 답이 능선을 가리킨다 — 빨리 달리라. 노루가 향기로운 산을 달리는 채로, 권이 닫히지 않고 끝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거리—집—들—마음과 팔—성벽—포도원—산으로 아홉 번 전환. 도장·불·물·은 천의 소품. 썸해지는 것과 썸 밖의 것으로 갈리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8:6부터 시가 선언문이 되는 밀도. 살 수 없음(8:7)이 주는 안도.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하는 뒤집힘. 말의 무게중심이 신부에게.
3 시작과 끝	가정(1절)으로 열고 부름(14절)으로 닫힘 — 양끝 모두 미완. 14절은 2:17 어휘의 귀환. 정중앙의 인장 선언이 받침.
4 등장인물·사상	신부가 주 화자, 신랑의 마지막 말은 목소리를 청하는 한 절. 하나님은 shalhevetyah의 -yah 한 음절로만. 다섯 겹 비교가 중심 사상.
5 장면 컷	갈망(1~4)/올라옴(5)/인장(6~7)/성벽(8~10)/포도원(11~12)/부름(13~14)의 6컷. 컷 3 내부는 청—강도—본성—소멸 불가—교환 불가의 사다리.
6 의문·발견·정보	1:6↔8:10-12의 회복 액자. 가정법 결의 직설법(8:10). 깨우지 말라(8:4)와 깨웠노라(8:5)의 동거. 인장 관습과 혼돈수 모티프 배경.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거리의 혼잣말 → 도장과 불과 물 → 성벽 위의 선언 → 두 포도원 → 달리는 노루, 끝 자막 없이 열린 화면.
8 초별 제목·부제	"도장 같이 — 많은 물이 끄지 못하는 사랑"
9 기도·내면	마음의 도장과 팔의 도장을 본다. 그 불꽃의 -yah가 어디서 오는지 묻지 않고 곁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chotam, 다섯 겹의 인장:** 8:6-7은 청 하나와 근거 네 겹으로 짜여 있다. 나를 도장 같이 지녀 달라(청)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강도) — 불길 같이 일어나며(본성) —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소멸 불가) — 온 가산으로도 바꾸지 못한다(교환 불가). 도장에서 죽음으로, 불에서 물로, 물에서 값으로 — 비교 향이 점점 커지는데 사랑은 매번 그 비교를 이긴다. 그리고 그 강함의 목록이 요구하는 것은 정복이 아니라 동행이다 — 마음에 하나, 팔에 하나, 안과 밖에 같은 인장을. 신원을 새기는 물건(창 38:18, 학 2:23)을 사랑의 그릇으로 가져온 이 두 절이 권 전체의 정점이자 destination이다.
- 결 2 — 포도원의 귀환, 1:6에서 8:12까지:** 권의 개막에서 신부는 오라비들의 노여움에 떠밀려 남의 포도원을 지켰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1:6)라고 했다. 종결에서 그 세 가닥이 전부 돌아온다 — 오라비들의 목소리는 노여움이 아니라 누이를 위한 의논으로(8:8-9), 보호받지 못하던 소녀는 "나는 성벽이요"라는 직설법으로(8:10), 잃었던 일터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8:12)로. 은 천이 오가는 솔로몬의 장부 곁에서 숫자 없는 소유가 더 크게 들리는 배치까지 — 8:7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가 미리 깔아 둔 바닥 위에 놓인 회복의 액자다.
- 결 3 — berach dodi, 닫히지 않는 결말:** 권의 마지막 문장은 요약도 축복도 아니고 부름이다 —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노루·어린 사슴·향기로운 산은 2:17에서 이미 울렸던 어휘들이라, 끝이 가운데로 돌아가 노래를 다시 연다. 권의 첫 문장(1: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과 마지막 문장이 둘 다 갈망의 어법이 라는 사실 — 여덟 장을 지나고도 갈망이 소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노래의 마지막 표정이다. 인장은 새겨졌는데(8:6) 부름은 계속된다(8:14) — 이미와 아직이 한 장 안에 같이 있는 종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아 1:6 —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 8:10·8:12와 마주 보는 개막의 결핍.
- 아 2:6-7 · 3:5 — 포옹과 후렴의 앞선 반복들 — 8:3-4의 재현(맹세 정형구 생략형).
- 아 2:17 — 노루·어린 사슴·산 — 8:14로 돌아오는 어휘의 귀환.
- 신 6:6-8 —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 — 8:6의 마음/팔 짝과 같은 그림.
- 학 2:23 · 렘 22:24 — 사람을 인장으로 부르는 문장들 — chotam의 무게.
- 사 43:2 · 시 93:4 — 많은 물을 통과하고 이기는 계보 — mayim rabbim의 정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1에서 시작한다 — 오라비 같았더라면. 사랑이 더 공공연하기를 바라는 갈망이 권의 마지막 장을 연다는 것을 듣는다.
- **멈춤 1:** 8:6에서 멈춘다 — 도장 같이. 내 마음과 내 팔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그 인장의 이름을 들여다본다.

- **멈춤 2:** 8:7에서 멈춘다 —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온 가산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내 장부의 셈으로 닿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앞에 선다.
- **끝:** 8:12와 8:14 사이에서 멈춘다 — 내 앞에 있는 포도원과, 아직 달려오는 중인 부름. 회복된 것과 기다리는 것을 같이 된다.

F · 자족성 점검

- [x] 갈망(1~4)·올라옴(5)·인장(6~7)·성벽(8~10)·포도원(11~12)·부름(13~14)의 여섯 단 완결
- [x] 8:6-7 다섯 겹 비교의 사다리(청—강도—본성—소멸 불가—교환 불가)
- [x] 1:6 ↔ 8:10·8:12의 회복 액자
- [x] 후렴·mi zot의 셋째 반복과 2:17 어휘의 귀환
- [x] shalhevetyah — 권에서 유일한 신명 흔적의 기록과 번역 갈림 보존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아가의 spine은 '찾고 부르는 갈망을 통해, 죽음같이 강하고 끌 수 없는 사랑의 인장을 드러내신다'이며, 권은 서로를 찾고 부르는 개막(1~3장), 칭송과 갈망·잃음과 다시 찾음(4~7장)을 지나 8장 —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인장 — 에 도착한다(book-telos). 8:6-7이 그 destination이다. 권 전체를 한 운동선으로 거두면 이렇다: 입맞춤을 원하는 갈망으로 열린 노래(1:2)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봄의 초대(2장)를 지나, 침상에서 찾다가 거리로 나간 첫 밤(3장)과 문 앞에서 엇갈린 둘째 밤(5장)의 잃음·찾음을 통과하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7:10)라는 사모함의 역전에 이르러, 마침내 도장의 청(8:6)으로 모인다 — 찾아 헤매던 사랑이 정체성에 새겨지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종결은 시가서 전체의 매듭이기도 하다. 욕이 폭풍 속의 임재를 통과하고, 시편이 탄식을 찬양으로 끌어올리고, 잠언이 경외를 지식의 근본으로 세우고, 전 도서가 해 아래의 햇빛을 정직하게 측량한 끝에 — 정경의 배열은 사랑의 노래를 둔다. 고난과 찬양과 지혜와 햇빛을 다 지나온 서가의 끝에서,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진다는 것. shalhevetyah의 -yah 한 음절이 그 불꽃의 근원을 표면에 살짝 스치게 한 채로, 시가서는 닫힌다 — 아니, 달리라는 부름으로 열린 채 끝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적 사랑의 갈망(8:1)에서 인장의 청(8:6)으로 / 지키지 못한 포도원(1:6)에서 "내 앞에 있구나"(8:12)로 / 찾아 헤매는 사랑(3·5장)에서 새겨지는 사랑(8:6)으로, 그리고 완결 대신 "달리라"(8:14)는 부름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권 전체의 갈망을 인장으로 거두고 그 인장 위에서 개막의 결핍을 되돌리는 운동이다. 거리의 시선에 막혀 있던 사랑이 마음과 팔의 인장으로 들어오고, 오라비들에게 떠밀리던 소녀가 성벽으로 서고, 은 천의 경제 바깥에 자기 포도원이 놓인다. 그런데 이 모든 도착이 마침표를 만들지 않는다 — 마지막 절은 여전히 부르는 중이고, 노루는 여전히 달리는 중이다. 사랑의 노래는 완결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자기 내용을 증언한다.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마지막 절도 그 사랑을 닫지 못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연인의 마지막 노래다 — 거리와 들과 포도원과 산의.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사랑의 비상품성이다. 8장은 숫자가 나오는 유일한 단락(은 천, 이백)을 일부러 품고 있다 — 그 장부 겹에서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8:7)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8:12)가 발화되도록. 셈의 세계를 지우지 않고, 셈의 세계 한복판에 셈 밖의 것을 세우는 배치다. 둘째, 사랑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다. 1:6의 보호받지 못하던 소녀가 8:10에서 "나는 성벽이요"라고 말하기까지, 여덟 장의 사랑은 그녀를 소모하지 않고 단단하게 했다 — 그리고 그 단단함의 끝이 전쟁이 아니라 화평(motset shalom)이다. 사랑받음이 정체성이 되는 과정의 기록. 셋째, 불꽃의 근원에 대한 암시다. 이 권은 하나님을 한 번도 호명하지 않는데, 사랑의 불을 말하는 정점의 한 단어에 -yah가 스친다. 죽음과 겨루어 이기는 사랑, 혼돈의 물이 삼키지 못하는 사랑의 기원이 어디인지 — 본문은 발설하지 않은 채 한 음절만 남겨 두고 멈춘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 마음과 내 팔에는 무엇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가. 내 장부의 셈 — 은 천과 이백 — 으로 닿을 수 없는 것이 내게 하나라도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키지 못했던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곳까지 와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고 보여 준다 — 끈에 꿰인 도장 하나, 물이 쏟아져도 타는 불, 장부 곁의 작은 포도원, 능선을 달리는 노루.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독자를 부름 안에 남겨 둔다 — 빨리 달리라. 노래가 닫히지 않았으므로 독자의 응답도 닫히지 않는다. 욕의 폭풍과 전도서의 헛됨까지 다 지나온 서가의 끝에서, 이 부름이 마지막 발언이라는 사실 — 그것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시가서가 끝 수 없는 사랑의 인장으로 매듭지어졌으니, 다음 걸음은 그 사랑이 역사의 흙과 왕들의 흥망 속에서(역사서), 또 파수꾼의 외침 속에서(선지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여정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otam* — 도장, 정체성에 새겨지는 사랑.

미해결 질문

아가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chotam*(8:6) — 마음의 도장과 팔의 도장, 두 곳의 짝은 무엇이 다른가?

- 안에 새겨지는 것과 밖에 지녀지는 것, 정체성과 행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 신 6:6-8의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라"와 같은 짝의 그림인데, 본문은 둘의 차이를 풀지 않는다. 도장이 소유의 표인지 현존의 표인지도 열려 있다. 보존.

Q2. *shalhevetyah*(8:6) — 끝의 -yah는 신명의 축약인가 강조의 어미인가?

- 개역 "여호와와 불"과 여러 번역의 "맹렬한 불꽃" 사이, LXX의 *φλόγες αὐτοῦ*(신명 미반영)까지 — 권 전체에서 하나님 이름이 표면을 스치는 유일한 음절의 정체가 번역사 내내 닫히지 않았다. 사랑의 불꽃의 근원에 대한 암시인지, 히브리어 최상급 관용인지. 보존.

Q3. 8:5b "내가 너를 깨웠노라" — 깨운 이는 누구이며, 4절의 "깨우지 말라"와 어떻게 같이 있는가?

- 히브리어 접미사로는 깨워진 쪽이 남성으로 읽혀 신부가 신랑을 깨운 회상이 되는데, 바로 앞 절의 후렴은 깨우지 말라고 부탁한다. 때가 아닌 깨움과 때가 찬 깨움의 거리인지, 다른 층의 발화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존.

Q4. 8:9의 성벽과 문 — 두 갈래는 반대 상황에 대한 다른 처방인가, 같은 보호의 병렬인가?

- 망대는 높이 세우는 것, 판자는 둘러 막는 것 — 자재와 동작이 다른데, 오라비들의 의도가 대조(달힘/열림)인지 병렬(어느 쪽이든 돕겠다)인지 비워져 있다. 10절의 "나는 성벽이요"가 그 의논에 대한 답인지 독립 선언인지도 함께 이월. 보존.

Q5. 8:11-12의 솔로몬 — 실명의 등장은 비교인가, 거리 두기인가, 배경 장치인가?

- 표제(1:1) 이후 솔로몬이 직접 호명되는 마지막 단락.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라는 2인칭이 왕을 향한 발화인지 수사적 호격인지, 은 천의 장부와 '내 앞의' 포도원의 병치가 무엇을 재는지 — 단정 없이 보존.

Q6. 8:14 — 권은 왜 도착이 아니라 부름으로 닫히는가?

- berach(달리라)는 '도망하다'의 동사여서 이리로 달려오라는 초청인지 벗어나 달리라는 보냄인지 방향이 열려 있고, 2:17의 같은 어휘가 마지막 문장으로 돌아와 노래가 완결 대신 반복 가능한 부름으로 남는다. 사랑 노래가 닫히지 않는 이 결말의 결 —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